

지금부터
필요한
수능/서

정답과 해설

국어 영역 **고난도 문학**

● 지금 필수 감/상/전/략

가 수라

1 화자를 파악하자!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쫓아 버린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반복법	점층법
1연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쫓아 버림	무심함
2연	큰 거미를 쫓아 버림	서러움
3연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림	걱정, 슬픔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시적 상황	거미 가족이 해체된 상황
시대적 상황	1930년대 일제 강점하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현실

나 오랑캐꽃

1 화자를 파악하자!

[오랑캐꽃]과 민족의 비극적 삶을 동일시하며 슬퍼하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종결 표현의 반복	· '~단다'라는 간접 화법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함 · '오랑캐꽃'이라는 명사형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을 응축하여 드러냄
-----------	--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오랑캐꽃 동일시 **우리 민족**

→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억울하게 이름이 붙여진 오랑캐꽃과 일제 강점하에 탄압받던 우리 민족을 동일시하여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슬픔을 강조함

실전 01 수라 / 오랑캐꽃

가 「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쫓아 버린다. / 차디찬 밤이다. 」

[A] 시간적 배경 ① 화자의 차가운 모습을 부각함 ② 일제 강점기라는 배경을 상징함

[B] 「 어니젠가 새끼 거미 쫓아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

[B] 어느 사이엔가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새끼를 찾으러 온 어미 거미에 대한 연민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C] 「 나는 또 큰 거미를 쫓아 문밖으로 버리며 」 정답의 근거: 2번 거미 가족을 연민하고 동정하는 화자의 서러움이 드러남

[C]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자비, 연민, 독저 ▶ 2연: 큰 거미를 새끼 있는 곳으로 쫓아 버림(연민, 서러움)

「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 」

[D] 「 어디서 줍쌀알만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가, 방금 「: 무척 작은 새끼 거미의 약한 모습을 묘사하여 안쓰러움을 유발함」

나는 가슴이 에이는 듯하다.

「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에서 나온 행위

[E] 「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 정답의 근거: 1번 거미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해체된 거미 가족에 대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 거미들을 '가족'으로 의인화하여 인간의 삶으로 시상을 확장함 → 가족 공동체의 회복 열원 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3연: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에 버림(슬픔)

- 백석, 「수라(修羅)」

나 「 정답의 근거: 1번 오랑캐꽃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냄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오랑캐꽃(의인법) ▶ 서두: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의 유래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 정답의 근거: 1번 「: '~단다'로 문장을 끝맺음, 간접 화법의 종결 어미를 사용함

「도래샘도 텅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 정답의 근거: 3번 오랑캐의 비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드러냄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 /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

고려 때 울란의 여진 저병 힘없는 오랑캐의 모습을 비유(적유법) ▶ 1연: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 간 오랑캐의 비참한 운명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 2연: 덧없이 흘러간 세월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 여진족의 생활 도구들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 울어 보련 목 놓아 울어나 보련 오랑캐꽃 」 일제 강점하의 우리 민족을 상징 → 역사적인 수난과 시련의 상징이자 연민의 대상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애정 애통한 현실에 대한 억울함과 비통함 ▶ 3연: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슬픔 - 이육사, 「오랑캐꽃」

1 ④ 2 ③ 3 ②

가 수라(修羅)_백석

해제: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방바닥에 연이어 나타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거미 가족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해체된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 거미 가족의 이별과 '수라'라는 제목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심각했던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나 오랑캐꽃_이용악

해제: 이 작품은 '오랑캐꽃'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우리 민족에 의해 쫓겨간 오랑캐와 같이 일제 강점하에서 핍박당하며 유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설움과 소외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시이다. 화자는 오랑캐꽃과 오랑캐의 비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현실을 유추해 내는데 오랑캐꽃에 이입된 화자의 슬픔은 바로 일제에 의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유이민의 삶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전 조선 민족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이민들의 비극적인 삶과 비애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3연에서 거미를 의인화하여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는 오랑캐꽃을 우리 민족과 동일시하여 화자의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단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는 화자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는 이러한 행위의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단다'와 같은 간접 화법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고려 군사에 의해 쫓겨간 오랑캐들의 비극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가)에는 간접 화법의 종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C]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를 찾아온 큰 거미를 찬 밖으로 쓸어버리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진 것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C]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대상은 화자로, 화자는 새끼를 만나게 하기 위해 찬 밖으로 큰 거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차디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새끼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 화자의 무심함과 거미 가족이 처하게 된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가슴이 짜릿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새끼 거미를 찾

아 온 큰 거미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는 새끼 거미를 '좁쌀알만 한 알'에서 자체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로 표현함으로써 새끼 거미의 연약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며 '가슴이 에이는 듯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춥고 위험한 문밖이지만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용악은 북방을 떠돌던 장사치의 아들로 태어나 밑바닥 노동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와 망국민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러한 그였기에 잃어버린 고향과 국토에 대한 상실감을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대 이웃에 대한 연민과 동포애로 확장시켜 시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악은 「오랑캐꽃」에서 오랑캐꽃과 오랑캐의 비극을 통해 당시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유추해 내고자 한 것이다.

보기 노트

〈보기〉는 「오랑캐꽃」의 작가 이용악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설명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충 자료가 된다.

'강 건너로 쫓겨'간 오랑캐와 일제에 쫓겨 북방을 떠돌던 화자는 모두 이민족의 침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이민이 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화자는 오랑캐꽃과 오랑캐의 비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유추하여 일제에 의해 천대받던 유이민들의 슬픔과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오랑캐에 대한 동포애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본문 022쪽

004 정답과 해설

1 ③ 2 ④ 3 ④

가 가정(家庭)_이상

해제: 이 작품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는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를 드러낸 시이다. 현실을 극복하고 가족 공동체 안에 안정적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주제: 가장으로서의 일상적 삶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

나 가지가 담을 넘을 때_정끝별

해제: 이 작품은 수양의 늘어난 가지가 담을 넘어서는 모습에 주목하여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시이다. 담을 넘기 위해서는 가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뿌리, 꽃, 잎과 같은 내적 요인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고, 비, 폭설, 아울러 목표를 가로막는 담이라는 외적 요인까지도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자유를 얻기 위한 도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용기와 협력

1 표현상의 특징

(가)와 달리 (나)에는 수양의 가지, 뿌리, 꽃, 잎, 비, 폭설, 담 등 여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의 3연에는 수양 가지와 비슷한 대상들인 ‘묵련 가지’, ‘감나무 가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담을 넘는다든가 행위에 담긴 의미를 비단 수양 가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존재들에게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을 것이다’라는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는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화자의 답답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⑤ (가)에서는 ‘우리집이잖아보다그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다.’라는 부분에서 화자의 추측이 드러나 있고, (나)는 ‘~을 것이다’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존재가 어떤 경계를 지나 특정 공간의 내부 혹은 외부로 이동한다는 것이 중요한 ^{선지 ①, 선지 ③}시적 의미를 지니는 작품들이 있다. 흔히 내부로의 진입은 경계를 넘을 자격의 획득을 통해, 외부로의 진출은 경계를 넘을 능력의 신장을 통해 가능 ^{선지 ⑤}해지며,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게 마련인 존재는 때로 다른 존재의 도움에 힘입어 ^{선지 ④}그러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보기 노트

〈보기〉는 존재가 특정 공간의 내부 혹은 외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적 의미를 형성하는 작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경계로서의 ‘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식구에게 달한 창호 어디라도 한 구석을 좀 더 달라고 부탁한다. ‘식구(食口)야 봉(封)한창호(窓戶)에더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수입(收入)되어들어가야하지않나.’에서 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나’는 안 열리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나)의 ‘가지’도 용기를 내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기어 담을 넘고 마는 존재이다.

②, ③, ⑤ (가)에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자신이 자꾸만 ‘제움’처럼 감해 간다고 느낀다. 이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로 진입하는 일이며, 화자는 ‘문폐’에 이름이 적힌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책임을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나)에서 ‘가지’는 ‘금단’의 영역인 담 밖의 자유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담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데, ‘비’나 ‘폭설’과 같은 외적 시련 덕에 오히려 담을 넘는 일에 ‘신명’을 느끼게 된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가지’가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태적(靜態的)’은 어떤 대상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가장으로서의 무능함으로 인해 느끼는 자괴감과 압박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밤’은 가족이 처한 위기를 의미하며 ‘나’를 꾸짖고 조르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다.

② ㉡은 집에 밤이 찾아온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한 것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 가족의 상황을 환기한다.

③ ㉢에서 ‘비’는 ‘가지’에게 외부적 시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지가 담을 넘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준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은 그러한 ‘비’가 없었더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일에서 신명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제시한 가정적 표현이다.

⑤ ‘도박’과 ‘도반’은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시어들로 볼 수 있다. ‘가지’에게 ‘담’이 지닌 상이한 가치, 즉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 서기를 도전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도박’)이자, 궁극적으로는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해 준 존재(‘도반’)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실전 03 만분가

● 지금 필수 감/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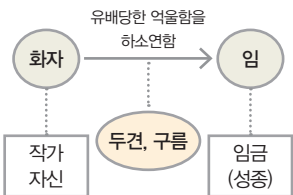
1 화자를 파악하자!

임과 이별한 여인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백옥경, 자청전, 삼청동리, 자미궁 → 신선이 사는 곳	임금이 계신 곳
초객의 후신, 가태부의 녀 → 억울한 누명을 쓴 인물들	화자 자신
두견, 구름 → 임금에게 화자의 심정을 전하는 존 재들	화자의 분신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정답의 근거·2번
무오사화가 일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작가 자신의 상황이 드러남

정답의 근거·1번
대구를 통해 유배당한 화자의 억울한 상황을 강조함

- 초객: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
- 가태부: 중국 한나라의 학자인 가의
- 천층랑: 천 층이나 되게 높이 솟은 파도
- 양각풍: 양의 뿔 모습처럼 부는 바람. 또는 회오리바람
- 환해중: 관리들의 세계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인가 □: 임금이 계신 곳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하늘의 신선이 사는 집}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 꿈이라도 갈동말동 ^{실제 거리가 아니라 임금이 있는 향안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냄} 차라리 죽어서서 억만(億萬)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 두견의 녀이 되어 ^{화자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 이화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신선이 사는 동네} 바람에 흩날 날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 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전(香案前)에 지척에 나가 앉아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함} 흥중에 쌓인 말쑥 실컷 사되리라 ^{→ 이 시가들 지음 목적}

▶ 서사(1~10구): 임금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알리고 싶은 마음

아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초객(楚客)의 후진인가 상심도 가이 없고 ○: 화자 자신

가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이고

형강(荊江)은 고향이라 십 년을 유락(流落)하니 ^{형강은 중국에 있는 강이나 여기서도 유배지인 순천을 가리킴. 유배지가 고향같이 느껴진다는 뜻}

㉣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정답의 근거·3번} 어르는 듯 꾀는 듯 남 없는 님을 만나 ^{'백구'는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조차 향기롭다 ^{아양을 부리는 듯 사랑을 하는 듯}

오색실 이음 짙아 님의 옷을 못 하여도 ^{정답의 근거·1번}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나 갚으리라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음}

백옥 같은 이내 마음 님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 무오사화

일모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하구나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뚝은 서늘}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님 계신 데 바라보니 ^{해가 저물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 서 있으니 푸른 소매가 차갑게 느껴짐}

㉤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나뭇잎}

다 씌은 님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전설 속의 강으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 장애물, 저지적인 세력 비유}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리 되었구나

천층랑(千層浪) 한가운데 백 척 간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羊角風)이 환해중(宦海中)에 내리나니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풍파}

억만 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도다 ^{→ 본사 1(11~30구): 충신인 자신이 유배당한 사연}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가 ^{노나라의 흐린 술에 초나라의 수도 한단이 무슨 죄이며}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진나라 사람이 취한 것이 월나라 사람이 웃은 탓인가}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무오사화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모두 죽을} ^{시들었구나}

▶ 본사 2(31~34구): 무고한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 온 사연

- 조위, 「만분가(萬憤歌)」

1 ④ 2 ② 3 ④

만분가(萬憤歌) _ 조위

해제: 이 작품은 순천으로 유배된 작가가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 없는 슬픔과 원통함을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 가사이다. 작가는 임과 이별한 여인을 화자로 설정하고, 무고하게 유배를 당하게 된 사연과 유배지에서 느끼는 정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등을 담아내고 있다.

주제: 유배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연군의 정

작품 전체 보기

서사	임금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알리고 싶은 마음
본사	무고하게 유배를 당한 억울함
결사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및 자신의 마음을 알아 줄 사람과 교우하고 싶은 마음

수록

1 표현상의 특징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와 같은 묘사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묘사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가’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화자가 억울하게 유배당한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

② 임이 살고 있는 곳은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자청전(紫淸殿)’, ‘삼청동리(三清洞裡)’, ‘자미궁(紫微宮)’과 같은 천상의 공간이며, 화자는 임과 이별하여 ‘형강(荊江)’에 있는 처지이다.

③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 ‘억만(億萬) 번 변화하여’, ‘천층랑(千層浪)’, ‘백 척 간’, ‘억만 장’과 같은 과장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는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⑤ ‘오색실 이음 짧아 님의 웃을 못 하여도’에서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조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성종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던 조위는 성종 사후 연산군 1년에 대사성으로 『성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史草)에 수록하였는데, 「조의제문」은 항우를 세조에, 의제를 단종에 비유해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난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극돈, 유자광 등이 연산군에게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알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 파면당하는」 무오사화가 일어난다. 조위는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는 도중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이극균이 조위가 선왕인 성종의 충신이었다는 점을 두둔하여 사형만은 면하고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순천으로

로 이배된다. 조위는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만분가」를 짓고 49세로 일생을 마쳤다.

보기 노트

〈보기〉는 「만분가」가 창작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B]에서 장안에 무서리가 섞여 졌다는 것은 무오사화가 일어나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모수죽(日暮脩竹)’은 두보의 시 「가인(佳人)」에 나오는 구절로, 해가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해 서 있으니 푸른 소매가 차갑게 느껴진다는 표현을 통해 무오사화로 인해 작가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초객(楚客)’은 중국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굴원’으로,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간 굴원은 먹라수에 빠져 자살한다. ‘가태부(賈太傅)’는 중국 전한 시대의 문인이자 학자인 ‘가’의로, 당시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되자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에 비유하여 시를 지었다. 화자가 자신을 ‘초객의 후신’이자 ‘가태부의 님’으로 비유한 것은 자신 역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③ [C]는 까닭 없는 화오리바람으로 관리 사회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구로, 화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무오사화로 인해 화를 입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D]는 노나라의 흐린 술이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진나라 사람이 취한 것이 월나라 사람이 웃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냐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빗대어 화자 자신 또한 무오사화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 ‘성문 모진 불’은 무오사화를 비유한 표현이고 ‘옥석’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즉,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라는 의미로 억울하게 유배당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이 작품에서 ‘백구’는 화자가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는 하늘 문까지의 거리가 구만 리라는 것으로, 화자와 임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②, ③ ‘두건’과 ‘구름’은 화자가 죽어서 되고자 하는 분신으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약수(弱水)’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 강으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이는 고전 시가에서 주로 화자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설정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화자가 임에게로 가는 ‘구름길’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실전 04 관동별곡

● 지금 필수 감/상/전/락

1 화자를 파악하자!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자연을 즐기거나 하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일출(해)	임금을 상징함
넬구름	간신배를 상징함

→ 임금을 염려하는 화자의 우국지정
이 드러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공(公)	사(私)
위정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유교적 충의 사상)	인간 본연의 욕망 추구(도 교적 신선 사 상)

꿈(갈등 해소의 매개체)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애민 정신과 선우후락 을 되새기며 내적 갈등 을 해소함
---------------------	---

정답의 근거·1번
설의법을 사용하여 경포호의
경치가 아름답음을 강조함

정답의 근거·2번
강릉의 미풍양속을 찬양함

梨니花화는 불서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洛낙山山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臺에 올라 안자, ■: 관동 팔경의 여정 일부가 드러남

정답의 근거·2번 의상대의 시간적 배경
日일출출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되는 동, - 임춘전
중신

바다히 썬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 임춘중

주제: 해
天천中중의 티뜨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 임춘후

간신
아마도 넬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임금의 예지를 나타냄

우국지정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이백
天천地地間間 壯장한 古古別別 주셔히도 홀셔이고, ▶ 본사 2: 의상대 일출의 장관과 나라에 대한 걱정

이백의 시구에 담긴 소식: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躑躑踏踏을 으니불와,

翫우蓋개芝지輪輪이 鏡鏡浦浦로 느려가니,
경포호의 맑고 잔잔한 물을 비유함

十십 리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당松송 울흔 소개 슬크장 퍼더시니,
독천샘 실컷 주제: 경포호

들걸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매우 맑음

孤고舟舟 解解纜纜하야 亭亭子子 우히 올라가니,
배가 항구를 떠나

江江門門橋橋 교 너른 겨터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從從容容흔다 이 氣氣像像 闊闊遠遠원흔다 더 境境界계,
경포의 기상 동해의 경계

이도곤 7군 더 또 어디 잇닷 말고.

紅紅粧粧 古古事스를 헛스타 흐리로다.

江江陵릉능 大대都都護護 風風俗俗속이 도홀시고.

고을고을마다
節節孝孝旌旌 門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강릉의 미풍양속

比比屋屋옥기가 封封이 이제도 잇다 홀다.
자신의 선정을 과시함, 해명서대

眞眞珠珠珠館館 竹竹岫岫樓樓 五五十十川천 느린 물이,
강원도 삼척

太태白白岫岫山山 그림재를 東東海海히로 다마 가니,

출하리 漢漢江江의 木木屑屑의 다히고저.

동해로 가는 통을 항강으로 흐르게 하여 냇산에 닿게 하고 실음(연금지정)

王왕程程명이 有有有限限하고 風風景景이 못 슬피니, f: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 갈등함

관원의 임무(화자의 신분이 드러남) f: 잃고 떠나니

幽幽懷懷도 하도 할샤 客客愁愁수도 둘 더 업다.
그윽한 한포 나그네의 시름

仙仙槎槎를 띄워 내어 斗斗牛牛우로 向向하살가, } 신선의 초월적 세계 추구

仙仙人人인을 츠즈려 丹丹穴穴의 머므살가.
신선이 놓았던 독궁 북두성과 견우성

天天根根을 못내 보와 望望洋洋洋亭亭의 읊은말이,
신선이 놓았던 독궁

바다 밋근 하늘이니 하늘 밋근 므서신고.

바다 → 하늘 → 무엇. 연쇄법, 점층법
古古 斗斗 高高 老老 倪倪라서 놀내관디, □: 월광명 - 파도(유유법)

파도치는 모습, 유유법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銀山山을 것거 내어 六六嶽嶽의 느리는 듯,
높이 솟은 칠 파도, 유유법

▶ 본사 2: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양속

▶ 본사 2: 죽서루에서의 객주

五五月월 長당天현의 白^{목보라, 옥유법}벽雪^{옥유법}설은 므스 일고.

▶ 본사 2: 망양정에서의 바다 조망

저근덧 밤이 드러 風^{잘개}풍浪^{내적 강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함}랑이 定^{정답의 근거·2번}딩^{망양정의 시간적 배경}하거늘,

扶^{정답의 근거·2번}부桑^{망양정의 시간적 배경}상 咫^{당빛을 비유한 말}지尺^{당빛을 비유한 말}척의 明^{달이 뜨길 기다리는 경건한 태도}明月^{달이 뜨길 기다리는 경건한 태도}월을 기드리니,

瑞^{달빛을 비유한 말}서光^{달빛을 비유한 말}광 千^{달빛을 비유한 말}천丈^{달빛을 비유한 말}당이 비는 듯 숨느고야.

珠^{구슬을 꿰어 만든 방}珠^{구슬을 꿰어 만든 방}簾^{구슬을 꿰어 만든 방}렴을 고터 짓고 玉^{옥같이 고운 설동}옥階^{옥같이 고운 설동}계를 다시 쓸며,

啓^{새벽이 되도록(시각의 경과)}계明^{새벽이 되도록(시각의 경과)}明星^{새벽이 되도록(시각의 경과)}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白^{당, 입금의 은혜}벽蓮^{조한옹(조동주)}년花^{조한옹(조동주)}화 혼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일이 도흔 世^{애민 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세계^{애민 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계 寤^{애민 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대^{애민 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되 다 비고져.

流^{선선 세계를 향한 동경을 나타냄}뉴霞^{선선 세계를 향한 동경을 나타냄}하酒^{선선 세계를 향한 동경을 나타냄}주 그득 부어 돌드려 무론 말이,

英^{이백}영雄^{이백}웅은 어디 가며 四^{신선 때의 네 한량}스仙^{신선 때의 네 한량}선은 괴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뵈 別^{영웅과 사선의 소식}뵈^{영웅과 사선의 소식}자 못자 하니,

仙^{영웅과 사선의 소식}선山^{영웅과 사선의 소식}산 東^{영웅과 사선의 소식}동海^{영웅과 사선의 소식}히에 갈 길히 머도 멀샤.

▶ 결사: 망양정에서의 달맞이와 신선적 풍류

松^{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송根^{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근을 베여 누어 罽^{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를 얼끗 드니,

꿈에 혼^{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사람이 날^{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드려 닐온 말이,

그^{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디를 내^{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 모르랴 上^{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상界^{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계에 眞^{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진仙^{갈등 해소의 매개체 △: 신선, ○: 화자}선이라.

黃^{하늘나라(선계) 도를 성취한 참 신선}황庭^{하늘나라(선계) 도를 성취한 참 신선}당經^{하늘나라(선계) 도를 성취한 참 신선}경 一^{하늘나라(선계) 도를 성취한 참 신선}일字^{하늘나라(선계) 도를 성취한 참 신선}즈를 었디 그릇 닐거 두고,

人^{인간 세상(화계)}인間^{인간 세상(화계)}간의 내려와서 玉^{인간 세상(화계)}씨를 쫓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북두칠성을 승국자란, 동해를 승로 여길 → 화자의 호랑할 기상}북斗^{북두칠성을 승국자란, 동해를 승로 여길 → 화자의 호랑할 기상}두星^{북두칠성을 승국자란, 동해를 승로 여길 → 화자의 호랑할 기상}성 기우려 滄^{북두칠성을 승국자란, 동해를 승로 여길 → 화자의 호랑할 기상}창海^{북두칠성을 승국자란, 동해를 승로 여길 → 화자의 호랑할 기상}히水^{북두칠성을 승국자란, 동해를 승로 여길 → 화자의 호랑할 기상}슈 부어 내어,

쳐^{기운이니} 먹고 날^{기운이니}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 화자의 신선적 풍류가 드러남}화風^{「」: 화자의 신선적 풍류가 드러남}풍이 翫^{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한이등선」에서 연상할 말}습翫^{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한이등선」에서 연상할 말}습하야 兩^{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한이등선」에서 연상할 말}냥腋^{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한이등선」에서 연상할 말}익을 추혀드니,

九^{정답의 근거·2번}구萬^{정답의 근거·2번}만 里^{정답의 근거·2번}리 長^{정답의 근거·2번}당空^{정답의 근거·2번}공에 저^{정답의 근거·2번}기면^{정답의 근거·2번}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온 세상에}스海^{온 세상에}히에 고로 논화,

億^{백성들을 모두 잘살게 함 후에}억萬^{백성들을 모두 잘살게 함 후에}만蒼^{백성들을 모두 잘살게 함 후에}창生^{백성들을 모두 잘살게 함 후에}싱을 다 醉^{다시 만나}취케 冥^{다시 만나}근 後^{다시 만나}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혼 잔 亨^{다시 만나}샷고야.

말 디자 鶴^{신선이}학을 타고 九^{신선이}구空^{신선이}공의 올라가니,

空^{꿈 → 현실, 환상적 분위기}空中^{꿈 → 현실, 환상적 분위기}등 玉^{꿈 → 현실, 환상적 분위기}옥簫^{꿈 → 현실, 환상적 분위기}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줌을 끼여 바다힐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그^{끝인듯}인들 었디 알리.

明^{입금의 은혜(=백년화)가 온 세상을 비출 → 갈등 해소}明月^{입금의 은혜(=백년화)가 온 세상을 비출 → 갈등 해소}월이 千^{입금의 은혜(=백년화)가 온 세상을 비출 → 갈등 해소}천山^{입금의 은혜(=백년화)가 온 세상을 비출 → 갈등 해소}산萬^{입금의 은혜(=백년화)가 온 세상을 비출 → 갈등 해소}만落^{입금의 은혜(=백년화)가 온 세상을 비출 → 갈등 해소}낙의 아니 비췌 더 업다.

▶ 결사: 꿈을 통한 갈등의 해소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정답의 근거·2번
선선과 화자의 대화

- 비옥가봉(比屋可封): 집집마다 덕 행이 있어 모두 표창할 만하다는 뜻으로, 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턴근(天根): 하늘의 맨 끝을 상상하여 이르는 말
- 육합(六合): 천지와 사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가리킴
- 부상(扶桑):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 황명경(黃庭經): 도가(道家)의 경문. 천상의 신선이 이 경문을 한 자라도 잘못 읽으면 인간 세계로 귀양 온다는 전설이 있음

실전

04

본문 026~028쪽

1 ③ 2 ⑤ 3 ⑤

관동별곡(關東別曲) _ 정철

해제: 이 작품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정철이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쓴 가사로,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관원으로서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우국, 애민, 연군의 정과 개인적 풍류 사이에서의 갈등을 꿈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애민의 정

작품 전체 보기

서사	• 관찰사 임명과 부임의 여정 • 관내 순시와 목민관으로서의 선정에 대한 포부
본사 1	내금강 유람(만폭동 → 금강대 → 진혈대 → 개심대 → 화룡소 → 불정대 → 산영루)
본사 2	관동 팔경과 동해안 유람(종석정 → 삼일포 → 의상대 → 경포호 → 죽서루 → 망양정)
결사	동해의 달맞이와 풍류

1 표현상의 특징

‘이도곤 7준 더 쏘 어딴 잇닿 말고’와 같은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경포의 장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절의 흐름이 아닌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반어와 역설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인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상계(하늘나라)’라는 상상의 이미지와 ‘인간(인간 세상)’이라는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시상 전개 방식

‘의상디’, ‘죽서루’, ‘망양정’에서는 임금을 염려하는 우국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등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포’에서는 경포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임금에 대한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상디’는 일출이라는 새벽 시간대를, ‘망양정’은 달이 떠오르는 밤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화자는 ‘의상디’와 ‘경포’에서 모두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경포’에서는 ‘의상디’에서와 달리 ‘강능 대도호 풍속이 도흘시고 / 절효정문이 골골이 버려시니’라고 하며 강릉의 미풍양속도 함께 찬양하고 있다.

③ ‘죽서루’에서 화자는 관찰사로서의 의무와 자연을 즐기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데, 이러한 내적 갈등은 ‘망양정’에서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화자는 꿈속에서 신선과 만난 후,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겠다고 이야기하며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된다.

④ ‘망양정’에서는 ‘경포’에서와 달리 신선과 화자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관동별곡」은 대사회적 모습으로서의 페르소나(persona)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아니마(anima)라는 인간의 양면적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관찰사라는 공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애민 정신이나 선정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의식이 페르소나적 요소라면,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아니마적 요소이다. 화자는 이 두 요소의 충돌로 인한 내면적 갈등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현실적인 책임감과 인간 본연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양면적 심리를 심리학적 용어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충 자료가 된다.

‘학을 타고 구공의 올’라가는 신선의 ‘공둥 옥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하는 것은 화자가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어렵듯한 정신 상태에서 피리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으로, ‘옥소 소리’는 환청에 해당한다. 이는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치일 뿐, 아니마적 요소를 극복하고 페르소나적 요소를 추구하려는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왕령이 유한후고’라는 관원으로서의 의무와 ‘풍경이 못 슬미니’라는 자연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충돌하는 것에서 대사회적 모습으로서의 페르소나적인 요소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아니마적 요소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② 신선이 탄다는 배인 ‘선사를 띄워 내어 두우로 향’하고 ‘선인을 좇조려 단혈의 머’무러려는 신선의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려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은 욕구를 지닌 화자의 아니마적 심리를 엿볼 수 있다.

③ ‘빅년화’라는 임의 은총을 ‘세계 놔대되 다’ 보여 주고 싶다는 목민관으로서의 애민 정신과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것에서 공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애민 정신이나 선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화자의 페르소나적인 심리를 엿볼 수 있다.

④ ‘냥익을 추허드니’ 신선처럼 ‘구만 리 당공에 저기면’ 날아올 것 같다고 표현한 것에서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은 욕구를 지닌 화자의 아니마적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정답의 근거 1번 ☐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에 주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앞부분 줄거리] 만두집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었다. 그 피아노는 살림집이자 가게로 쓰이는 공간에 놓인다. '나'는 그 공간에서 이따금 피아노를 쳤는데,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했다. 고3 겨울 방학에 '나'의 집은 아빠가 선 빗보중 때문에 망하게 되고, '나'는 그즈음 서울권 대학의 컴퓨터 학과에 합격을 한다.

엄마는 차압 딱지가 붙기 전, 값나가는 물건을 팔아버리자고 했다. 아빠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고가품을 찾아 움직였다. 『그러나 10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집서 값나가는 물건이 피아노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도 팔면 80만 원이 안 되는 물건이었다.』 엄마는 고민하더니, 다시 피아노를 팔지 말자고 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나 때문이면 괜찮다”고 했다. 피아노를 치지 않은 지 한참 됐고, 진심으로 미련도 없었다. 피아노 위에 올려진 인형들은 말뚱말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두 아빠가 뽑아온 것이었다. 엄마는 고민하다 피아노는 일단 갖고 있자고 했다. / “어떻게?”

정답의 근거 3번 '나'가 서울로 피아노를 가지고 온 것은 엄마의 부탁 때문임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서울로 갖고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 / 나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⑦ “거기 반지하야, 엄마.” /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나는 계속 피아노를 팔자고 설득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도 없었다. 엄마는 그게 무슨 기념비라도 되는 양, “사정이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하고 말끝을 흐렸다. 결국 나는 피아노를 이고 상경해야 했다. 내가 집을 떠나던 날, 아빠는 오토바이 ‘쇼바’를 잔뜩 올린 채 도로 위를 달리며 울고 있었다. 아빠는 오토바이 속도가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앞바퀴를 들며 “애들이 너한테 절대 보증 서지 마!”라고 오열했고, 빌딩하우스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속도위반 딱지를 뗐다고 했다. 벌금은 고스란히 만두 가게서 일하는 엄마 앞으로 전가됐다. <중략> “도—”

▶ 아버지의 빗보중으로 집이 망하고, 피아노와 함께 서울로 이사 온 '나'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옆게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 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네 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 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갖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⑧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피아노 건반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주인의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남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다. /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애길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

책임을 전파하려는 집주인의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남

지금 필수 감/상/전/락

1 인물을 파악하자!

아빠의 빗보중 때문에 집이 망하고, 피아노와 함께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한 '나'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아빠가 선 빗보중으로 집이 망함

+

반지하방에 비가 새어 들어오는 상황에서 '나'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나'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 집주인의 이기적인 태도

집주인

'나'에게 피아노를 못 치게 하고, '나'와 언니가 생활하는 반지하방에 핀 곰팡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

'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집주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낌

• '나'가 겪는 문제 상황

폭우

반지하방에 빗물이 들어옴

'나'는 계속해서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낌

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 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 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영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미 레도시도 파, 미 솔미 레도시도 레레레 미…… ㉔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웬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 욕구를 휴대 전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대신함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집주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함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나는 만두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다. ㉕ 언니는 의외로 답답했다.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

정답의 근거·2번

언니는 빗물이 들어오는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고, 걸레로 닦아 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 바쁜 듯 전화를 끊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 주니,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현관 앞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 안에 넣고, 컴퓨터와 티브이 등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았다. 피아노 주위엔 마른 수건 몇 장을 단단히 둘러놓았다. 방바닥에 고인 물은 걸레로 훑쳐내면 될 일이었다. 나는 걸레로 바닥을 닦은 뒤 세숫대야에 물을 짜내고 훑쳐내는 일을 반복했다. 구정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없앴다.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언니 말대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㉖ 조금쯤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한바탕 집 안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 상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조금 전 물기를 닦아 낸 곳에 다시 빗물이 고여 있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나는 하얗게 질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 언니가 주위 눈치를 보는 듯 조그맣게 대꾸했다.

“왜?” /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나’의 좌절감과 두려움
 “비 와.” / 언니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 나는 아이처럼 훌쩍였다.

“응, 근데 자주 와.”

언니는 조용히 나를 타이르며 집에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다.

우리는 ‘나’를 달래며 하이든은 언니의 어른스러운 모습
 “언제 올 건데?” / 언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곧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물은 발등까지 차올랐다.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났다.

상황이 점점 악화됨
 ▶ 방으로 들어온 빗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

- 김애란, 『도도한 생활』

1 ③ 2 ④ 3 ①

도도한 생활 _ 김애란

해제: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도도한 생활'은 주인공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의 불안하고 어두운 생활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엄마가 만두를 팔아 마련해 준 피아노는 배움에 대한 결심이 있었던 엄마의 자부심으로, '나'가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할 때 함께 옮겨진다. '나' 역시 남루한 서울 생활을 버티게 하는 것은 도도한 태도뿐임을 깨닫고, 집주인의 말을 어기고 방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함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주제: 청년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만두집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고, '나'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좋아함
전개	아빠의 빚보증으로 인해 집이 망하고, 서울권 대학에 합격한 '나'는 피아노와 함께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함
위기	저녁부터 내린 폭우에 방으로 빗물이 차오르고, '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 언니를 기다리며 방에 들어온 빗물을 닦아 냄
절정	빗물을 퍼내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고, 언니의 예전 애인이 술에 취해 찾아옴
결말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방에서 '나'는 이제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한 피아노를 연주하며, 언니의 잠든 예전 애인을 쳐다 봄

1 서술상의 특징

이 작품은 반지하방이라는 개인적인 공간과 피아노라는 상징적인 사물에 주목하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을 통해 빗물이 방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언니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물이 새는 방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언니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을 언니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서울로 피아노를 가지고 가라는 엄마의 요구에 '나'는 '반지하'라고 말함으로써 이사 갈 곳이 피아노가 들어가기에 마땅하지 않은 열악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엄마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가 하나의 건반밖에 울리지 않았음에도 문을 두드리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집주인의 이기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 ③ 집주인으로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나'가 '웬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집주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는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상황에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언니와의 전화 통화 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는 문제 상황을 혼자서 해결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작품의 제목 '도도한 생활'은 '나'의 현실 생활과는 거리가 먼 표현으로, 현실의 불안함과 어둠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제목의 의미} 곰팡이가 핀 반지하방에서 언니와 함께 살아가는 '나'는 아버지나 집주인 남자와 같은 윗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폭우가 내리는 밤에 빗물이 차오르는 반지하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결국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피아노를 침으로써 도도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피아노는 ^{'나'의 상징성} '엄마와 '나'에게 피아노가 지닌 의미'에게도, 딸인 '나'에게도 남루하고 불안한 세상을 제대로 견디기 위한 보루이면서 자존심이고, 위안거리이기도 하다.

보기 노트

〈보기〉는 작품 제목의 의미와 '나'로 대변되는 인물의 상징성, 주요 소재인 피아노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가 피아노를 서울 언니네 반지하방으로 가지고 온 것은 '나'에게 피아노가 반지하방에서 느낄 현실의 불안함을 견디기 위한 위안거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부탁 때문이었다. 피아노는 엄마에게 남루하고 불안한 세상을 견디기 위한 보루이면서 자존심이고, 위안거리였으므로 '나'에게 서울로 가지고 가도록 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나'는 결국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피아노를 침으로써 도도함을 지키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집주인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피아노를 치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도도함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피아노는 엄마에게 남루하고 불안한 세상을 견디기 위한 보루이면서 자존심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엄마가 피아노를 팔지 말자고 한 것은 집은 망했어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제목 '도도한 생활'은 '나'의 현실 생활과는 거리가 먼 표현으로, 현실의 불안함과 어둠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빗물이 차오르는 반지하방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의 불안함과 어둠을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나'는 아버지나 집주인 남자와 같은 윗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나'와 언니가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은 윗세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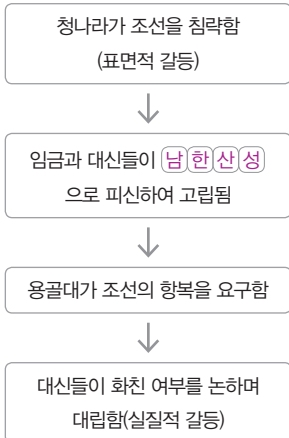
실전 06 남한산성

● 지금 필수 감/상/전/략

1 인물을 파악하자!

적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하는 **최명길**과 **김상헌**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최명길(주화파)
- 청과의 화친을 주장함 - 당장의 치욕을 감수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함
↕ 갈등
김상헌(주전파)
- 청과의 전쟁을 주장함 - 욕된 삶을 살 바에는 청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함 -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함

정답의 근거·1번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맞서 싸우기를 주장하는 김상헌의 대립

정답의 근거·3번

성을 고립시켜 스스로 항복하게 하려는 의도임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꿰어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 **쳐나라장수**내어 읽었다.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아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너희 신료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①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문서의 내용이 치욕스러워 읽기를 망설임

『**너희 군신**이 그 좁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 용골대가 임금에게 공욕감을 줌 남한산성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이조 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끌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 최명길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주화파)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어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돈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사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 최명길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김상헌

②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의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앞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 화친을 하여 내실을 도모해야 함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降)이오.』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
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입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本)이고 화가 말(末)이며 수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전쟁을 주장하는 김상헌이 각각 내세우는 근거

- 김훈, 『남한산성』

정답의 근거·1번

화(和), 전(戰), 수(守)에 대한 최명길과 김상헌의 입장 차이

정답의 근거·1번

삶과 죽음에 대한 최명길과 김상헌의 입장 차이

정답의 근거·4번

두 사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 때문임

정답의 근거·2번

양쪽 의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반응을 보임

1 ② 2 ④ 3 ② 4 ⑤

남한산성_김훈

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념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임금과 대신, 백성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남한산성이라는 공간은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이라는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의 의견과 물러서서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화파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임금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민중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참함과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백관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함
전개	성을 둘러싼 청나라는 조선의 항복을 요구하고, 산성 안의 조선 조정은 청과의 화친 여부를 놓고 논쟁함
위기	최명길은 산성 밖으로 나가 용골대를 만나고, 청의 치욕스러운 요구를 인조에게 전함
절정	강화도가 함락되자 인조는 항복을 결심하고, 김상헌은 자결을 시도함
결말	인조는 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 의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감

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고립된 남한산성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청과 화친을 해야 한다는 최명길과 대의를 위해 청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김상헌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긴장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답 풀이 ① 최명길과 김상헌이 임금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현 상황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최명길과 김상헌의 서로 다른 입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최명길과 김상헌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즉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객관적 관점으로 사건을 드러내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임금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최명길과 김상헌에게 그만둘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태도와 반응을 보임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병자호란 때 임금과 백관이 피신한 남한산성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공간이었다. 상류층은 명에 대한 대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청이라는 현실을 수용할 것인가를 두고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하였고, 민중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혹독한 고통을 견디었다.

보기 노트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임금과 대신, 백성들이 46일 동안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보기>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남한산성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를 통해, 적이 성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주화파의 승리를 예감해서가 아니라 성을 고립시켜 스스로 항복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인물의 심리 및 태도

㉔의 모습은 임금이 격분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최명길과 김상헌에 대한 서운함과 이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일 뿐,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답 풀이 ① 승지가 읽기를 머뭇거리는 것은 조선의 조정을 멸시하는 치욕적인 문서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② 최명길의 낮은 목소리는 목소리가 떨리는 김상헌과 대비되는 어조로서 주장의 진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최명길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떨리는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인 목소리로 바뀐 것은 비극적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관색(郭索)은 오(吳)나라 사람이다.

게가 기어가는 소리를 흉모하여 불인 병명

그의 시조는 관광(郭匡)이니, 신농씨(神農氏)를 보좌하다가 위기(胃氣)를 고친다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제왕의 하나. 농업의 신, 역의 신, 복의 신으로 숭앙됨
 든지 경락(經絡)을 다스리는 등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일찍이 식객 노릇을 하며 진
게의 의학적 통능을 드러냄
 (秦)나라에서 타향살이를 하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학질(瘡疾)을 앓는 사
 람이 많았다. 그러나 관(匡)이 병자들의 집 문 앞에만 이르렀다 하면 ㉠ 그들의 학
 질이 곧 낫고 말았으므로 그런 일이 있는 뒤로부터는 관씨의 가문이 진나라에서
 존중되었다.

정답의 근거·1번 '게'의 약리적 효과를 드러냄

관광의 아들은 관오(郭敖)이다. 오(敖)는 월(越)나라 임금 구천(句踐)에게 벼슬하
 기를 구했는데, 그 당시 구천은 나라의 정사(政事)를 막 투와(鬪蛙)에게 일임하고
 있던 참이었다. 투와는 평소 관씨 가문의 내력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으므로, 그를
 얕잡아보면서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이에 오는 월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 선조인 '관'과 '오'를 중심으로 관색 집안의 내력 소개

관오로부터 9대를 내려와서 관색의 대에 이르렀다. 관색은 타고난 성질이 조금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속을 초탈한 고상한 취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인간 세상
『』: 은둔의 삶을 살았던 관색의 모습
 을 피한 채 ㉡ 늪지대 속으로 도망하여 갈대밭 사이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그
늪지대에 사는 게의 속성이 드러남
 러면서도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으니, 자신의 이름이 세상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렇지만 강호(江湖)의 은자들은
 간혹 그가 있는 곳을 알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교유하기를 청했고, 그럴 경우
 관색도 마지못해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사람들이 비록 술상을 풍성하게 차려 놓
 고 그를 맞아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색이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 성질이 조금하지만 고상한 것을 알며 은일하는 관색

한번은 어떤 사람이 관색을 임금에게 천거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태사(太史)가 정성(井星)과 귀성(鬼星)의 분야에 틀림없이 이인(異人)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史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인이란 아마 관색인가보다.”

하면서 사신을 보내어 억지로 관색을 초치하고는 승지(承旨) 벼슬을 주려고 하였
 다. 이에 관색이 두 손을 들어 이마에 갖다 대고 사양하며 아뢰기를,

복에서 안으로 돌린 임금의 명령을 충당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

정답의 근거·3번 벼슬이나 부귀에 뜻이 없음을 밝히는 관색

“폐하께서 명을 내리시니, 신은 비록 물이 끓는 솥에 뛰어드는 일이라 할지
 라도 감히 사양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은 세상의 벼슬에 뜻이 없는

[A] 선비로서 세상의 부귀를 하찮게 여기니,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뒹굴며
 스스로 유쾌하게 지낼지언정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는 분에게 얽매임이 없고
 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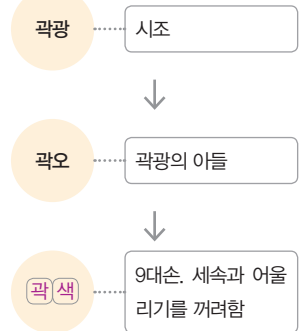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을 삼켰다. 그러자 임금은 그의 뜻을 어엿비 여기는
 한편 그의 집안이 횡초(橫草)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구강(九江)의 이제(二淞)
 에 있는 송강(松江)과 진택(震澤) 지역을 관색의 식읍지(食邑地)로 삼도록 하였다.

▶ 임금이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고사하는 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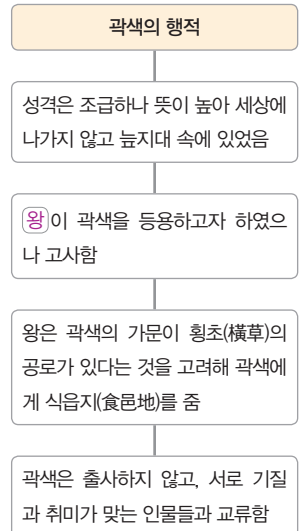
관씨로서 강호 간에 흠어져 사는 자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유독 관색만이 풍류
 와 운치로써 스스로를 잘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교유하는 상대는 모두

● 지금 필수 감/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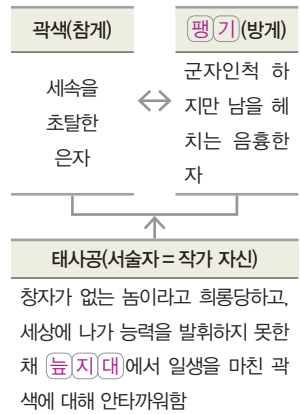
1 인물을 파악하자!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운치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격조 높은 선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천(醴泉)**
^{술을 의인화함}
의 조순(調訓)과는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기질과 취미가 통한다고 인정하였
^{친구 관계에서는 '의기투합하다', 음식에서는 '맛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의 의미임}
 다. 사람들이 간혹 조순을 초대하면 객색도 이따금 그와 어울려 함께 갔다. 그리고
 『그들이 초청받은 자리에서는 슬픈 심경에 잠겼거나 답답한 마음을 품은 자들도 흔
 『』: 계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군심 격적으로 담당하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 누구나 유쾌한 기분으로 전향됨
 쾌한 마음으로 즐겁게 놀기 마련이었다.』 ▶ 풍류를 즐기고 운치가 있는 객색

한나라의 장수였던 팽월의 후손 중에 **팽기(彭期)**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남의
 모습을 흉내 내는 기술을 배워 ㉠ 객색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니, 사람들이 자세
^{방개와 참개가 너무 흡사하여 이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 소인과 군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히 보아도 분별해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팽기는 겉으로는 군자인 체하였지만 안
 으로는 음흉스럽게 남을 해치는 자였기에, 사대부들 중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 방개는 참개와 비슷하게 생겨지만 방개는 독성이 있어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게 되므로, 사람들이 방개를 먹지 않았음을 의미함}
대하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 객색의 모습을 흉내 내는 팽기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 **곽해(郭解)**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협객(俠客)**으로서
^{위력으로 약자를 돕다 비명에 죽은 중국 전한 시대의 인물}
권도(權道)를 행했으므로 **승상인 공손홍(公孫弘)**이 국법으로 처단하였는데, 어떤
^{어떤 일을 이룩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
 사람은 그 **곽해가 바로 객색과 같은 일족(一族)**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사실 여부를 알 길이 없다. ▶ 객해와 객색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태사공(太史公)은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객색은 아름다운 공자(公子)이다. ㉡ 겉으로는 단단하고 내면으로는 누른 빛을
^{서술자 = 작가 자신}
 띠었으니, 그는 아마도 『주역(周易)』을 배운 자인가보다. 그가 갑옷을 입고 창을
^{객색의 외강내유 성격 보여줌}
 든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늙은 **횡초의 기상**이 있었음에도, 끝내 늙지대 속에
 서 죽고 말았으니, 아, 슬프다. ㉢ 세간에서는 더러 **무장(無腸)**의 말로 객색을 비
 웃기도 하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겠는가.” ▶ 객색에 대한 태사공의 평가

- 권필, 「객색전(郭索傳)」

- 객색(郭索): 계의 별칭
- 광(匡): 계의 등껍질
- 오(鰍): 집게발
- 투와(鼃蛙): 요란한 소리를 내는 개구리
- 횡초(橫草)의 공로: 싸움터에 나가 산야(山野)를 휩쓸며 이룩한 공로
- 식읍지(食邑地): 옛날 나라에서 공신 등에게 일정한 지역을 내려 주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사사로이 쓰게 한 고을
- 팽기(彭期): '방개'의 의인화. 참개 보다 조금 작으며, 독이 있어 먹지 못함
- 무장(無腸): 무장공자의 준말로 '게'를 가리킴

1 ① 2 ① 3 ⑤

곽색전(郭索傳) _ 권필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시대 가전체의 전통을 계승해 조선 중기에 창작된 것으로, '계'를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이다. 과거에 뜻이 없어 시주(詩酒)로 낙을 삼고 가난하게 살아간 작가의 자서전적 작품으로, 당대 정치 현실의 병폐에 대한 풍자와 '팽기'로 상징되는 권세가들의 이중적 처세에 대한 비판이 밀바탕에 깔려 있다.
주제: 벼슬에 구애받지 않고 도를 추구하는 은사(隱士)의 자세

1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곽색의 선조 '광'이 학질을 낮게 했다는 것은 민간에서 쓰이던 '계'의 약리적 효과를 드러낸 것이다. 이로 인해 곽씨 가문이 진나라에서 존중되었다고 했지만, 이것이 곽씨가 명문 가문 출신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곽씨 가문은 일찍이 진나라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식객 노릇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 답 풀이 ② 늙지대에 사는 계의 속성을 통해 은둔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곽색과 팽기는 사람들이 분별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모습이 유사하다. 작가가 팽기를 등장시킨 것은 가짜로서 진짜 노릇을 하거나, 소인으로서 군자인 체하는 자를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진짜 노릇을 하는 가짜를 잘 구분해 내지 못하는데,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④ 겉은 딱딱하고 속은 연한 계의 형태적 특성을 통해 겉으로는 단단하고 내면으로는 유순하고 선량한 기질을 지닌 곽색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무장(無腸)'은 '무장공자'의 준말로 '계'를 가리킨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권필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여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시주(詩酒)로 낙을 삼아 일생을 야인으로 지냈다. 동로 문신들의 추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수락하지 않^{조선 시대에,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각 군현에 둔 벼슬}았으며, 강화에 들어가 후진을 양성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주전론을 펼쳤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참지 못했던 그는 광해군 초에 최고의 권신이던 이이첨이 교제하길 청했으나 거절하였고, 광해군의 왕비 및 그 친정 족속들의 방종을 보고 비판하는 시를 지었다. 결국 이 일로 함경도로 유배가던 중, 행인들이 주는 술을 폭음하고 44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일찍이 권필은 「곽색전」에서 자신의 삶을 '계'에 이입하여 표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권필의 삶과 「곽색전」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곽색은 세상과 단절하며 은둔의 삶을 살았다. 때때로 '강호의 은자들'과 마지못해 어울리기는 했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도 보지 않았던 작가 권필의 삶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작가의 삶의 태도와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답 풀이 ② 곽색이 '승지 벼슬'을 사양한 것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시주로 낙을 삼아 일생을 야인으로 지냈던 권필의 삶과 관련이 있다.

- ③ '예천'은 술을 의미하는데, '예천의 조순'과 기질과 취미가 통했다는 것은 곽색이 술을 즐겨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시주(詩酒)로 낙을 삼아' 일생을 지냈다는 작가의 풍류적 기질과 연관이 있다.
④ '팽기'는 겉으로는 군자인 척하지만 내면은 음흉한 사람이다. 사대부들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 것은 최고의 권신 이이첨과의 교제를 꺼렸던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횡초의 기상'은 싸움터에 나가 산야(山野)를 휩쓸며 공로를 세울 만한 기운을 말한다. 곽색을 이러한 기상을 지닌 인물로 표현한 것은 임진왜란 때 강경한 주전론을 펼쳤던 작가의 이력과 관련이 있다.

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狂奔疊石吼重巒
광봉 침석 후중만

침침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네.
□: 물소리

人語難分咫尺間
인 어 난 분 지 척 간
常恐是非聲到耳
상 공 시 비 성 도 이
故教流水盡籠山
고 교 류 수 진 통 산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 인간의 소리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네.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보기 노트

〈보기〉는 신라 말기의 난세에 절망한 최치원이 전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할 때 지은 7언 절구의 한시로, 세상을 멀리하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심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A]에서 곽색은 정치에 뜻이 없음을 임금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시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고 하며 속세와의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에서 곽색이 〈보기〉의 시를 덧붙였다면, 세속과 단절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실전 08 춘향전

● 지금 필수 감/상/전/탁

1 인물을 파악하자!

춘향	도련님(몽룡)
방자와 몽룡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주관 있게 행동함	춘향과의 만남 이후 춘향과의 혼인 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
모녀 시간	주인과 몸종
춘향 어머니	방자
신분 상승 욕구를 숨긴 채 춘향과 몽룡의 만남에 적극적임	춘향을 불러 오라는 몽룡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함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도련님(몽룡)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춘향을 부름
몽룡의 명을 춘향에게 전달함
춘향
자신은 기생이 아니므로, 갈 수 없다며 몽룡의 명을 거절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춘향	사회
양반인 몽룡과의 사랑을 이루고 싶어함	출생에 따른 신분적 제약이 있음

- 표면적 주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유교적 정절
- 이면적 주제: **신분 상승** 욕구

정답의 근거·1번
숙담을 인용하여 방자의 연행을 지적함

정답의 근거·1번
의인법을 통해 광한루 봄 경치를 묘사함

“통인아.” / “예.”

“저 건너 화류(花柳) 중에 ^{방자}오락가락 희뜩희뜩 어른어른 하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보아라.”
그네 뛰는 춘향의 모습

통인이 살펴보고 여쭙오되,

“다른 무엇 아니오라 이 고을 기생 월매 딸 춘향이란 계집아이로소이다.”
도련님이 엉겁결에 하는 말이, / ^{정답의 근거·1번}“아주 좋다. 훌륭하다.”
몽룡이 춘향에 대한 호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통인이 아뢰되,

“제 ^{월매}어미는 기생이오나 춘향이는 도도하여 기생 구실 마다하고 온갖 꽃이며 풀이며 글자도 생각하고, 여자의 재질이며 문장을 겸비하여 예사 처자와 다름이 없나이다.” / 도령이 허허 웃고 방자를 불러 분부하되,

“들은 즉 기생의 딸이라니 급히 가 불러오라.”

춘향이 천한 신분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방자 높 여쭙오되,

“눈같이 흰 피부 꽃다운 얼굴이 이 일대에서 유명하여 ^{「」}관찰사, 첨사, 병부사, 군수, 현감, 엄지발가락이 두 뼘씩이나 되는 양반 오입쟁이들도 무수히 만나 보려 하였지만 실패했고, ^{「」}장강의 아름다움과 임사의 덕행이며, 이백과 두보의 문필이며, ^{「」}전고의 유명한 인물들을 끌어다가 춘향의 아름다움을 표현함 -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요, 여자 중의 군자오니, 황공하온 말씀이나 불러오기 어렵나이다.” / 도련님이 크게 웃고,

“방자야 네가 물건에는 각기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도다. 형산에서 나는 백옥과 ^{자신이 춘향의 주인(배필)이라느 뜻}여수에서 나는 황금이 각각 임자 있느니라. 잔말 말고 불러오라.”

^{▶ 도련님(이몽룡)이 방자에게 춘향을 불러오라고 함}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불러 건너갈 때 맵시 있는 방자 녀석, ^{「」}서왕모가 ^{「」}요지연에 편지 전하던 파랑새같이 이리저리 건너가서,

“여봐라, 이 애 춘향아.” /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

춘향의 신분이 천민이므로 방자가 춘향에게 반말을 함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이 애야, 말 마라. 일이 났다.” /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을 내렸다.”
춘향이 화를 내어,

“네가 미친 자식이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나.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중당새가 삼씨를 까먹으면서 조장거린듯 떠들어 댔나 보다}중당새가 삼씨 까먹듯 빨리하얏나 보다.”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너 그른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에 그네를 타려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지 않고 또한 지금은 녹음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봄이라. ^{「」}춘향을 설득하여 도련님(이몽룡)에게 데려가려한 방자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둘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펴퍼져 ^{「」}호늘호늘 춤을 춘다. 이 같은 광한루 경치 구경하는데, 그네를 매고 네가

뛰어 외씨 같은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서 노닐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흰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같은 네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희뜩희뜩 한다. 도련님이 이를 보시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 춘향이 대답하되,

정답의 근거·2번

방자는 몽룡이 춘향을 부르게 된 이유를 춘향의 부적절한 행실에서 찾음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탕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정답의 근거·2번

춘향은 방자의 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춘향이 도련님(이몽룡)의 명을 전하는 방자의 말을 무시함

방자 별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사이에 제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정답의 근거·2번

몽룡은 춘향을 부른 이유를 정정하여 다시 전달함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 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 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정답의 근거·3번

춘향 어미는 본심을 숨긴 채 핑계를 대며 춘향에게 몽룡과 만나라고 함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중략>

▶ 방자의 말을 들은 춘향 어미가 춘향으로 하여금 도련님(이몽룡)에게 다녀오라고 하고, 춘향은 못 이기는 척 감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의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은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 아니로다.』

정답의 근거·3번

춘향은 성공할 상인 몽룡의 얼굴을 보고 흠족해함

이때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豪傑)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몽룡의 뛰어난 용모를 묘사함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 “성은 성(成)가웁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이 도령 거동 보소.

장자의 말 -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이팔이라. 성씨를 들어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 분명하다.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 평생 같이 즐겨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냐?”

“편모슬하로소이다.” /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처지

“올해 육십 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독녀라. 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정답의 근거·3번 춘향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도련님(이몽룡)에게 버림받을 것을 염려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함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랴.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 같은 맹세하리라. 네 집이 어디메냐?”

▶ 춘향의 고운 자태에 반한 도련님(이몽룡)은 춘향에게 혼인하자고 말함

- 작자 미상, 「춘향전(春香傳)」

- 이마: 순임금의 두 아내인 아황과 여영
- 여수: 중국의 강 이름
- 서왕모: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선녀의 이름
- 요지연: 요지라는 호수에서 벌였던 잔치

실전

08

본문 038~041쪽

1 ④ 2 ④ 3 ③

춘향전(春香傳) _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 중의 하나로, 100여 종이 넘는 이본(異本)이 있다. 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들의 항거가 담겨 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신분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의 모습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자 하는 민중의 사회적 비판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풍부한 극적 요소와 생동감 있는 인물의 성격 묘사는 작품의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 주제
-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표면적)
 -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위정자의 각성 촉구(이면적)

작품 전체 보기

발단	퇴기 월매의 딸 춘향과 남원 부사의 아들 몽룡이 광한루에서 만난 사랑에 빠지나, 몽룡 부친의 상경으로 두 사람은 재회를 기약하며 이별함
전개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도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명하고, 이를 거부한 춘향은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름
위기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온 몽룡은 신분을 감춘 채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가
절정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간 몽룡은 변학도를 봉고파직하고 춘향을 구함
결말	몽룡은 춘향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백년해로함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몽룡은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아주 좋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며 춘향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춘향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방자는 “관찰사, 첨사, 병부사, 군수, 현감, 엄지발가락이 두 뼁씩이나 되는 양반 오입쟁이들도 무수히 만나 보려 하였지만 실패했고, 장강의 아름다움과 임사의 덕행이며, 이백과 두보의 문필이며,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요, 여자 중의 군자요”라는 말을 통해 춘향을 보려 한 온갖 벼슬아치와 오입쟁이들을 나열하고, 전고의 유명한 인물들을 나열하여 춘향의 인물됨을 설명하고 있다.

② 방자는 “항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둘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펴져서 흐늘흐늘 춤을 춘다.”라고 하며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광한루의 봄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③ 춘향은 “네가 미친 자식이다.”와 같은 비속어와 여러 한자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⑤ “종달새가 삼씨 까먹듯”은 끊임없이 조잘거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춘향은 이 속담을 인용하여 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도련님에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방자의 언행을 지적하고 있다.

알아 두기

「춘향전」의 사상적 배경

인간 평등 사상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봉건 의식 타파
사회 개혁 사상	불의한 탐관오리의 횡포 징계
자유연애 사상	봉건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남녀 간의 사랑
열녀불경이부 사상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중시

2 사건의 전개 양상

방자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춘향에게 “네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너 그 큰 내력을 들어 보아라.”라고 말하며, ㉑가 춘향의 앞 전하지 못한 행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방자는 ㉒를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붉은 치맛자락이 펄 펄, 흰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같은 네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희뜩희뜩한다.”와 같이 ㉓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춘향의 부적절한 행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하며 도련님에게 함께 갈 것을 춘향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춘향은 방자에게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씨 까먹듯 빨리하였나 보다.”라고 말하며, 방자의 잘못으로 ㉑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라고 말하며 ㉒를 거절하고 있다.

② 춘향은 방자의 말을 듣고 난 후 “네 말이 당연하나~”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생이 아닌 자신을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가 없다고 답하면서 ㉑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방자는 춘향이 집 후원도 아닌 광한루에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그네를 땀기 때문에 ㉑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⑤ 몽룡은 자신이 제안한 만남을 거절한 춘향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이 춘향을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며 글을 잘한다기에 청하는 것이라며 만남의 이유를 정당하여 전달하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춘향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대의 사회적 신분이라 ^{조선 후기 민중들의 욕구와 의식이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임}는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떤 인물은 현재의 낮은 신분에서 벗어나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갈구하고, 어떤 인물은 ^{춘향, 춘향 어머니}당대의 주어진 사회적 신분 ^{몽룡}에 관계없이 개인적 욕구를 갈구하기도 한다. 이런 욕구들을 바탕으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특정 사안을 제안하며, 이때 제안을 받은 인물 역시 ^{신분 상승 욕구}이런 욕구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여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

보기 노트

〈보기〉는 「춘향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충 자료가 된다.

춘향은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라고 말하며 연을 맺은 후 몽룡에게 버림받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을 뿐, 신분적 차이로 인한 몽룡 집안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몽룡은 성, 나이, 형제에 대한 질문을 한 후,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라고 말하며, 개인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춘향에게 혼인을 제안하고 있다.

② ‘여염 처자’는 관아에 속한 기생이 아닌, 서민 사회에서 자란 평범한 처녀를 뜻하는 말이다. 춘향은 기생을 어미로 두었기 때문에 기생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에 몽룡은 춘향을 ‘여염 처자’라고 칭하며 춘향의 불만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만남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④ 춘향은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라고 말하며, 성공할 생김새를 지닌 몽룡의 외모를 보고 흠복해하고 있다.

⑤ 춘향 어머니는 몽룡이 춘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 상승 욕구를 숨긴 채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라는 핑계를 대며 춘향에게 몽룡과의 만남을 권하고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 지금 필수 감/상/전/탁

1 인물을 파악하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적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글쓰기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그리스 신화를 활용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함

영문학 수업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유도했던 경험을 제시함

두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힘

유행가 가사를 인용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함을 이야기함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자세와 관용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프로메테우스 신화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결점 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
영문학 강의의 일화	'역할 바꾸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음
글자 바꾸기 예화	'나'와 '남'은 점 하나의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정답의 근거·2번 '역할 바꾸기'를 시도한 영문학 수업의 일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지닌 유용성을 제시함

실전 09 나와 남

정답의 근거·2번 그리스 신화를 통해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을 보는 데만 능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함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파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파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파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점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파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정답의 근거·1번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보다 타인의 결점에 더 주목함
▶ 인간이 타인의 결점에만 주목하게 된 이유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뻔뻔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 타인에 대한 비난거리를 찾기란 매우 쉬움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 영문학 수업에서 '역할 바꾸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 경험 ①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마따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 '나'와 '남'을 분리하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 영문학 수업에서 '역할 바꾸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유도한 경험 ②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

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는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가 있다. 그런데 어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가.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코로나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치는 예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속 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골, 작은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정답의 근거·2번

두뇌 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모든 인간은 제각각 다른 존재라는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파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 보파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결국은 앞 보파리나 뒤 보파리나 속에 들어 있는 건 매한가지이다.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홍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 인간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모습까지도 저마다 다름

정답의 근거·1번

인간의 장점과 단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

정답의 근거·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의 관점으로만 '남'을 보는 데서 갈등이 빚어지는 부정적 사회상을 비판함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것, 그냥 용서해 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 '나'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릴 때 생기는 연민

정답의 근거·1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타인에 대한 연민은 완전한 이해 없이도 가능함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점을 하나 빼면 '님'이 된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여섯 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자판의 글자 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남'에서 받침을 하나 빼면 '나'가 된다. 점 하나 옮기면 '너'가 된다.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사람 사는 게 엇치나 뒤치나 마찬가지로,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 놓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함 - 장영희, 「나와 남」

정답의 근거·1번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양상은 '나'와 '남'을 대등하게 대하고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려 가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1 ⑤ 2 ④ 3 ④

나와 남_장영희

해제: 이 작품은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회적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담은 수필이다. 글쓴이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의 결점을 찾아 험뜯느라 갈등이 유발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다. 또 역할 바꾸기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영문학 수업에서의 경험과 역사사지의 태도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던 예 등을 거론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적 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적 태도의 필요성

1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양상은 '나'와 '남'을 대등하게 대하고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려 가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자아의 고유한 정체성, 즉 '남'과 다른 '나'만의 특성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일을 사회적 관계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8문단에서 글쓴이는 타인에 대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연민이 완전한 이해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에 부합한다.
- ② 7문단에서 글쓴이는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장점과 단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 ③ 1문단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점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보다 타인의 결점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한다.
- ④ 4문단에서 글쓴이는 작중 인물을 그저 '남'으로 단정해 버리는 순간 문학 공부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고 하면서, 문학 공부란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서술상의 특징

1문단과 7문단에서 그리스 신화의 한 대목에 나오는 보따리 속 결점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일반적 속성, 즉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을 보는 데만 능한 특성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념(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의 허구성을 규명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7문단에서는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뭉텅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의 관점에서만 '남'을 보는 데서 갈등이 빚어지는 부정적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든 그가 지닌 성질에 관해 비판을 하

는 다양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남을 쉽게 험뜯는 세태를 지적하고 있다.

③ 6문단에서는 '역만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두뇌 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모든 인간이 제각각 다른 존재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3~5문단에서는 글쓴이가 영문학 수업에서 시도한 '역할 바꾸기' 일화를 통해 타인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 이해의 발판을 제공하는 유용함을 지닌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 제가끔 서 있더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간, 공동체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 숲이었어

▶ 1~4행: 개별적인 존재이면서도 숲(공동체)을 이루는 나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 술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존재하는 공간

▶ 5~7행: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정서적으로 메마른 현대 사회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 낯선 그대와 만날 때

정답의 근거 3번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 숲을 이루는 나무와의 대비를 통해 파편화되어 있을 뿐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 사회의 속성을 부각함

정확한 지지도

사람

술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서로 무관심함

정확성, '숲'

▶ 8~11행: 각박한 현실에서 '숲'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보기 노트

〈보기〉는 숲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반성과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시이다.

〈보기〉는 '제가끔 서 있'으면서도 숲을 이루는 나무와의 대비를 통해, 그저 개인이 파편화되어 있을 뿐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 사회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글에서는 어떻게든 '나'와 '남'의 사이를 가리며 애쓰는 인간 사회의 부정적 속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독자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해 보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의 화자가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만나는 이들이 '숲'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통해 이 글뿐만 아니라 〈보기〉 역시 공동체적 유대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그저 받침 하나'의 차이에 불과한 '나'와 '남' 사이에 약착같이 '깊은 골을 파 놓고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 글에서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⑤ 〈보기〉의 '술한 사람들'은 정서적인 교류 없이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고독한 개인으로 그려졌을 뿐 이타적인 존재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실전

10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본문 045~046쪽

정답의 근거 1번 직설적인 언어와 재담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냄

선비 (이매를 앞세우고 나온다.) / 초랭이 이매야, 이노마야.

선비의 하인

양반의 하인

이매 (비실비실 바보스러운 걸음걸이로 초랭이 쪽으로 걸어오며) 왜 이노마야.

초랭이 (귓속말로) 아까 중하고 각시하고 춤추다가 도망갔대이.

이매 허허, 우습다, 우스워. (비실비실 선비에게 가서) 선비 어른요, 아까 중하고 각시하고 춤추다가 도망갔다 그래요.

선비 (신경질적으로) 뭣이라고. 에이 고약한지고. (담뱃대 재를 땅바닥에 탁탁 튄다.)

초랭이 (이매에게 가서 꽃신을 가지고 이매와 주고받다가 껴안으며 수작한다.)

양반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스러운 듯 부채를 집어 병거지를 때리며) 이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부네나 불러 오너라.

초랭이 (바쁜 제자리걸음으로 뛰어나가 부네를 데리고 온다.)

아름다운 여인

부네 (요사스럽게 춤을 추며 몸을 비비 꼬아 대면서 나온다.)

초랭이 (부네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냄새를 맡는다.)

부네 (초랭이를 때리려고 하지만 손이 뒤로 가다가 그만둔다.)

초랭이 (조작조작 뛰어와서) 양반요, 부네 왔니더.

경을 폭을 짧게 하여 조금 빠르게 자꾸 걷는 모양

양반 (부채질을 하다가) 어디 어디?

부네 양반 내 여기 왔잖나.

기력과 신체가 모두 편안하십니까

양반 부네야. 국추단풍에 기채후만강하시며 보동택이 감환이 들어 자동양반 문 안드리오.

국한가 띄고 당풍이 드는 가을

감기

부네 그 문안 감사하오나 감자 한 쌍은 왜 왔소?

양반 허허허, 그곳이 하도 험악하와 보호자로 왔나이다. 수목은 울창하고 양대꽃이 만발하니 들어가기만 하면 백혈을 토하고 죽어 가기에 보호자로 왔나이다.

부네 하도 감사하와 버선 한 켤레 아뢰나이다.

양반 허허, 애, 부네야. (양반, 부네 어울려 춤춘다.)

▶ 양반과 부네의 수작

선비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하여) 예끼! 고약한지고. 에헴 에헴.

양반과 부네를 질투하는 모습

부네 (양반과 춤추다가 선비의 기침 소리를 듣고 선비에게 간다.) 선비 어른 내 여기 왔잖나?

양반과 선비에게 반말을 할 - 자유로운 신분의 여성일

선비 오냐 오냐, 부네야. (부네를 안 듯이 춤춘다.)

양반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 춤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런 망할 년의 요부(妖婦)가? 어흠 어흠.

선비와 부네가 춤추는 모습

부네 양반 내 여기 있잖나.

양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오냐 오냐.

부네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추다가 선비를 본다.)

선비 (부네와 눈길이 마주치자) 아니. 저런 요망한 계집년 봤나? 에헴 에헴.

부네 (다시 선비에게 간다.)

● 지금필수 감/상/전/략

1 인물을 파악하자!

여색을 밝히는 양반과 선비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여섯째 마당

양반과 선비 마당: 양반과 선비가 부네를 두고 다투며 학식을 자랑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양반, 선비

- 여색을 밝히는 위선적인 지배층
- 허위 의식으로 가득함
- 학식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인물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

부네, 초랭이

- 서민을 대표하는 피지배 계층
- 양반과 선비의 위선과 무식함을 드러내는 인물

정답의 근거·2번

양반과 선비가 대립할 때 초랭이와 이매는 자기 상전의 흉내를 냄

양반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저놈의 선비가? 옳거나 여보게 선비, 이리 좀 오게.

저길 보면 좋은 구경이 있네. (선비에게 마을 쪽을 가리키고 나서 부네에게 간다.)

선비 (양반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없자 돌아서서 놀라며) 아니 저놈의 양반이? (양반에게 간다.) 여보게 양반, 이리 오게. 저기에서 각시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선비·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속으로는 여색을 밝히고 있음)

부네 (선비와 양반을 바라보며) 호호호, 내 때문에 저래 싸우는구나.

▶ 부네를 쟁취하려는 양반과 선비의 다툼

양반 (선비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아니? 저놈의 선비가? 나를 속여?

여보게 선비,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는가?

선비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아니, 그럼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초랭이/이매 (자기 상전의 세도 자랑을 흉내 낸다.)

양반과 선비를 동자하기 위한 행동

양반 암 낮고 말고.

선비 똥이 나아, 말해 봐.

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비 뭐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허허,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언어유희 ① - 허위의식 풍자

양반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거든.

조선 시대에 통하부의 으뜸 벼슬

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 데…….

'문하시중'보다 높고 코다는 의미나 말이 되지 않음

양반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선비 문하(門下)보다는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는 시대(侍大)가 크단 말일세.

언어유희 ② - 허구성과 무식함 풍자

정답의 근거·3번

언어유희에 의한 내용 전개
→ 지배 계층의 위선, 허위의식과 무식함을 폭로함

[A] 양반 그것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선비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반 그러면 무엇이 또 있던 말인가?

선비 첫째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유학의 주요 경전

양반 똥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언어유희 ③ - 허위의식과 무식함 폭로

선비 도대체 팔서육경은 어디 있으며 대관절 육경은 또 뭐야?

초랭이 (방정맞게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들며)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처녀 월경, 머슴의 새경.

언어유희 ④ - 엉뚱한 내용의 열거로 웃음을 자아냄

이매 그거 다 맞아.

양반 (흐뭇한 표정으로) 이것들도 아는 육경을 선비라는 자가 몰라?

초랭이의 말이 어리광임을 지적하지 못한 학식의 허구성

선비 우리 싸워야 피장파장이니 그러지 말고 부네나 불러 노세.

▶ 양반과 선비의 세도 자랑과 학식 다툼
-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1 ① 2 ④ 3 ⑤

하회 별신굿 탈놀이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별신굿을 할 때에 성황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세기 중엽부터 서민들에 의해 연희되어 온 탈놀이이다. 종교적 의미 외에도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총 여섯 개의 마당 중 지문의 내용은 마지막 여섯째 마당인 '양반과 선비 마당'이다. 색을 밝히는 양반 계층의 위선적인 모습과 가문과 벼슬, 학식을 다투지만 실제로는 무식하고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양반과 선비의 모습이 나타난다.

주제: 양반과 선비의 위선과 허위성 폭로

작품 전체 보기

첫째 마당	각시의 무동 마당: 각시 광대가 무동을 타고 구경꾼들 앞을 돌면서 걸립(乞粒, 동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패를 짜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함
둘째 마당	주지 놀이: 주지는 사자를 뜻함. 액풀이 마당(사악함을 물리치는 의식)
셋째 마당	백정 마당: 백정이 춤을 추다가 사람이 명석을 뒤집어 써서 만든 소를 죽여 우낭을 꺼내 팔
넷째 마당	할미 마당: 할미 광대가 등장하여 고달픈 인생살이를 베툼가에 얹어 부름
다섯째 마당	파계승 마당: 부네가 오줌을 누는 것을 본 중이 부네를 끼고 도망을 감
여섯째 마당	양반과 선비 마당: 양반과 선비가 부네를 두고 다투며 학식을 자랑함

1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작품은 서민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애환을 표출한 민속극으로서, 직설적인 언어와 재담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상과 서민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탈춤은 주로 서민들에 의해 향유되었으므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보다는 풍자적이며 직설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 ③ 이 글은 양반층의 허위의를 폭로하는 내용으로 양반들의 모습이 중심이며, 평민층의 고된 삶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부네는 양반과 선비의 여색 다툼을 부추김으로써 두 인물의 권위와 위엄을 간접적으로 뒤집어 엎는 인물이다.
- ⑤ 권선징악의 결말은 주로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며 이 작품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알아 두기

하회 별신굿

한국의 탈춤을 서낭제 탈놀이와 산대도감 계통의 탈놀이로 나눌 때,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서낭제 탈놀이에 속한다. 즉, 별신굿이라는 종합적인 마을굿에 포함되면서도 연극적인 독립성을 가진 놀이이다. 하회 마을은 매년 정월 보름과 4월 초파일 각각 이틀에 걸쳐 동제를 지냈다. 별신굿은 3년,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마을에 우환이 있거나 돌림병 등이 발생했을 때, 신탁(신내림)에 의해서 거행되었으며, 이때에는 탈놀이가 당제와 함께 행해졌다.

2 작품의 형상화

이 글에서 양반과 선비가 대립할 때 초랭이와 이매는 자기 상전의 세도 자랑을 흉내 내고 있는데, 이는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과 무식함을 풍자하고 있는 것일 뿐,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민속극, 즉 탈놀이를 위한 대본이므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주가 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물들의 연기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적절한 논의이다.
- ② 부네는 요염하고 음탕한 여인으로 양반과 선비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요란스러운 분장과 간드러지는 말투가 어울린다.
- ③ 양반과 선비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부각시키자는 논의는 적절하다.
- ⑤ 탈춤에서는 기본적으로 '탈'이라는 소품과 '춤'이라는 요소의 적절한 어우러짐이 필요하다.

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자신의 가문과 학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어유희의 말장난만 하고 있는 양반과 선비의 모습, 초랭이가 엉터리로 제시한 욕경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못하는 양반과 선비의 모습을 통해 상류층의 허위성과 무식함을 풍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한자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상류층의 허위의를 풍자하기 위한 것일 뿐, 관객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A]에 제시된 초랭이의 말에서 비속어를 찾기 어려우며, 초랭이의 말은 상류층의 무식함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지 저항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부네를 차지하기 위한 양반과 선비의 대립은 겉과 달리 여색을 밝히는 그들의 위선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초랭이와 이매가 양반과 선비의 무식함을 조롱하기 위해 대화에 끼여든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신분 질서의 와해를 보여 준다는 것은 비약이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 지금필수 감/상/전/략

가 건우의 노래

1 화자를 파악하자!

(직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나(건우)'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별을 성숙한 사랑을 위해 거쳐야 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봄
오—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장애물이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형상화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사랑의 장애물

물살, 바람,
푸른 은하물

건우(화자)	직녀(청자)
-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삭을 씹 - 검은 암소를 건넌 먹임	- 구름 속에서 벼들에 북을 놀림 - 비단을 짤
↓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며 이별을 인내하고 재회를 기다림	

정답의 근거·2번
물질적 풍요보다 소박한 웃음이 더 중요함

복합 01 건우의 노래 / 흥부 부부상 / 이론

건우, 직녀

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정답의 근거·1번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 사랑을 위한 이별의 긍정(역설법)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성숙한 사랑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 1연: 사랑을 위해 필요한 이별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 건우와 직녀를 만날 수 없게 하는 대상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별로 인해 서로를 더욱 그리워하게 됨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건우와 직녀 사이의 장애물이자 성숙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대상

▶ 2~3연: 성숙한 사랑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시련

정답의 근거·3번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이별의 고독이 드러남

[A]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모자람이 없이 온전한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 4연: 서로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시적 대상, 청자

건우가 있는 시련의 공간

돌아나는 풀삭을 나는 세이고…….

세월의 흐름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직녀가 있는 시련의 공간

그대는 벼들에 북을 놀리게.

▶ 5~6연: 이별을 견디는 건우와 직녀의 자세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그리움의 이미지

정답의 근거·2번 건우는 직녀와 이별한 상황임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건우와 직녀가 재회할 수 있는 시간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건우의 부분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직녀의 부분

▶ 7~8연: 재회를 위한 건우의 다짐

- 서정주, 「건우의 노래」

나 흥부 부부(夫婦)가 박 덩이를 사이하고

저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물질적 풍요 이전의 순수한 마음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물질적 빈곤함을 이겨 내는 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함

▶ 1연: 가난 속에서도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흥부 부부

『없는 땀방아 소리도
『』: 가난을 정신적으로 이겨 내는 해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많은 처지끼리

부부의 고생스러움 삶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

함께 고생스러움 삶을 살면서도 서로에게 웃어 주는 부부의 따뜻한 모습

▶ 2연: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에 대한 연민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눈물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눈물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부끄러워하는 마음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부부가 눈물을 감추고 웃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흥부 부부의 본질적 모습 - 순수함, 소박한 행복 상징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가난의 한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함

정답의 근거: 3번

부정적인 상황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남

▶ 3연: 눈물도 웃음으로 극복하는 흥부 부부

- 박재삼, 「흥부 부부상」

다 우리 현대 문학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나 삶의 양식을 담고 있는 고전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다. 그 방법은 다양했지만 주로 『등장인물이나, 소재, 장소,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재해석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서정주와 박재삼을 꼽을 수 있다.

▶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계승하려는 시도

서정주는 전통적으로 유래되는 「견우직녀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견우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견우직녀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우와 직녀가 결혼한 후에 서로에게 빠져 게으름을 피기 시작하였다. 이에 화가 난 천제(天帝)는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견우와 직녀를 떨어져 살게 하고, 일 년에 한 번 칠월 칠석날에만 같이 지내도록 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설화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별을 이별로만 보지 않고 새롭게 인식하여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견우직녀 설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함

▶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의 예 ① - 「견우의 노래」

한편, 박재삼의 「흥부 부부상」은 우리 민족에게 널리 알려진 고전 소설 「흥부전」을 차용하고 있다. 「흥부 부부」는 형 놀부에게 버림받아 박 덩이를 갈라 속을 파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 작가는 이러한 「흥부전」의 기본 줄거리를 받아들이면서도 흥부 부부가 물질적 풍요가 없어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흥부전』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함

▶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의 예 ② - 「흥부 부부상」

나 흥부 부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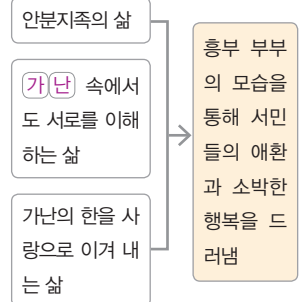
1 화자를 파악하자!

『흥부 부부』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거울 면(面)	흥부 부부의 사랑
구슬	가난한 현실과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흥부 부부가 흘리는 눈물
본(本)웃음 물살	흥부 부부의 진정한 웃음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복합

01

본문 050~052쪽

1 ④ 2 ⑤ 3 ⑤

가 견우의 노래 _ 서정주

해제: 이 작품은 「견우직녀 설화」를 차용하여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별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내적 성숙의 과정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이별과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사랑

나 흥부 부부상 _ 박재삼

해제: 이 작품은 「흥부전」을 모티브로 한 시로, 가난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행복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알려 주고 있다.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소박한 삶의 행복

다 이론

해제: 이 글은 고전 문학 작품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재해석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작가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전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고전 문학 작품의 현대적 계승

1 표현상의 특징

(가)는 ‘우리들의 ~을 위하여서는 / ~이 있어야 하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이별과 그리움이 있어야만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헤아려 보라’, ‘~이 문제리’, ‘그것이(은) 확실히 문제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가난의 한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5연에서 생략법을 사용한 것은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다.

② (나)에서는 ‘~이 문제리’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금’이나 ‘황금 버 이삭’과 같은 물질적 풍요가 흥부 부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기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의 ‘출렁이는 물살’은 사랑의 장애물로, 성숙한 사랑을 위해 견우와 직녀가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다. 이처럼 (가)는 상황에 대한 역설적 발상을 통해 성숙한 사랑이라는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흥부 부부가 ‘서로 구슬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 대한 연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웃음살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는 견우와 직녀를 떨어져 살게 하다가 칠월 칠석날에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원작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에서 화자인 견우가 직녀와 떨어져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는 「흥부 부부상」의 흥부 부부가 물질적 풍요가 없어도 마음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원작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나)의 ‘황금 버 이삭’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소재로, 시인은 ‘황금 버 이삭이 문제리’라는 시구를 통해 물질적 풍요보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원작인 「견우직녀 설화」와 동일하게 ‘견우’와 ‘직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 (나) 역시 원작인 「흥부전」과 동일하게 ‘흥부 부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④ (가)의 ‘푸른 은하물’은 견우와 직녀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동시에 두 사람이 재회하는 공간이므로 이별과 만남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박 덩이’는 흥부 부부의 가난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두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소박한 행복을 상징한다.

3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A]는 견우와 직녀의 단절된 상황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A]에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견우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별의 고독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B]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웃음을 짓는 흥부 부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가난에서 오는 한까지도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는 상대에게 아픔을 준 상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B]에는 상대의 아픔을 배려하여 눈물을 감추고 웃는 부부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② [A]에는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재회에 대한 의지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B]에는 두 사람의 이별에 대한 아픔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에는 과거의 상황이나 그것을 부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B]에는 미래의 상황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A]의 견우는 시련 속에서 사랑이 더 간절해질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별의 고독한 상황을 견디고 있으므로, 현재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B]의 흥부 부부 역시 웃음과 사랑을 통해 가난의 한을 극복하려고 하므로, 현재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복합

02

자화상 부근 / 정석가 / 이론

본문 053~054쪽

가 입에 문 파이프에서

고흐의 그림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붓대를 꽂은 자화상」 속의 모습
진종일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오후

정답의 근거·2번 고흐의 그림 속 담배 연기 그림 속의 시간

조요로운 나무 의자 위로

노오란 죽음이 내려앉은

추상적 관념(죽음)의 시각화

반 고흐의 방

창문처럼 걸려 있는 자화상 속에

정답의 근거·2번 고흐의 불안과 공포를 역설적으로 표현함

삼나무들은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모순 허용(역설법)

그대로 **하나**의 정물이 된다.

▶ 1~3연: 죽음의 이미지가 드리운 고흐의 자화상

정답의 근거·1번 시행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강조함

날 흔들지 마!

화자이기도 하고 고흐이기도 함

날 흔들지 마!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눈으로

위태로운 상황, 극단적인 상황

그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그림 속의 고흐 죽음, 이별의 이미지

또 **하나**의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고흐의 죽음

▶ 4~5연: 독주를 권하는 고흐에게서 이별을 예감하는 '나'

- 문정희, 「자화상 부근」

나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옛목판의 관복 재단하여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정답의 근거·1번 반복을 통한 상황의 강조 ①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 축첩구, 방어적 표현

▶ 본사 3: 철로 만든 옷이 허는 상황을 통해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정답의 근거·1번 반복을 통한 상황의 강조 ②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 본사 4: 무쇠로 만든 소가 철초를 먹는 상황을 통해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지금필수 감/상/전/략

가 자화상 부근

1 화자를 파악하자!

(고) (흐)의 그림을 보고 이별과 죽음, 불안과 고뇌의 정서를 떠올리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역설법	'아름다운 고뇌' → 고 갱이 떠날 것에 대한 공 포를 강조하여 드러냄
반복법, 영탄법	'날 흔들지 마! / 날 흔들 지 마!' → 화자의 혼란 스러운 마음을 강조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까) (마) (귀), 삼나무	죽음, 이별, 공포, 불 안 등을 상징하는 소 재
---------------------	-----------------------------------



고갱과의 이별, 자신의 (죽) (음)을
예감하는 고흐의 심정

나 정석가

1 화자를 파악하자!

임과의 영원한 (사) (랑)을 맹세하는 사
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역설법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일로 설정함
반어법	'유덕(有德)하신 님 여히 오와지이다.' → (임)과 절 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 (어) 적으로 표 현함
반복법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상황을 강조함
설의법	'~흐초리잇가'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 **무(無)식**로 만든 옷이 헐
- 무식으로 만든 소가 철쭉을 먹음



임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

정답의 근거·3번

자연 형태를 의식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 조요로운: 밝게 비쳐서 빛나는
- 한 쇼: 큰 소, 또는 황소
- 외오곰: 외로이, 홀로
- 난해성: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성질이나 요소

『』: 대구 표현을 통해 이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냄

구스리 바회에 **다신들**
임과 한자의 사랑 **이별의 상황**
구스리 바회에 다신들

긴히든 그즈리잇가

『』: **임과 한자의 영원한 사랑을 강조함(성의법)**

즈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 결사: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함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다 요즈음 양산(量産)되는 시들을 보면 초보자이든 이력(履歷)을 쌓은 경우든 시와 산문이 구분되지 않은 것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의도적 해체**나 반시 운동은 그 나름대로 **변혁 의지**쯤으로 볼 수 있으나 **수필의 감상을 행과 연으로 전개**했다고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 한 권으로 쓸 것을 짧은 시 한 편으로 쓴다면 전적으로 시의 생명은 함축적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함축, 그것이야말로 시의 생명이며 비법일 것이다. 시를 쓰는 기법 중에서도 특히 ‘시적 변용’은 시의 함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기법이다.

▶ 시의 함축을 이끌어 내는 기법인 시적 변용

이근모의 「노을」이라는 시에 “리어카 바퀴에 감겨 있던 노을 / 불 꺼진 방 어둠을 **값아 먹는다**”라는 시구가 있다. 이 시구를 만약 산문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리석은 헛수고에 그친다. 불이 어둠을 어떻게 값아 먹는가. 이는 **주관적 해석을 통해 실감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대상의 **자연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의해서 모양이나 형태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바꾸어 표현하는 기법을 ‘시적 변용’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지나칠 때 **난해성**이 오지만 적당할 때 수많은 사실적 설명과 논리적 사고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적 변용의 개념과 효과

복합 02

본문 053~055쪽

1 ① 2 ④ 3 ⑤

가 자화상 부근_문정희

해제: 이 작품은 고갱과의 불화를 겪은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자신의 모습을 그린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에서 영감을 받아 쓴 시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흐의 내적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림 속 다양한 사물을 토대로 이별과 죽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고흐가 느끼는 내면의 불안감과 고뇌

나 정석가(鄭石歌)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과 태평성대에 대한 기원을 노래한 6연의 분연체로 된 고려 가요이다.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사랑을 소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상황을 강조하는 동시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태평성대의 기원

작품 전체 보기

서사	태평성대를 소망함
본사 1	구운 밤에 움이 돌아 싹이 나는 상황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본사 2	옥 연꽃에 꽃이 피는 상황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본사 3	철로 만든 옷이 허는 상황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본사 4	무식으로 만든 소가 철쭉을 먹는 상황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결사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함

수록

다 이론

해제: 이 글은 요즈음 양산되는 시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함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인 시적 변용의 개념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시의 함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적 변용 기법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날 흔들지 마!’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고갱과의 이별’이나 ‘죽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오시 다 헐 어시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등과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이런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점층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것은 시어에 담긴 화자의 정서 또는 시적 상황 등이 점점 고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와 (나)에서는 이렇게 화자의 정서 또는 시적 상황 등이 점점 고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대체로 차분한 어조가 사용되었으나 4연에서 ‘날 흔들지 마!’가 반복되면서 어조의 일관성이 깨졌다. 그러나 (나)에서는 일관된 어조가 유지되고 있다.

④ (가)의 ‘날 흔들지 마!’는 자신의 운명이나 이별의 상황을 향하여 내뿜은 독백에 가깝다. 그리고 (나)에서도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고흐는 1888년 10월 프랑스 아를(Arles)에 ‘옐로 하우스’를 마련하고 고갱을 초대하여 그가 꿈꾸던 화가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나 고흐의 정신병 탓에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고, 마침내 고갱은 고흐의 곁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이별을 예감한 고흐는 절망감에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고, 정신 병원을 오가다가 1890년에 생을 마감한다. 제시된 그림은 고흐가 그린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이다.

보기 노트

〈보기〉는 고흐와 고갱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된 이유와 두 사람이 이별한 까닭,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고흐의 작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충 자료가 된다.

‘삼나무들이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는 모습은 고갱과의 이별을 예감한 고흐의 불안과 혼란, 공포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러한 모습이 ㉠으로 그려지면서 하나의 정물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고흐가 좌절을 극복하여 안정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의 ‘까마귀들’은 ㉠에서 고흐가 물고 있는 담배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흐의 절망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자화상 부근’이라는 제목을 통해 시인이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이라는 미술 작품에 영감을 얻어 (가)를 썼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가)는 고갱과의 불화를 겪은 고흐가 자신의 한쪽 귀를 자른 모습을 그린 그림인 ㉠을 보고 쓴 시이다.

③ 고갱과의 이별을 예감한 고흐는 절망감에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바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이런 그의 위태롭고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그가 내게 예비시킨 ‘또 하나의 / 먼 이별’에서 ‘독주’는 이별, 죽음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먼 이별’ 앞에 ‘또’라는 말을 덧붙인 데에서 고갱과의 이별 뒤에 오는 고흐의 죽음을 연상해 낼 수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에서 ‘즈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은 천 년을 외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는 자연 형태 그대로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의해서 홀로 지내는 자연 형태를 실제로보다 의식적으로 과장하고 확대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노오란 죽음이 내려앉은’은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한 것일 뿐, 변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 해체를 시도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② ‘창문처럼 걸려 있는 자화상’은 자화상이 걸려 있는 모습을 창문에 비유한 표현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해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③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 그대로 하나의 정물이 된다.’는 단순히 수필의 감상을 행과 연으로 전개한 표현이 아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고뇌’는 고갱이 떠날 것을 예감한 고흐의 심정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④ ‘구슬리 바회에 디신들’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의미로, ‘구슬’은 임과 화자의 사랑을 비유한다. 따라서 이 시구를 산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구슬리 바회에 디신들’을 작가의 주관에 의해서 모양이나 형태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바꾸어 표현한 시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복합

03

황혼 / 산 1번지 / 전가팔곡

● 지금 필수 감/상/전/략

가 황혼

1 화자를 파악하자!

(**실업**)으로 인해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끼는 지식인인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황혼

-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
- 암담한 현실 상황을 암시함
- 고독과 비애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심화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검푸른
황혼어두워
지는
황혼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가 드러남
- 도시 빈민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비극적 분위기와 정서를 심화함

나 산 1번지

1 화자를 파악하자!

산 1번지의 도시 빈민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바람, (돌모래)	사람들의 삶을 고달르게 하는 시련과 고통
산 일번지	산업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도시 빈민의 군락
(통곡), 울음	도시 빈민의 비애와 고통

가

정답의 근거·4번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음

직업소개에는 실업자들이 일터와 같이 출근하였다. 아모 일도 안 하면 일할 때보다는 아위어진다. ㉠ 검푸른 황혼은 언덕 아래 깔리어 오고 가로수와 절망과 같은 나의 긴 그림자는 군집(群集)의 대하(大河)에 짓밟히었다.

직업 소개
한자의 비참한 정서를 보여 주는 사물

정답의 근거·2번

화자의 우울한 감정이 황혼에 투영됨
실업의 곤궁함으로 인한 결과

정답의 근거·1번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줌

▶ 1번: 황혼을 바라보며 절망을 느낌

바보와 같이 거물어지는 하늘을 보며 나는 나의 키보다 얇은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병든 나에게도 고향은 있다. 근육이 풀릴 때 향수는 실마리처럼 풀려 나온다. 나는 젊음의 자랑과 희망을, 나의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와 함께, 못사람의 웃음과 발길에 채이고 밟히며 스미어 오는 황혼에 맡겨 버린다.

▶ 2번: 고향을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짐

정답의 근거·4번 귀가하는 군중과 갈 곳 없는 화자의 모습이 대비됨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은 시끄러이 떠들며, 부산히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나는 ㉡ 공복의 가는 눈을 떠, 희미한 노등(路燈)을 본다. 띄엄띄엄 서 있는 포도(鋪道) 위에 인쇄 없는 가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하고나.

포도도로

한자와 동일시함

가로등

한자의 심취를 직접적으로 표현함

▶ 3번: 군중 속의 고독감과 소외감

정답의 근거·4번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의 이미지가 변화함

고향이여! 황혼의 저지에서 나는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찾아 나의 마음을 전 서구(傳書鳩)와 같이 날려 보낸다. 정든 고샅,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에는 몇 나절의 때묻은 회상이 맺혀 있는가. 우거진 송림 속으로 곱게 보이는 고향이여! 병든 학이었다. 너는 날마다 아위어 가는……

고향의 이미지(암담한 현실의 고향)

▶ 4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

정답의 근거·4번 암담한 현실에 무기력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 나가고, 나는 병든 사나이. 야원 손을 들어 오랫동안 타태(倦怠)와, 무기력을 극진히 어루만졌다.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 버린다.

▶ 5번: 암담한 시대 속에서 느끼는 분노와 무기력감

- 오장환, 「황혼(黃昏)」

나

해가 지기 전에 산 일번지에는

바람이 찾아온다. 정답의 근거·1번 ○ 유사한 어구를 반복함

집집마다 지붕으로 덮은 루팡을 날리고

물막이 천, 도시 빈민의 상징

각박한 현실, 시련과 고통

문을 바른 신문지를 찢고

불행한 사람들의 얼굴에

돌모래를 끼어엿는다.

정답의 근거·2번 산 일번지에 비극적 풍경들이 펼쳐지는 시간

㉠ 해가 지면 산 일번지에는

청솔가지 타는 연기가 깔린다.

정답의 근거·5번 도시에서의 악착같은 생존 경쟁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내들은

복지,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서로 속이고 목을 조르고 마침내는

▶ 1~6행: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의 실상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데,
정거장을 향해 비탈길을 굴러가는
가난이 싫어진 아낙네의 치맛자락에
연기가 붙어 흐늘댄다.

▶ 7~14행: 각박한 삶의 현장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 일번지에는

통곡이 온다. 모두 함께
죽어 버리자고 북어알을 구해 온
아버이는 술이 취해 뉘우치고
애비 없는 애기를 뱀 처녀는
산벼랑을 찾아가 몸을 던진다.
그리하여 산 일번지에 밤이 오면
대밋벌을 거쳐 온 강바람은
뒷산에 와 부딪쳐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 되어 쏟아진다.

도시 빈민의 비애

▶ 15~24행: 도시 빈민들의 처절하고 참담한 삶

- 신경림, 「산 1번지」

다 정답의 근거·1번 4음보의 정형적 움직임을 보임
[신(晨)] 새벽

새벽이 밝아오자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정답의 근거·6번 청유형을 바탕으로 농민과의 일체감을 드러냄

일어나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스라.

밤 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는가

▶ 제6수: 새벽에 밭에 나가 밤 사이 자란 농작물을 살펴봄

[오(午)] 정오

정답의 근거·3번 농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드러남

보리밥 지어 담고 명아주로 국을 끓여

소박한 음식

② 배끓는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어라.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친히 맛봐 보내리라.

▶ 제7수: 낮에 고생하는 농민들과 소박한 음식을 나눔

[석(夕)] 저녁

정답의 근거·2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보람의 시간

③ 서산에 해 지고 풀끝에 이슬 난다.

호미를 둘러메고 달을 지고 가자스라.

이 중에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요.

▶ 제8수: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즐겁게 귀가함

- 이취일, 「전가팔곡(田家八曲)」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해가 지기 전 ~ 바람이 찾아온다.



해가 지면 ~ 연기가 깔린다.



어둠이 내리기 전 ~ 통곡이 온다.



밤이 오면 ~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 되어 쏟아진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악화
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도시 빈민
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극대화함

다 전가팔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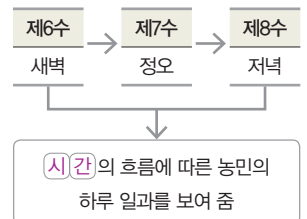
1 화자를 파악하자!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농촌 생
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가자스라	→	청유형 어미를 통해 농민과의 일체감 및 농 민의 삶에 대 한 정서적 친 밀감을 드러냄
------	---	--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 알로: 아래로
- 전서구(傳書鳩): 편지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게 훈련된 비둘기
- 고샅: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
- 타태(愴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 대밋벌: 큰 벌 아래
- 백설(百舌): 온갖 새 또는 지빠귀

복합 03

본문 056~059쪽

1 ① 2 ④ 3 ⑤ 4 ② 5 ③ 6 ①

가 황혼(黃昏)_오장환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지식인이 겪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황혼’의 이미지와 연관 지어 표현한 시이다. 황혼의 어스름에서부터 밤이 밀려오기까지의 시간적 흐름 안에서 화자가 가로수에 기대어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지식인의 무기력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젊음의 자랑과 희망’이라는 과거의 밝은 이미지와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라는 현재의 어두운 이미지의 겹침 효과가 밝음에서 어둠으로 전환하는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잘 조화를 이루어 화자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비극적 상황이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 나가고’에서 보듯,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근대화된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에 근거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실업으로 인한 지식인의 무기력과 절망감

나 산 1번지_신경림

해제: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빈민촌인 ‘산 1번지’ 사람들의 밀바닥 인생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모습, 비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연민의 어조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산 1번지 인생들의 참담한 풍경

다 전가팔곡(田家八曲)_이회일

해제: 이 작품은 사대부인 작가가 농민의 삶에 근접하면서도 올바른 정신 자세를 나타내는 노래의 본보기가 보이기 위해 지은 시조이다. 농촌의 생산 활동을 시간별로 총 8수로 구성하였는데, 첫 수는 ‘원풍’으로 한 해를 조망하는 계획과 의지의 시간으로, 둘째~다섯째 수는 갈고, 가꾸고, 거두며, 준비하는 춘하추동의 사시로, 여섯째~여덟째 수는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 새벽, 점심, 저녁으로 되어 있다.

주제: 농사일과 농촌 생활의 즐거움

작품 전체 보기

제1수	시골에 묻혀 살며 풍년을 기원함
제2수	봄을 맞아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시작함
제3수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함
제4수	가을에 추수하고 만족감을 느낌
제5수	겨울에도 쉬지 않고 내년 농사를 준비함
제6수	새벽에 밭에 나가 밤 사이 자란 농작물을 살펴봄
제7수	낮에 고생하는 농민들과 소박한 음식을 나눔
제8수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즐겁게 귀가함

수록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검푸른 황혼은 언덕 알로 깔리어 오고(1연)’, ‘거울어지는 하늘(2연)’, ‘어둠 속(3연)’, ‘어두워지는 황혼(5연)’ 등에

서 저물녘의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서 ‘해가 지면’으로, ‘어둠이 내리기 전’에서 ‘밤이 오면’으로 역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는 하루 일과를 ‘새벽 → 점심 → 저녁’의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는 산 일번지에 사는 여러 도시 빈민들의 모습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가)와 (다)에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산 일번지에는~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가)와 (다)에서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④ (다)는 시조로,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다)는 현대시로 정형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인 ‘고향’을 ‘정든 고샅’,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와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고, (나) 역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박한 도시 빈민의 삶의 현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은 군중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지만, 이에 대비되는 화자는 실업자로 하루를 허송하고서도 마땅히 돌아갈 데가 없어 절망의 그림자와 함께 방황하는 시간이다. ㉡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간직한 밀바닥 인생들의 참담하고 막막한 인생 풍경화가 연출되는 시간이다. ㉢은 농민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은 화자 자신이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동정과 연민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는 원래는 ‘먹는 것이 적어서 배가 차지 아니하다. 또는 배가 고파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지만 문맥상 ‘배고픈’으로 풀이해야 한다. 뒤에 이어지는 ‘제때에’라는 시어와 결부되어 ‘점심때가 되었으니 일하느라 배가 고프는 농민들에게 시간 맞추어 점심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도로 읽히므로, 이는 대상에 대한 동정이라기보다는 애정과 배려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 주체는 실직 상태인 화자이고, ㉡의 주체는 농민이다. ② ㉠은 실업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는 열심히 일을 해서 허기진 농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③, ④ ㉠은 한 끼 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일자리가 주어져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는 제때에 밥을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2연에서 화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고향을 생각하며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화자의 ‘젊음의 자랑과 희망’은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못사람의 웃음과 발길에 채이고 밟히’게 될 뿐이다. 이와 같이 고향도 화

자에게는 위안을 주지 못하고 화자가 처한 절망의 상황에 묻혀 버리고 만다.

- 오답 풀이** ① '실업자들이 일터와 같이 출근'하는 직업소개(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 또한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③ 시끄럽게 떠들며 귀가하는 무리들은 하루를 공허서 '공복'에 시달리며 갈 곳 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되어 고독감이 더욱 부각된다.
- ④ 화자에게 고향은 아리답고 고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곳이며, '정든 고 살',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투'와 같은 추억이 담긴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향의 모습을 아우어 가는 '병든 학'이라고 표현하여 고향 역시 점점 거만하고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 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고향과 마찬가지로 화자 역시 '병든 사나이', '아원 손'으로 표현되는 데, 이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알아 두기

1930년대 지식인의 슬픈 자화상, 룬펜

룬펜의 의미는 보통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 노숙자, 실업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빈곤한 지식인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유행처럼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이 배웠음에도 그 지식을 쓸 데가 없는 슬픈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로 쓰였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 지식인 실업자, 즉 룬펜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인조차 취업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그야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룬펜들은 많은 문학 작품들의 주요 제재로 등장하였는데, 소설에서는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유진오의 「김 강사와 T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5 작품의 형상화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내들은 / 서로 속이고 목을 조르고 마침내는 /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데'는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산동네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시위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루팡'이나 찢어진 '문을 바른 신문지' 등이 바람에 심하게 날리는 모습을 통해 도시 빈민의 참담한 생활상을 보여 줄 수 있다.
- ④ 제목이기도 한 '산 1번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번지가 아니라 도시 변두리 빈민촌을 일컫는 말이므로, 산동네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산벼랑을 찾아가 몸을 던진' 처녀가 죽었으리라는 것을 작품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6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나, 전원에 오래 있어 농사일 벼슬을 하지 않은 지식인으로서 직접 농사일을 하며 지은 시조라 사실성이 높음을 익히 알므로 본 것을 노래에 나타낸다. 비록 그 성향(聲響)의 느리고 빠름이 절주(節奏)와 격조(格調)에 다 맞지 않지만, 마을의 음탕하고 태만한 소리에 비하면 나을 것이

다. 그래서 겉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 노래하게 하고 수시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

- 성향(聲響): 소리의 울림. 또는 울려서 나는 소리
- 절주(節奏): 리듬
- 격조(格調): 문예 작품 따위에서, 격식과 운치에 어울리는 가락

보기 노트

〈보기〉는 「전가팔곡」의 작가 이휘일이 직접 밝힌 작품의 창작 동기를 제시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충 자료가 된다.

〈보기〉에서 작가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농민의 삶을 관찰만 하고 있지는 않다. '가자스라'와 같은 청유형을 통해 화자가 농민과 행동을 같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작품과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작가가 농민을 교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은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②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 노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일상의 우리말로 쉽게 쓰였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작가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백설이 소리한다'는 온갖 새들이 지저귄다는 말로 새벽에 일어나 발을 보러 가는 화자에게 직접 들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④ '가자스라'와 같은 청유형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농작물을 살펴보고자겠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농민과의 일체감 및 그들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드러난다.
- ⑤ '즐거운 뜻'은 농사일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농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복합

04

귀고 / 산양 / 견회요

● 지금필수 감/상/전/략

가 귀고

1 화자를 파악하자!

똑딱선을 타고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온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신작로	예전 고향과는 다른 낯선 대상
돌보기	아버지의 시간
현 책력	어머니의 시간
신간	화자 의 시간
그림책	유년 시절로의 회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냄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공간의 이동	선창가 에서 고향집으로 축소
시간의 회귀	현재의 시간에서 유년 시절로의 회귀



고향과의 정서적 일체감

→ **공간**의 축소에 따른 유년 시절의 회귀를 통해 고향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음

나 산양

1 화자를 파악하자!

아버지의 고단한 삶에 대해 깨닫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나'의 아버지	'나'의 자식
산 , 차령산맥, 낭림산맥, 장대한 능선	또 한 마리 산양, 초식 동물 , 한 마리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어린 시절 아버지께 대한 기억	→ 아버지의 고단한 삶에 대한 현재 의 깨달음
-------------------------	----------------------------------

가

정답의 근거·1번 고향에 돌아온 '나'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림

검정 사포를 쓰고 똑딱선을 내리면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양지 바른 뒷산 푸른 송백(松柏)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낯설은 신작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정답의 근거·3번 예전의 고향과는 다른 낯선 대상
내가 트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 있고

그 길을 찾아가던

우리 집은 **유약국**

행이불언(行而不言)하시는 **아버지**께선 어느덧

정답의 근거·2번 말씀이 없이 행동으로 보임
돌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현 책력(冊曆)처럼 애정에 낚으신 어머니 옆에서

정답의 근거·4번 세월의 흐름, 아버지의 시간
나는 끼고 온 **신간(新刊)**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정답의 근거·5번 세월의 흐름, 어머니의 시간
정답의 근거·6번 젊음 화자의 시간
정답의 근거·7번 어린 시절로 돌아감

▶ 1~10행: 고향집으로 오는 길의 풍경

▶ 11~14행: 유년 시절로의 회귀

- 유지환, 「귀고(歸故)」

나

정답의 근거·1번 화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

정답의 근거·4번 □, ○, ■: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강조함

아버지의 등 뒤에 벼랑이 **보인다**.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벼랑만 **보인**

다. 요즘엔 선연히 **보인다**. 옛날, 나는 아버지가 산인 줄 **알았다**. 차령산맥이

거나 낭림산맥인 줄 **알았다**. 장대한 능선들 모두가 아버지인 줄만 **알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었다. 푸른 이끼를 스쳐간 그 산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

에 닿는 것이라고, 수평선에 해가 뜨고 하늘도 열리는 것이라고. 그때 나는

뒷짐 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내가 밟아야 할 비탈들

을 앞장서 가시면서 당신 몸으로 끌어안아 들이고 있는 걸 **몰랐다**. **아들의**

비탈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고 계신 걸 나는 **몰랐었다**.

정답의 근거·2번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

▶ 1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

정답의 근거·5번 희생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에서 '나'로 이어지고 있음

나 이제 늙은 짐승 되어 힘겨운 벼랑에 서서 뒤돌아보니 뒷짐 지고 내 뒤를

따르는 낯익은 얼굴 하나 **보인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쫓기고 쫓겨 까마득한

벼랑으로 접어드는 내 뒤에 또 한 마리 산양이 **보인다**. 겨우겨우 벼랑 하나

발 딛고 선 내 뒤를 따르는 초식 동물 한 마리가 **보인다**.

▶ 2연: 현재 아버지로서의 '나'

- 이견청, 「산양(山羊)」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임금에 대한 충성} 빛기 ^{성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신념 강조} 여남은 ^이일이야 ^이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 제1수: 신념에 충실한 강직한 삶

내 일 ^{이이철의 청포를 관책하는 상소를 올린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어리석은 것도 모두 임금을 위한 생각에서 나온 것임} 임 위한 빛이로세
 아무가 ^{누가 아무런 모함하여도}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여 보소서. <제2수>

▶ 제2수: 결백한 마음의 하소연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할경도 경원} 빛기 올어 예는 저 시내야
^{임금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될}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늬를 모르나다. <제3수>

▶ 제3수: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정답의 근거·4번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어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와 떨어져 있어 슬픈 화자의 정서를 외기러기에 이입}

▶ 제4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아버이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이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정답의 근거·6번 효를 충과 동일시하여 임금의 은혜를 잊으면 불효라고 생각함

▶ 제5수: 연군지정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사포: '전립(戰笠)'을 숙되게 이르는 말. 모자의 일종
- 트던: 알고 지내던, 친숙한
- 외다: 그르다, 잘못되다
- 분별: 생각, 근심, 걱정
- 망녕: 망령. 늑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또는 그런 상태
- 삼겨시니: 만들었으니

다 견회요

1 화자를 파악하자!

유배지에서 임금과 어버^이이를 그리워하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시내	임금과 떨어져 있는 슬픔 이입
<u>외</u> 기 <u>러</u> 기	아버이에 대한 그리움 이 입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제1수	강직한 태도와 신념	총(忠)
제2수	<u>임</u> 금의 현명 한 판단 호소	
제3수	임금을 향한 <u>충</u> <u>성</u> <u>심</u>	+
제4수	아버이에 대한 그리움	효(孝)
제5수	충과 효의 동 일시	↓ 충=효

→ '충(忠)'과 '효(孝)'에 대한 개별 진술 뒤에 이를 통합하는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복합

04

본문 060~063쪽

1 ① 2 ③ 3 ② 4 ② 5 ⑤ 6 ⑤

가 귀고(歸故) _ 유치환

해제: 이 작품은 뚝딱선을 타고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온 화자의 설레는 심정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형상화한 시이다. 회고적이고 토속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만에 고향 풍경과 부모님을 마주하는 화자의 즐겁고 경쾌한 마음이 시상의 전개 과정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감회

나 산양(山羊) _ 이건청

해제: 이 작품은 아버지의 고단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한때는 아버지가 거대한 산맥처럼 자식인 화자의 인생의 길을 이끌며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한 마리 산양처럼 힘겨운 벼랑을 버티면서 자신을 희생하였음을 깨닫고 있다. 감정을 절제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버지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주제: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

다 견회요(遣懷謠) _ 윤선도

해제: 이 작품은 유배 생활 중 부모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말로 형상화한 5수의 연시조이다. 귀양살이의 억울함과 자신의 강직한 태도와 신념, 귀양지에서 임금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 등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반영하여 임금이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과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유배지에서의 사친과 연군의 정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의 화자는 모처럼 찾아온 고향의 낮익은 풍경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젖고 있다. 또한 어머니 곁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행위를 통해 그림책을 보던 어린 시절의 동심에 빠져들고 있다. 즉 어린 시절의 안온하고 평화로운 정서가 행복했던 기억과 함께 은은하게 펼쳐지고 있다. (나)의 화자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산맥처럼 듩직하게 보였던 아버지의 삶이 사실은 위태롭고 고단한 것이었음을,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와 삶을 돌아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다)는 부재하는 대상인 '임(임금)'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소연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의미와 역할을 성찰하고 있지만, 이를 시선의 이동에 따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 또한 시선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다)는 임금과 부모를 만나고 싶은 이상과 그럴 수 없는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만,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자연물을 통해 세태의 흐름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다)에서는 자연물인 '시내'와 '기러기'에 화자의 안타까움과 외로운 감정을 이입하고 있을 뿐이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가)에서는 '행이불언(行而不言)'이라는 시어를 통해 묵묵히 실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나)에서는 '아들의 비탈들을 모두 끌어안은 채, 까마득한 벼랑으로 쫓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상을 떠올릴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화자의 아버지가 걷던 길을 화자 자신이 걷고 있음을 깨닫는 데서 화자가 동질감을 느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의 화자가 아버지를 동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의 아버지의 경우 자식이 걸어야 할 비탈을 앞장서 걸으면서 그것을 끌어안은 행위를 통해 현실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의 아버지가 현실을 관조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④ (나)의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로서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데서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가)의 아버지의 경우 운명에 순응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아버지의 삶을 우리 민족의 삶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귀고(歸故)'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옛날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귀고(歸故)의 의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공간에서 과거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
화업을 위해 객지 생활을 하던 시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과거 공간인 고향을 찾아와 그들의 시간과 만나게 된다. 선지 ③ 이 과정에서 시인은 현실의 조건을 넘어 정서적 뿌리를 향해 공간을 좁혀 들어가며, 유년을 향해 시간을 거슬러 감으로써 선지 ④ 선지 ① 독특한 고향의 의미를 창조해 내고 있다. 선지 ⑤ 그런 점에서 공간과 시간을 거슬러 되돌리는 두 개의 축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보기 노트

〈보기〉는 '귀고'라는 제목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시상 전개 과정 속에 나타나는 시적 의미를 제시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보충 자료가 된다.

'낯설은 신작로'는 화자가 고향을 떠나 있는 사이 개발된 도로로, 변화된 고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고향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선창가 → 뒷산 → 돌다리와 집들'의 경로로 '유약국'이라는 출생의 근원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③ '돌보기'는 늙으신 아버지의 시간을, '헌 책력'은 흘러간 어머니의 시간을 비유한 것이다.
- ④ '신간'은 현재 화자의 시간으로 현실적 조건을 보여 주는 표지이다. 따라서 화자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의 조건을 건너야 한다.
- ⑤ '신간'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곁에서 '그림책인 양 보았'다는 것은 화자가 동심으로 회귀했음을 말해 준다.

4 표현상의 특징

(나)는 '보인다', '알았다', '몰랐(었)다' 등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대상(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다)는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울고 울고' 등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처지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의 <제4수>의 초장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아버지를 '산', '차령산맥', '낭림산맥', '장대한 능선' 등에 직유하여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의 <제1수>의 '그 밧고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강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만 평서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담담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 시상 전개 방식

(나)의 화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산이나 산맥, 혹은 장대한 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된 화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위태로운 벼랑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화자 자신 또한 그때의 아버지처럼 어린 '산양' 앞에서 묵묵히 벼랑을 향하여 쫓겨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즉 [A]에서 [B]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던 과거 '아버지'의 이미지가 현재 '나'의 이미지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화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아버지'이다.
- ②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제시할 뿐 그 의미를 확장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담담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뿐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
- ④ '아버지'를 '산, 차령산맥, 낭림산맥, 장대한 능선'으로, '나'의 자식을 '또 한 마리 산양, 초식 동물 한 마리'로 비유하여 든든한 아버지와 연약한 자식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과의 정신적 교감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6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고전 시가에서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는 작품의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전 시가에서는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작 배경이 화자의 처지나 심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윤선도가 30

세 되던 해, 임금에 대한 충정으로 ^{선지 ②} 권신(權臣)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淸原)으로 유배되었을 때 쓴 것이다. 멀리서 ^{선지 ③}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선지 ④} 작가의 인간적인 모습과 ^{선지 ①} 강직하고도 의연한 선비의 기상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권신(權臣): 권세를 잡은 신하. 권세 있는 신하

보기 노트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데 보충 자료가 된다.

제5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효(孝)와 임금을 섬기는 충(忠)이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군신 관계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직한 선비의 기상을 확인할 단서도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제1수>의 '슬프나 즐거오나 ~ 님을 뵈언정'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창작 배경과도 일치한다.
- ② <제2수>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임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제3수>에서는 작가의 유배지인 경원(淸原)의 흐르는 '시내'를 통해 임금과 떨어져 있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뫼', '물'은 화자와 아버지 사이의 장애물을 나타내고, '외기러기'는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이를 통해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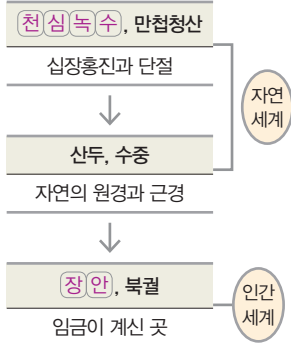
● 지금필수 감/상/전/탁

가 어부단가

1 화자를 파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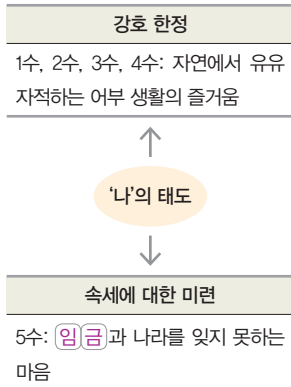
[자연]에 은거하며 소박하고 진솔한
풍류 생활을 즐기고 싶은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 화자의 시선은 처음에는 인간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에 머물렀다가, 구름이 피어오르는 원경인 '산두'에서 '백구'가 나는 근경의 '수중'으로 옮겨 옴. 그랬다가 다시 '장안'과 '북궐'이라는 인간 세계로 시선이 이동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인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복합 05 어부단가 / 조어삼매

가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 속세를 의미함

〈제1수〉

▶ 제1수: 속세를 잊고 사는 어부의 즐거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7렛는고 『: 강호의 위치가 세상과 단절됨

강호(江湖)에 월백(月白) 허거든 더욱 무심(無心) 허애라

〈제2수〉

▶ 제2수: 자연에서의 무심한 생활

청하(靑荷)에 바블 받고 녹류(綠柳)에 고기 빼여

노적화중(蘆荻花叢)에 비 미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루실고

〈제3수〉

▶ 제3수: 자연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세대에 대한 탄식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 제4수: 자연과의 물아일체의 삶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

〈제5수〉

▶ 제5수: 제세현의 출현을 바람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나 烏紗鄭去不爲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소재와 고결하고 깨끗한 존재를 의미하는 소재가 대조를 이룸

오사모(烏紗帽)를 벗어 던져 버슬자리 물러나니

주머니는 텅텅 비고 양 소매는 차가웁네.

청수(淸瘦)한 대나무 한 폭을 멋지게도 그려 내어

바람 부는 가을 강에 낚싯대나 만들어 볼까.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면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 속사(俗事)를 잊고 낚시를 하러 강으로 가는 글쓴이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꼭 엉겼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 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꼭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바깥과 리얼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찌가 움직이는 모습을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함

‘고기가 왔구나!’ /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팔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 커녕 어떤 때는 **방게**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 세상일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비유함 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鯉魚)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鮪魚)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방게, 개구리 젠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낚시**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제가 제일인 체하고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정답의 근거·2번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인이 처해 있는 현실 공간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위나라와 진나라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깊은 산속 외딴 마을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 명리를 떠난, 맑고 고상한 이야기 **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白髮魚樵江渚上
백발 어초강저상
慣看秋月春風
관간추월춘풍
一壺濁酒喜相逢
일호탁주희상봉
古今多少事
고금다소사
都付笑談中
도부소담중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이 강가에서
가을 달과 봄바람을 노상 즐기나니
막걸리 한 병 들고 반갑게 만나서
고금의 하고많은 일들을
모두 소담에나 부쳐 보세.
무수론 이야기

나 조어삼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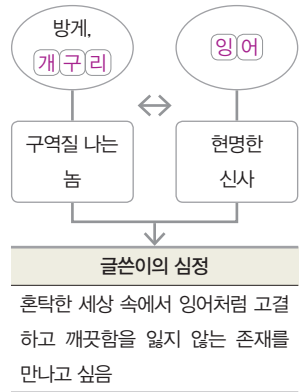
1 인물을 파악하자!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낚시**를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낙담하며, 뒤숭숭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글쓴이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시대 상황	1948년 해방 후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글쓴이의 모습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 청하(靑荷): 푸른 연잎
- 노적화중(蘆荻花叢):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 자연으로 인해 순수해진 내면
- 어주(漁舟): 낚시질할 때 쓰는 조그만 배
- 제세현(濟世賢): 나라를 구제할 현명한 선비
- 판교(板橋): 중국 청대의 시서화가인 정선(鄭善)의 호
- 한묵(翰墨): 문헌(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하자는 시기나 되었으면 또 좋으련마는 우리 눈앞에 깃들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도 못 된다.

▶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울분

하도 답답하여 시혹(時或) 틈을 내어 강상(江上)의 어별(魚鰓)로 벗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고왕금래(古往今來)에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끼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맑고 고결한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희구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복합 05

본문 064~067쪽

1 ④ 2 ⑤ 3 ⑤ 4 ③

가 어부단가(漁父短歌) _ 이현보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선인들의 운치 있는 삶의 모습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방식을 통해 자연 속에서 은일(隱逸)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 전래되던 「어부가」의 매력에 사로잡혀 노랫말의 순서와 내용을 바로잡고 다듬어 우리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낸 것으로, 후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주었다.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정

나 조어삼매(釣魚三昧) _ 김용준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이후 혼란스럽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글쓰기가 느끼는 고통과 울분을 절실하게 그린 수필로, 1948년에 발간된 「근원수필」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글쓰기의 시선은 매우 직선적이고 날카로우며 내면의 울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선비 정신의 발로로 볼 수 있는데, 「연잎과 연잎 사이」를 유유자적 노는 「깨끗」하고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고 소망함으로써 맑고 고결한 정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글쓰기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주제: 혼탁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통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 「만경파」, 「강호」, 「한운」, 「백구」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은 시름이 없는 공간, 긍정적인 공간인 반면에 「인세」, 「십장홍진」으로 대표되는 「속세」는 시름이 있는 공간, 부정적인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가)에서는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정을 노래하고 있다. (나)에서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하는 「잉어」와 그와 대조되는 구역질 나는 대상인 「방개」, 「개구리」를 통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잉어처럼 고결하고 깨끗한 존재를 만나고 싶은 글쓰기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중국 청대의 시서화가인 「판교」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벼슬길을 떠나 유유자적하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글쓰기의 심경 변화를 제시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는 화자가 자연 현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자연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은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낚시를 하러 간 글쓰기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낙담하는 모습이 드러날 뿐, 시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는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모습을, (나)에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을 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뜻대로 되지 않는 낚시와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모두 글쓴이를 번민하게 한다. 그래서 '서재'에 며칠만 틀어박혀 있길래도 하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밖으로 나가 왔었다 하는 것도 부질없고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서재'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곳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인이 처해 있는 현실 공간의 하나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일엽편주를 '만경파'에 띄워 놓고 세월 가는 줄 모른다고 했다. 따라서 '만경파'는 현재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넓은 바다임을 알려 준다.
- ② '굽어보니' 천심녹수가, '돌아보니' 만첩청산이 펼쳐져 있어 속세를 의미하는 '심장홍진'은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심장홍진'은 '구버논'과 '도라보니'와 연결되어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산머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이는 것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자연의 모습이므로, 화자가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글쓴이는 '추풍강상'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므로, 이는 유유자적하며 풍류와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어부'는 굴원(屈原)의 '어부사' 이래로 우리 고전 작품에 자주 등장해 왔다. (가)의 '어부'도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세속과 정치 현실에서 벗어난 은자(隱者)의 상징으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가어옹(假漁翁)일 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어부를 화자로 설정하여 자연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노래하는 한편, 속세에 대한 걱정과 미련 또한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자연의 삶과 즐거움을 노래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안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보기 노트

〈보기〉는 「어부단가」에 나타난 '어부'의 의미와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세속적 삶을 잊고 자연에 은거하며 소박하고 진솔한 풍류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제4수〉에서 화자는 아무런 세속의 근심 없이 자연과 물아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5수〉에서는 우국충정(憂國衷情)과 연군지정(戀君之情)을 느끼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4수〉의 시름은 세속의 근심을, 〈제5수〉의 시름은 나라일에 대한 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제1수〉에서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둔다는 것과 〈제3수〉에서 갈대꽃이 우거진 곳에 배를 매어 둔다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자 하는 가어옹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제1수〉의 '다 니졌거니'는 세속적 삶을 다 잊었다는 의미이므로 은자의 삶을 상징하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5수〉에서 '니즌 스치 이시랴'라 한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으로 애국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제2수〉에서 '무심'하다는 것은 아무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제3수〉에서 '일반청의미'는 자연의 참된 의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세속과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는 삶에 가치를 두려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④ 〈제3수〉에서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두는 것과 〈제4수〉에서 산머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 '갈매기'가 나는 모습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나)에서 글쓴이는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꼭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지고 초연하게 살고자 했으나 쉽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글쓴이는 '끼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명한 신사 잉어'는 '방계', '개구리' 등과 대조되는 존재로 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고결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방계'나 '개구리'와 달리, 자신의 울분을 털어 줄 수 있는 고결한 존재와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현명한 신사 잉어'의 출현을 갈망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을 뿐, 많은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 ② 낚시를 하러 간 글쓴이가 큰 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 것을 글쓴이의 욕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글쓴이는 잊고 지냈던 인간 본래의 순수한 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울분을 털어 줄 수 있는 고결한 존재와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아직 잉어처럼 고결하고 깨끗한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 지금 필수 감/상/전/탁

가 겨울 바다

1 화자를 파악하자!

겨울 바다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불	물
소멸, 죽음, 시련의 이미지	생성, 극복의 이미지

→ '불'과 '물'은 각각 소멸과 생성을 나타내는 시어로 대립적 이미지를 지님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 화자는 처음에 '겨울 바다'를 소멸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됨. 하지만 삶의 윤희성을 깨닫게 된 화자에게 '겨울 바다'는 깨달음의 공간이 되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화자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삶의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됨

복합 06 겨울 바다 / 삼수갑산 / 동승

가

정답의 근거·1번 겨울 바다라는 항량한 공간에서 화자는 허무와 절망을 느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허무와 절망의 공간

미지(未知)의 새

정답의 근거·2번 화자의 기대감이 투영된 대상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기대감이 투여된 버려진 상실감과 절망감

그대 생각을 했던만도

사랑의 대상

매운 해풍에

차갑고 때서운 현실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사랑의 진실

허무의

소멸, 죽음의 이미지

불

생성, 생명의 이미지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삶의 의지와 허무 사이의 갈등

▶ 1~3연: 사랑과 이상의 소멸로 인한 절망감과 허무감

나를 가르치는 건

깨달음을 주는 것

언제나

시간 ……

세월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긍정적 인식과 태도 깨달음의 공간

『남은 날은

『』: 삶의 윤희성 자각

적지만』

▶ 4~5연: 깨달음과 현실 수용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구원을 갈구하는 영혼

그런 영혼(靈魂)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적지만……』

▶ 6~7연: 화자가 새롭게 갖게 된 소망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생성과 극복의 공간

인고(忍苦)의 물이

허무, 절망, 죽음의 조국을 상징함

수심(水深) 속에 기동을 이루고 있었네.

고난의 현실

의지의 현상화

▶ 8연: 인고로 허무를 극복하고자 함

- 김남조, 「겨울 바다」

정답의 근거·1번 함경남도에 있는 오지로 험난한 곳으로 인식된 공간임. 화자는 이곳에 갇혀 절망감을 느낌
나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노
 오고가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山) 첩첩이라 아하하
험난한 곳 독자에게 되돌음 : 한식과 절망감의 표현
자조적 웃음
 ▶ 1연: 험난한 삼수갑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함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축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화자가 그리워하는 곳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
축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 2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삼수갑산이 어디노 내가 오고 내 못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정답의 근거·2번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소망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암시함
불가한 상황 설정으로 절망적 현실을 드러냄
 ▶ 3연: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가네 내 못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반복을 통해 절망감 강조
 ▶ 4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 가는 심정

정답의 근거·3번

주객전도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강조함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不歸)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가고 싶구나
삼수갑산에 갇힌 화자(절망감)
 ▶ 5연: 삼수갑산에 갇힌 화자의 절망감
 -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
 안에서 김억의 「삼수갑산에 운을 빙칠 -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이 쓴 「삼수갑산」이라는 시의 운을 따서 지음

다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훗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곁을 쓰고 바람을 걸머지고 깽매기를 들고 나온다.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목 모양의 큰 주머니 「깽매기」의 전라도 방언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중, 네가 쳤니?
 도념 그럼은요. 언제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쳤나요?
주지 스님에 대한 정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렇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닳다가 바람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정답의 근거·4번 종소리에 대한 초부의 반응은 도념의 심리 상태를 대신 드러내는 역할을 함
난데없이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전에든 절을 떠난 적이 있음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예,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나 삼수갑산

1 화자를 파악하자!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아하', '아하하'	감탄사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냄
축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함
새가 되면 떠가리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절망적 현실을 드러냄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대상과 화자의 입장을 전(對)시켜 절망감을 강조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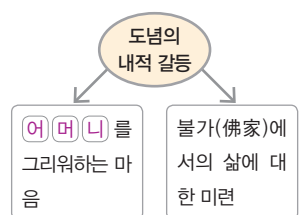
삼수갑산	'나'
화자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주체적 대상	삼수갑산에 갇힌 채 탄식만 하는 피동적 존재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함	

다 동승

1 인물을 파악하자!

도념	초부
동승.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절을 떠나는 의지적 인물	나무꾼. 도념의 마음을 이해 해하는, 인정 많고 따뜻한 인물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열린 결말 구조의 이해

-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
-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눈 내리는 겨울과 **비탈길**은 어머니를 찾아 속세로 떠나는 도념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함

정답의 근거·4번

앞으로 도념이 걸어가야 할 험난한 삶의 여정을 상징함

정답의 근거·4번

주지 스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함

정답의 근거·1번

산문 밖 속세의 공간은 도념이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임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정답의 근거·4번』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깊은 그리움이 드러남 - 절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고 하니깐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든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펑펑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 초부와 헤어지는 도념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찾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구 등걸 구멍에다 꽂든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적.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복합 06

본문 068~071쪽

1 ① 2 ④ 3 ⑤ 4 ②

가 겨울 바다 _ 김남조

해제: 이 작품은 겨울 바다에서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꼈다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시간이 주는 삶의 교훈을 긍정하고 겨울 바다를 깨달음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좌절과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숙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의지

나 삼수갑산(三水甲山)-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 _ 김소월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스승인 김억의 「삼수갑산」이라는 시의 운을 따서 지은 답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삼수갑산이 자신을 가두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현실적 제약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을 삼수갑산에 간혀 있는 것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이 시에서 삼수갑산은 화자를 가두는 한스러운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제: 절망적 삶에 대한 탄식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 동승 _ 함세덕

해제: 이 작품은 1939년도에 발표된 함세덕의 단막극 대본의 일부이다. 작가는 학창 시절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본 사미승에게서 얻은 환상을 작품화하였다고 한다. 이 희곡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인간적 감정과,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려는 불가에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승 ‘도념’의 모습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다. 자신의 생모에 대한 환상과 그리움을 품은 ‘도념’, 이런 ‘도념’을 동정하고 자신의 수양아들로 삼으려는 ‘미망인’, 그리고 ‘도념’의 하산을 막는 ‘주지 스님’과 이런 도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측은하게 여기는 ‘초부’ 등 등장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제: 세속적 인연과 불교적 삶 사이의 갈등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도념은 자기를 절에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기다림
전개	절에 온 미망인을 통해 도념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고, 미망인은 도념을 입양하고자 함
절정	도념의 입양 문제로 미망인과 주지 스님 간에 갈등이 생김
하강	도념이 어머니의 목도리를 만들려고 숨겨 둔 토기 가족이 초부의 아들에 의해 폭로되면서 도념의 입양이 좌절됨
대단원	도념이 속세의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감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는 '겨울 바다'가, (나)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화자를 가둔 '삼수갑산'이, (다)에서는 도념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산문 밖'이 화자와 인물의 정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가 지닌 본연적 고통을 다루고 있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가)에서는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낀 화자가 인고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도념이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속세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겨울 바다에서 느끼는 허무감, (나)의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절망감, (다)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 등은 절대적 고통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절대적 고통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인간적인 감정과 관련한 세속적 가치와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불가의 삶에 정진하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는 이러한 가치의 대립이 등장하지 않는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나)의 화자는 '새'가 될 수 있다면 고향으로 날아갈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화자는 '새'가 될 수 없으므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의 '새'는 화자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자의 기대감이 투영된 대상이다. 겨울 바다를 보고 절망에 빠진 화자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긍정적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시상의 흐름상 화자에게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존재는 4연에 제시된 '시간'이다.

③, ⑤ (나)의 '새'는 화자가 상상 속에서 가정한 대상으로, 화자가 부러워하는 존재일 뿐 화자의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볼 수 없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주체는 세상을 보는 위치에 서 있는 존재로, 시에서 주체는 화자 혹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정서에 맞도록 해석하여 시를 창조한다. 이와 달리 작품의 소재가 되는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은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화자나 시인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객체가 되어 그것에 맞도록 표현된다. 그런데, 시에서 주체와 객체의 역할이 서로 바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주객전도의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

보기 노트

〈보기〉는 시에서 사용되는 주객전도의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주객전도의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 그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삼수갑산이 어디뇨'라고 묻는 것도 화자이며, '내가 오고 내 못 가네'라고 답하는 것도 화자 자신이므로 이 부분은 주객전도의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시의 표면에 노출된 화자인 '나'가 주체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탄식과 절망감을 '아하하'라는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아하하'라는 웃음은 자조적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촉도지난(蜀道之難)'은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객체인 '삼수갑산'에 대해 '촉도지난'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삼수갑산'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객체인 '삼수갑산'이 주체인 '나'를 가둔다고 하였으므로, 화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도념이 어머니와 만나는 꿈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도념의 간절한 소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지, 도념의 절망적 미래를 방어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유난히 슬픈 종소리라는 초부의 말을 통해 절을 떠날 결심을 한 도념의 심리적 정황을 드러내 주고 있다.

③ 도념이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모아 둔 잣의 일부를 주지 스님을 위해 남긴 것은 자신을 키워 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도념은 동리(세속적 인연이 있는 곳)와 산문 안(불교적 속명이 있는 곳) 사이에서 한숨을 쉬며 잠시 고요 속에 머문다. 이 부분에서 도념이 느끼는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⑤ 도념은 초부와 헤어진 후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리를 향해 떠나지만, 그 길은 비탈길이다. 비탈길은 도념이 속세에서 살아가야 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복합 07 날개의 집 /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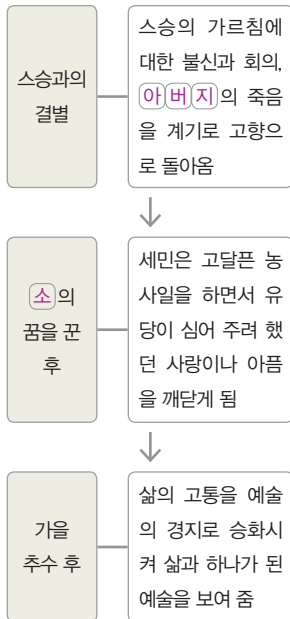
● 지금 필수 감/상/전/략

가 날개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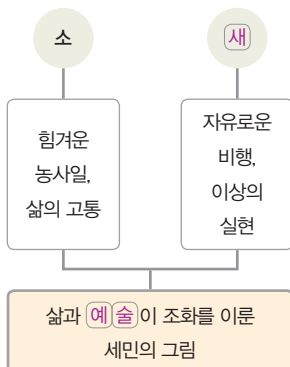
1 인물을 파악하자!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일에 전념하다 소의 고된 노역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예술가의 길로 가게 되는 세민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가 [앞부분 줄거리] 그림 공부에 대해 조금함을 보이는 세민과 달리 스승 유당은 손 공부가 급한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 사람 공부, 세상 공부가 더 소중한 것이라며 허드렛일을 비롯한 흙일과 끼니를 챙기는 일만 시킨다. 스승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끼게 될 즈음, 세민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는다. 세민은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대신 고된 농사일을 다시 하게 된다. **정답의 근거·2번 세민이 유당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

하룻밤엔 모처럼 괴상한 꿈을 꿔다. 그가 소가 된 꿈이었다. 뒷골 논 한 마지기 에 늦은 모를 내느라 논갈이에 못김질에 어머니와 온종일 흙탕물을 쓰고 돌아와 뺏속까지 지치고 풀어진 몸뚱이를 무겁게 내던져 누운 날 밤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 굴레를 쓰고 멍에를 진 쇠짐승 형상으로 끄꽂 무논갈이 쟁기를 끌고 있었다. 소와 자신을 동일시함 - 세민이 느끼는 생활의 멍에 꿈이 괴어 있는 농을 가는 일 코뚜레는 쓰리고 멍에 자국은 아린데, 웬일로 쟁기까지 한 발자국도 끌려 나아가 주질 않았다. 혈떡혈떡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간힘만 써대다가 어느 순간 쟁기와 함께 다리가 풀썩 내려앉으며 간신히 잠을 껴다.

일종의 가위눌림 꿈이었다. 『어렸을 적 이미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괴로운 소의 형상, 그리고 그 무렵 ㉡ 세민 자신에게서도 완연하게 느껴지곤 하던 쇠짐승의 형상』이 이번에는 직접 그 자신의 모습을 화신해 보인 것이었다. 『』: 농사꾼의 숙명이 아버지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의식이 반영됨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의 괴로움 때문이었다. 세민은 잠을 깨고 일어나서도 그 꿈속에서의 괴로움이 가시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일에 쫓기고 열중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지만, 잠자리엔 들면서도 그저 나른하기만 하던 몸뚱이 곳곳에서 꿈속보다 더한 아픔들이 묵직하게 번져났다. 얼굴은 쓰리고 더수기는 뺏뺏하고, 어깻죽지 엉치받이께 무릎 종아리들은 쭈시고 아리고, 사대육신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뒹뒹』의 옛말 그들을 말리고 드는 따가운 햇볕과 지친 소처럼 버거운 지게질과 잦은 허리 힘 일들이 그의 몸 속 곳곳에 심어 놓은 노역의 자국들이었다. 그 육신의 아픔이 물것들이 떠메어 가도 모를 만큼 피곤한 잠 속을 빌려 그를 쇠짐승으로 화신시켜 놓은 것이었다.

▶ 자신이 소가 되는 가위눌림은 꿈을 꾸다 잠에서 깬 세민 세민이 차츰 다시 그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그 소의 꿈과 그 쇠짐승의 화신을 통해 확인한 생생한 육신의 아픔 때문이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것은 일테면 유당이 그 땅이나 흙이나 사는 일들에 대한 참 사랑을 배우는 길이라 뒤늦게 일깨워 온 그 아픔이란 것의 본색일시 분명했다.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배우자고 긴 세월 텃밭 산밭 흙손 일을 익히고도 세민에게 끝내 별 가망이 없었던 그 아픔, 그것은 필시 그림이나 삶의 방편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배울 수도 없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세민이 그 아픔도 사랑도 끝내 다 포기하고 유당을 떠났을 지금, 그림이나 삶의 법칙을 다 포기하고 그의 절필한 생존의 마당으로 돌아와 허덕허덕 지친 지금, 그것이 성큼 증상을 깃들여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등지를 틀기 시작한 그 증상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져 여름과 가을까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혀왔다.

하고 보면 『그 흠이나 삶에 대한 사랑 역시 어떤 법식이나 방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 배움에서가 아니라 살아감에서 움이 돋고 자라가는 것임이 분명했다. 아픔을 배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앓는 것, 그 아픔을 숙명의 삶 속에서 앓아 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자신의 온 몸뚱이로 그 아픔을 참고 앓아 나감이 사랑이었다.』

방법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자신은 그런 각성과 몰입 속에 정작으로 그걸 얼마나 품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유당이 오랜 세월 그의 그림을 위한 큰 삶의 법식으로 그에게 심어 주려 한 아픔이나 사랑도 필경엔 그런 아픔, 그런 사랑이었음이 분명했다.

다름 아니라 『세민은 그 봄과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까지의 줄기찬 노역과 어느새 깊은 지병으로 동지를 틀고 들어앉아 버린 몸속의 아픔을 앓아 가며 문득문득 그 그림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법식을 넘어서 아픔의 각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림에 대한 새 욕심이나 자신감이 솟아서도 아니었다. 그 아픔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안아 참고 앓으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한 시절 그 하늘과 들판과 새의 비상을 그렸을 때처럼 그 절박스럽고 막막한 아픔과 일상의 삶들을 나뉘대로 잘 참아 이겨 나갈 길을 다시 소망하게 된 때문이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달리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텅 빈 들녘만 남았을 때, 세민은 불현듯 다시 붓을 찾아 들었다.』 새털구름이 드문드문 비껴 깔린 철 늦은 가을 하늘을 실에 매인 연처럼 무한정 떠돌고 있던 한가로운 새집승, ㉠한 마리 솔개 녀의 드높은 비행이 그에게 문득 그 아득한 신열기를 느끼게 해 오던 날 저녁, 밤새도록 그 괴로운 신열기에 시달리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였다. 그는 그 아침까지도 가시지 않은 무거운 신열기 속에 신음을 토하듯 온종일 그림에 매달렸다. 빈 들녘을 그리고 새털구름 드높은 하늘을 그리고 ㉡하염없이 한가로운 새의 비행을 그렸다. 오래 땀겨쳐 둔 일이라 물론 그림이 쉽지 않았다. 손이나 손목 놀림이 무디어져 산에서 익혔던 먹붓질마저도 마음을 잘 따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약한 신열기가 견혀가실 때까지 몇 번씩이고 그림을 다시 고쳐 그렸다. 나중에는 그 들녘과 하늘과 새뿐만 아니라 화면 아래쪽에 한 마리 소의 형상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몸속에 괴로운 신열기를 참으며, 그로 하여 그 드높이 한가로운 새의 비행을 더욱 아프게 꿈꾸고 누워 있는 소, 그 꿈마저 괴롭게 앓고 있는 소였다.

하고 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그림이 달라져 갔다. 그 ㉢신열기를 앓는 소로 하여 새의 비행은 더욱 드높고 유유했다. 눈부신 자유, 황홀한 꿈이었다. 그러나 화면 전체로 보면 그것까지도 그 소의 눈길로 하여 오히려 빠가 시린 자유, 황홀한 절망이 되고 있었다. 붓질이 아직 무디고 더 다듬어 그려 나가야 할 곳이 많았지만, 세

정답의 근거·1번

서술자가 세민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함

정답의 근거·3번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상생을 이루려는 세민의 간절한 소망

민은 이미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들판과 하늘과 새들이 그에게로 조금씩 다가들어 오고 있는 느낌 속에 한겨울 내내 그 그림 일에 매달렸다. 『여전히 그를 찌뿌드드하게 괴롭혀 대는 신열기를 견디며 그 들판과 하늘과 새의 꿈들을 그』 『』: 삶과 예술이 하나를 이룬 진정한 예술의 성과
의 아픈 삶과 괴로운 황소의 그림으로 지그시 껴안아 잤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루는 그림 탐이 썩 심하다는 이웃 회진 동네 초등학교의 교감이라는 사람이 어디선지 그 세민의 소식을 듣고 그림을 보러 왔다가 그 술개와 황소의 사경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하고 잤다.

『“어허, 그 쇠팔자 한번 편안하구나. 들판에 누운 소가 하늘을 나는 새와 더불어』 『』: 삶과 예술이 하나를 이룬 경지
 하염없는 꿈에 젖으니 그 느긋한 천지간의 조화가 낙원인 듯 평화롭고…….”』

그는 바로 그것을 두고 세민이 옛날부터 그리기를 소망했던 그림을 말한 것이었다. 그림의 수준이나 격조, 그의 말투 따위는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민이 이미 단념하고 있다시피 한 옛 소망 속의 그림 이야기였다. - 이청준, 『날개의 집』

▶ 삶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예술을 완성하는 세민

나 예술가 소설에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예술관이 담겨 있다. 예술가 소설은 ‘사실적-객관적 예술가 소설’로 예술가 소설의 의미 예술가가 현실 세계를 미적 기획을 통해 새롭게 변형시키는 방식과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예술가 ‘사실적-객관적 예술가 소설’의 의미로서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 세계로부터 이탈하여 이상적인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방식’인 ‘낭만적 예술가 소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두 경향을 소설가 이청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등단 초기에는 전반기 이청준의 작품 세계 탐미적 성격이 강하거나 예술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삶과 예술이 합일 지향으로 후반기 이청준의 작품 세계 현실에서 예술적 완성을 추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예술가 소설을 발표한다.

예술가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작품 속의 주 예술가 소설의 성격인공 대부분이 어린 시절 스승에게 맡겨져 어려움을 겪은 후, 성인이 되어 예술적 『』: 예술가 소설에서 성장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이유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유사함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숙련의 시간 동안 대립과 반발, 그리고 극복이라는 순환을 겪는데 여기에는 자기반성의 긴 여정을 거쳐 또 하나의 세계, 즉 예술가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노력이 있다. 따라서 주인공들의 예술적 완성은 어느 한 시점에 있지 않고 전 생애를 관통하게 마련이며 가시적인 완성만이 아닌, 명백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성장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예술가 소설의 성격

『날개의 집』을 통해 본 이청준의 예술관은 세민이 아픔을 앓아 냄으로써 그림을 완성하는 예술과 삶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림으로 나타나는 예술은 중생의 아픔을 앓는 것으로 예술의 형식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내적으로 앓아 내는 것이다. 『주인공 세민은 유당 선생의 질책과 꾸지람, 혼란에 빠진 자신에게 말 한 마디 해』 『』: 세민은 긴 여정을 거쳐 예술가의 세계로 진입함
 주지 않았던 무심함까지도 자기반성을 통해 용서하면서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알게 된다.』 세민이 예술 행위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자유와 초월성은 이청준 소설에 이청준 소설에서 그려지는 예술의 본질서 그려지는 예술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 『날개의 집』을 통해 드러난 이청준 소설의 예술의 본질

1 ⑤ 2 ① 3 ④

가 날개의 집_이청준

해제: 이 작품은 남도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한 소년이 그림의 세계에 투신하여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일구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전반부는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불구가 된, 농사꾼의 아들이자 주인공인 세민이 그림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성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당숙인 유당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하면서 예술혼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삶과 예술이 한 뿌리임을 자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진정한 예술의 완성을 위한 삶과 예술의 조화 추구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세민은 어릴 적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해방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였으나, 팽나무에서 떨어져 불구가 됨
전개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된 세민은 산속에 살고 있는 당숙인 먹물 그림 화가 유당에게 맡겨져 호된 그림 수업을 받음
위기	스승에 대한 갈등과 불만 속에서 힘겹게 그림 공부를 하던 세민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고향에 옴
절정	농사일을 시작한 세민은 스승 유당이 가르친 그림의 참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삶과 하나가 된 그림을 그리게 됨
결말	삶의 아픔과 앓음을 내면화한 자신의 그림에서 낙원의 평화를 보았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세민은 그림 일에 대해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됨

나 이론

해제: 이 글은 예술가 소설의 의미 및 종류, 성장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예술가 소설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청준의 작품 세계와 함께 「날개의 집」을 통해 드러난 이청준 소설의 예술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예술가 소설의 이해

1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가 주인공인 세민의 시각에서 주변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내면세계를 고백하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민의 내면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소설은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서술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이 소설은 일종의 성장 소설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 세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의 주체는 세민으로, 장면에 따라 서술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④ 스승 유당이 가르친 그림의 참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삶과 하나가 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세민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세민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세민이 스승 유당을 떠난 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고,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지 예술로서는 자아실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나)를 보면 주인공은 자기반성의 긴 여정을 거쳐 또 하나의 세기인 예술가로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하였다. (가)에서 세민은 자신이 소가 되는 꿈을 꾸 후 다시 그림을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노역 속에서도 문득 그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즉,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내면화하면서 세민은 그림을 그리는 일을 소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깊은 지병'과 '몸속의 아픔'은 예술가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세민이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것은 삶과 예술을 분리해서 인식했던 생각을 깨고 그것이 통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붓을 들고 온종일 그림에 매달린 것은 삶과 예술의 이원성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세민이 '이전과는 완전히 그림이 달라져 갔다.'고 느끼는 것은 고된 농사일을 한 후 삶과 예술이 한 뿌리라는 스승 유당의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즉 예술의 형식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내적으로 아픔을 앓아 냈기 때문에 스승 유당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그림을 다시 그렸기 때문에 세민은 이전과는 그림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⑤ (나)에서 세민은 예술 행위의 과정을 통해 자유와 초월성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민이 '그의 아픈 삶과 괴로운 황소의 그림'으로 하늘과 새의 꿈들을 '껴안아 갔다'는 것은 예술 행위의 과정에서 얻게 된 자유와 초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세민은 한곳에 정착하여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사꾼이므로 평생을 떠도는 예술가라고 보기 어렵다. ③에서 표현하는 새의 비행은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상승을 이루려는 세민의 간절한 소망을 표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세민의 꿈에 나타난 소의 형상은 아버지 죽음 이후 나타난다. 세민이 벗어나고자 했던 농사꾼의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②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보았던 소의 형상은 세민이 벗어나고자 했던 고된 농사꾼의 삶을 의미한다. 그러한 소의 형상이 고향에 돌아와 생존의 마당에서 지내고 있는 세민에게 뚜렷이 느껴진다는 것은, 고된 농사의 굴레를 씌우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세민도 괴로운 소의 형상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⑤ '소'는 고된 삶의 아픔으로 인한 세민의 내면적 형상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해 '새'는 삶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세민의 소망이 반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세민은 솔개의 자유로운 비행과 이를 괴롭게 바라보는 황소를 그림 속에 담아냄으로써 자신의 삶의 고통과 자유에 대한 소망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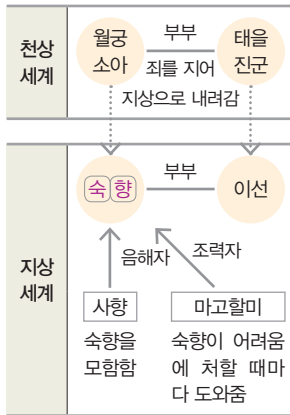
복합

08 속향전 / 이론

● 지금 필수 감/상/전/락

가 속향전

1 인물을 파악하자!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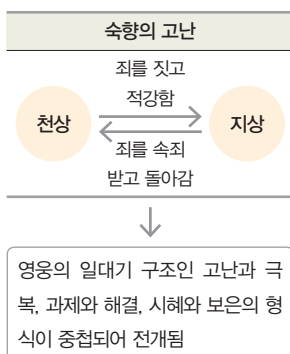
지상 세계로 내려온 숙향은 부모를 잃은 후 **장 승상** 댁에서 지내지만, **사향**의 모함으로 누명을 쓴 후 물에 빠져 자결하려고 함

숙향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용녀는 숙향을 구해 주고, 숙향 아버지의 은혜를 갚음

숙향은 선녀들에게 천상 세계와 앞으로 일어날 액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숙향은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난 자신을 친자처럼 키워 준 **마고** 할미에게 고마움을 느낌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가

정답의 근거 2번 용녀가 속향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함

“전에 사해용왕(四海龍王)이 우리 수궁에 와서 잔치할 때에 제가 사랑하는 시녀가 옥그릇을 깨었으나 만일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고하지 못하였더니, 마침내 그것이 발각되어서 부왕(父王)이 매우 놀라서 저를 반하물로 내쫓았었는데, 마침 어망에 쌓여서 어부에게 잡혔던 일이 있사옵니다. 천행으로 김 상서를 만나서 구함을 얻고 그 은혜를 갚을까 하였으나 수부(水府)와 인간이 다른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 이제 부왕이 옥황상제께 조회(朝會)하시고, 옥황상제의 말씀을 듣사오니, 『월궁 소아(月宮小我)가 천상(天上)의 죄를 얻고 인간 김 상서의 딸이 되어 반야산의 도적에게 죽을 액을 겪고, 화재도 만나고, 이후 낙양 옥중에서 사형을 지낸 다음에야 귀하게 되실 것인데, 그 월궁 소아가 죽지 않게 하라고 물신령에게 분부하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김 상서의 은혜를 갚고자 그 따님인 월궁 소아를 구하고자 자원해 왔사옵니다. 이제 선녀들과 함께 안전한 배에 계시게 되었으니 저는 안심하고 가옵니다.”

▶ 자신이 오게 된 이유를 밝히는 용녀

하고 숙향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숙향은 구해 주고 가려는 용녀에게 묻기를,

“당신은 물 위를 마치 평지같이 다니니 누구신지요?”

“저는 동해 용왕의 셋째 딸로서 이 표진강 용왕의 아내이온데, 예전에 당신의 부친께서 저를 구해 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왔다가 가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 남의 집의 시녀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해서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더니, 이렇게 구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향의 모함으로 누명을 쓴 숙향을 물에 빠져 자결하려고 함

그러자 용궁의 여인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인간의 화식(火食)을 먹어서 우리를 잘 모르시는군요.”

불에 익힌 음식

하고, 옆에 찻던 호로병을 기울여서 차를 따라서 권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이 차를 마시게 되면 아시게 되오리다.”

숙향이 그 차를 받아서 마시니 정신이 상쾌해져 천상의 옛 기억이 역력해져서 자기가 분명히 월궁 소아로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다가, 『사랑하는 태을 진군(太乙眞君)과 글을 지어 창화(唱和)하고, 월영단(月靈丹)을 훔쳐서 태을 진군에게 준 죄로 인간 세계로 귀양갔던 기억이 역력하더라. 그리고 연엽주를 저어서 자기를 구하려고 달려온 선녀 같은 두 소녀는 월궁에서 자기가 부리던 시녀인 줄도 알게 되매, 서로 붙들고 대성통곡하여 마지않더라. 소녀들은 숙향을 위로하였으나, 숙향은 그 전의 하늘에서 시녀로 부리던 옛날 소녀들을 선녀로 대접하고 공손한 말로,

▶ 용녀가 준 차를 마시고 천상 세계의 기억을 찾게 되는 숙향

“우리 부모는 봉래산의 선관 선녀로서 옥황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딸을 잃고서 간장을 녹이는 고통으로 천상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심이니, 딸된 나로서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까. 장 승상 집에는 십 년간의 연분이 있으나, 더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는 고아가 된 숙향을 장 승상 부부가 돌봐 줌

있지 못하고 쫓겨 나왔습니다.”

“그 집의 사향이란 계집종은 당신을 모해하여 누명을 씌운 죄로, 항아께서 옥황상제께 고하여 이미 벼락을 쳐서 죽였으므로, 당신의 억울한 누명은 장 승상 부부도 잘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뒤를 찾아 강가에까지 와서 찾다가 그냥 돌아갔으니, 이제 당신은 액운을 세 번 지낸 셈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의 액운이 남아 있으니 조심하소서.”

“아직도 무슨 무슨 액이 있다는 말씀이요?” / 숙향은 깜짝 놀라 묻더라.

“노전(盧田)에 가서 화재를 보시고, 낙양 옥중에서 부친께서 죽을 액을 겪으시고, 그 뒤에 마침내 태을 진군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아아, 이미 지낸 액도 천지 망극한데, 앞으로도 두 번이나 액이 있다 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장 승상 부인이 나를 다시 생각하시리니 다시 그 댁으로 가서 액을 면할까 하오.” / “액운은 이미 하늘이 정하신 바니, 장 승상 집으로 가셔도 면하진 못하리다. 태을을 만나지 못하면 승상 부인의 힘으로는 부모님 만나기가 아득하외다. 그러나 태율이 계신 곳이 삼천여 리나 되는 먼 길이외다.”

“태율은 누구이며, 이승의 인간의 성명은 무어라 하는지요?”

“항아님 말씀을 듣사오니, 태율이 낙양 북촌리의 위공(偉功)의 자제가 되어 일생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하옵니다.” / 숙향은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월궁에서 서로 같은 죄를 짓고서, 그는 어찌 부귀가 극진하고, 나는 어찌 이토록 고생을 겪어야 하는고. 더구나 그 태을 있는 곳이 여기서 삼천 리라 하니, 그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하며 그리운 부모를 언제나 만나뵈을까?”

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니라. 그러자 선녀가 위로하여 말하되,

“그것은 근심 마시오. 육로로 가면 일 년을 가도 못가지만, 이 연엽주를 타시면 순식간에 득달할 것이오니, 또 천태산 마고선녀(麻姑仙女)가 당신을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와서 기다린 지 오래매, 의탁할 곳이 자연 있으니 염려 마시오.”

하고, 배를 순풍에 놓으니 빠르기가 살과 같더라. 이윽고 어떤 곳에 배가 머무르고 선녀들이 숙향에게, / “뱃길은 다 왔으니, 여기 내려 저쪽 길로 가시오.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동정굴(洞庭窟) 같은 과실을 주면서 시장할 때에 먹으면 요기가 된다고 말하며 이별을 슬퍼하니라. 숙향이 배에서 내려 보니, 선녀들은 배와 함께 온데간데없이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없었으니, 숙향은 신기하게 느끼고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선녀들이 가리킨 길을 향하여 걷더라. 이윽고 배가 고파서 과실을 먹으니 배는 부르나 배 위에서 기억되던 천상의 이력은 아득히 잊혀지고 인간으로서 고생한 일만 회상되니, 숙향은 스스로 생각하여 ‘내 몸이 이만큼 장성한 여자라, 새옷을 입고 큰 길로 가다가는 욕을 볼지 모르겠다.’ 하고, ‘춘가에 들려서 고운 비단옷을

정답의 근거 1번

숙향을 포함한 계집종 사향을 옥황상제가 벼락을 쳐서 죽임

선녀들이 말해 준 앞으로 숙향에게 남은 두 번의 액운의 내용

인간 세계에서 이선의 삶

▶ 숙향에게 앞으로 남은 액운과 태을(이선)에 대해 말해 주는 선녀

「」: 천상 세계에서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지었으나 인간 세계에서 자신과 달리 부귀를 누린 태을의 삶에 불만을 토로하는 숙향

현웃과 바꾸어 입고, 얼굴에는 재와 흙을 바르고, 한 눈이 멀고 한 다리 저는 병신
『J』: 위험한 일을 겪을까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변장을 하는 숙향
거지 시늉으로 길을 걸어가더라.』〈중략〉

▶ 선녀의 도움으로 태음이 있는 곳에 도착한 숙향

외출했던 마고할미가 돌아와서 아주 고와진 숙향을 보고 펍 기뻐하며 말하되,
“어여쁜 내 딸아. 전생에 무슨 죄로 광한전을 이별하고 인간에 내려와서 것처럼
고생을 겪느냐?”

“할머니가 나를 친자식처럼 여기시니, 어찌 숨길 수 있습니까. 난중에 부모를 잃
고 의탁할 데가 없어서 유리하옵더니, 사슴이 엮어다가 장 승상 집 뒷동산에 두
고 가오매, 그 덕이 무자하여 나를 친딸 같이 길러 주시더니 계집종 사향이란 애
가 나를 모해하여 승상 내외께 참소(讒訴)되어 내쫓기고, 그 누명을 씻지 못하여
표진강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삽더니, 그때 연꽃 놀이하던 소녀들의 구함을 받
고, 처녀의 단행이 두려워서 거짓 병신 꼴을 하고 정처 없이 가다가 화재를 만났
으나 요행히 화덕진군의 구원을 받았으며, 그 직후에 할머니를 만나서 나를 친
딸같이 사랑하여 주시니, 나도 친어머니처럼 아웁니다.”

불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령

노파가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숙향에게 절하고, 남자의 마음이 진정 그런가
하고 그 후로 더욱 사랑하니라. 숙향이 숙향의 아픔을 공감하고 애도하는 마고할미
얼굴 단장을 다시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수
를 놓으니, 숙향은 본디 총명하여 배우지 않아도 매사에 모를 것이 없어서 수만 놓
아서 팔아도 생계가 족하였으므로 노파가 더욱 소중히 여기니라.

▶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 준 마고할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숙향
- 작자 미상, 「숙향전(淑香傳)」

나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계에서 적강한 주인공이 지상계에서 시련을 겪지만 이
를 극복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많다. 「숙향전」도 천상계 월궁 소아가
득죄하여 지상계에 적강하고 김전 부부의 딸 숙향으로 태어나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난을 겪는 ‘여성 수난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숙향전」에서 특징
적인 것은 『숙향의 고난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서 과거의 일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숙향이 갖고 있는 고난의 기
억은 마고할미, 배우자 이선, 아버지 김전과 차례로 나누어 가지는 기억의 분유(分
有)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서 기억은 홀로 버려졌다는 죽음의 기억에서 혼자
가 아니라 자신을 돌봐 주는 많은 생명들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이들 생명체를 살
리는 데까지 이르는 생명의 기억으로 재구성된다.

▶ 주인공 숙향의 고난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숙향전」

이 과정에서 숙향은 마고할미와 기억을 분유함으로써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고
난의 기억을 갖고 있던 숙향은 마고할미를 만나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등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하지 못
한다. 그러나 마고할미와 신뢰가 쌓여 안정감을 얻게 된 숙향은 자신의 고난을 고
통스럽게 기억하며 이야기함으로써 마고할미와 기억을 분유한다. 마고할미는 치
유의 동반자로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애도해 줌으로써 숙향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등 사회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 마고할미와 기억을 분유하는 단계를 거치며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숙향

정답의 근거: 2번, 정답의 근거: 3번
마고할미를 만나기까지의 고난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숙향

- 수부(水府): 전설에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
- 창화(唱和):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에서 그에 이어서 외치거나 부름
- 참소(讒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뒷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 분유(分有): 나누어 가짐

1 ⑤ 2 ② 3 ①

가 숙향전(淑香傳) _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천상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가 각각 인간 세계에 내려오고, 주인공인 숙향이 온갖 시련을 극복하면서 천상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루게 된 후, 다시 천상으로 복귀한다는 구조를 지닌 애정 소설이다. 이 작품은 숙향의 삶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여성의 수난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고난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작품 전체 보기

발단	김전과 장씨 사이에서 숙향이 태어남
전개	숙향이 부모와 헤어지고 장 승상 댁 양녀가 되지만, 여중 사향의 흥계로 쫓겨남
위기	떠돌던 중 숙향은 마고할미와 살게 되고, 어느 날 숙향은 천상 선녀로 놀던 꿈을 꾸고 이 내용을 수로 놓음. 이를 본 이선이 숙향을 찾아옴
절정	이선이 숙향과 가연을 맺자 이에 분노한 이선의 아버지가 김전에게 숙향을 죽이게 하지만, 김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됨
결말	마고할미가 죽자 자살하려던 숙향은 이선의 부모를 만나 오해를 풀고, 이선과의 혼인을 허락받아 부귀를 누리다가 선계로 돌아감

나 이론

해제: 이 글은 '여성 수난담'을 담은 고전 소설 중 「숙향전」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숙향전」에서 주인공 숙향의 고난은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숙향은 자신의 고난의 기억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한다고 하였다.

주제: 「숙향전」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의 특징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그 집의 사향이란 계집종은 당신을 모해하여 누명을 씌운 죄로, 항아께서 옥황상제께 고하여 이미 벼락을 쳐서 죽었으므로'를 통해 사향을 단죄한 사람은 장 승상 부부가 아니라 옥황상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 남의 집의 시녀가 되었다'와 '장 승상 집에는 십 년간의 연분이 있으니'를 통해 갈 곳 없이 고아가 된 숙향을 장 승상 부부가 십 년간 돌봐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우리 부모는 봉래산의 선관 선녀로서 옥황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내려와서'를 통해 인간 세계의 숙향의 부모님이 본래는 천상계의 봉래산에 있었던 신선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해서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더니'와 '그 집의 사향이란 계집종은 당신을 모해하여 누명을 씌운 죄' 등을 통해 숙향이 억울한 누명을 건디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앞으로도 두 번의 액운이 남아 있으니 조심하소서.'를 통해 선녀들은 숙향이 앞으로 액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고 있다.

2 서술상의 특징

용녀가 숙향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과거의 사건이나 숙향이 부모를 여의고 마고할미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과거의 일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사건은 현재의 시점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③, ⑤ 제시된 장면에는 물속에 빠진 숙향을 용녀가 구해 주는 상황, 숙향이 선녀들에게 천상 세계의 이야기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고 받은 상황, 마고할미를 만난 숙향이 마고할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상황 등이 제시되어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빈번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인물들 사이의 긴박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용녀나 선녀가 나타나는 것이 사건의 환상적인 면모를 부각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시된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에서 숙향은 마고할미와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트라우마를 치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숙향은 마고할미에게 고통스러운 지난 고난의 기억을 말함으로써 마고할미에게 공감과 위안을 받고 안정을 찾은 것이지, 마고할미와의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을 액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마고할미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겨 자신도 마고할미를 친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것은 숙향이 마고할미와 신뢰가 쌓여 안정감을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마고할미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후 얼굴을 단장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수를 놓는 것은 숙향이 마고할미와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트라우마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트라우마가 치유된 숙향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등 사회관계를 회복한 것이다.

④ (나)를 살펴보면 고난의 기억을 갖고 있던 숙향은 마고할미를 만나면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 태세를 늦추기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등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숙향이 비단옷을 험옷으로 바꾸어 입고, 얼굴에 재와 흙을 칠하며, 병신 거지 시늉을 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생긴 경계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마고할미는 치유의 동반자로서 숙향의 아픔을 공감하고 애도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숙향의 이야기를 들은 후 노파가 취한 행동은 숙향의 아픔을 공감하고 애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복합

09

북찬가 / 최척전

[지금필수] 감/상/전/락

가 북찬가

1 화자를 파악하자!

어머니 곁을 떠나 유배 생활을 하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남천(南天)	어머니가 계신 곳
내, 새	화자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 밤밤마다 꿈의 보 니 꿈을 돌려 상시 (常時)과져	유배 생활을 하느라 어머 니를 꿈에서
• 학발조안(鶴髮慈顏) 못 보거든	밖에 만나지 못하는 화자

여의(如意) 일흔 농 (龍)이오 치 업스 비 아닌가	어머니를 봉 양하지 못하 는 화자의 상황
------------------------------------	---------------------------------

• 흐르는 내히 되어 ~창전(窓前)의 가 노닐고져	어머니에 대 한 그리움과 걱정
• 어느 때에 즈음시 며~어느 조손 더 신(代身)홀고	

정답의 근거·2번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된
자신의 처지 한탄

가 『민풍(民風)도 후(厚)타 후되 웃거라도 아니 온다

『』: 유배지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 화자

못뎁고 흠닌 방에 두문(杜門)하고 홀노 이셔

ㄱ 승예(蠅蛸)는 폐창(蔽窓)하고 조갈(蚤蝨)은 만벽(滿壁)흔디

화자의 영향량 유배 환경

▶ 1~3구: 열악한 유배 생활의 어려움

안즌 곳의 히 디우고 누은 자리 밤을 새와

ㄴ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빙히 눈물 일시

정답의 근거·1번 화자의 슬픈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밤밤마다 꿈의 보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과져

↑ 학발조안(鶴髮慈顏) 못 보거든 안독서신(雁足書信) 즈즐염은

어머니

기드린들 통이 올라 오노라면 돌이 넘니

어머니 소식을 간절히 기다림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니는 쉬원홀가

설의법

노친 소식(老親消息)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老親) 알가

화자의 소식을 몰라 걱정할 어머니에 대한 열연(설의법)

천산 만수(千山萬水) 막힌 길히 일반 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장애물

→ 두 곳(화자가 있는 곳, 어머니가 계신 곳)

설의법

▶ 4~11구: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ㄷ 문노라 붉은 돌아 양지(兩地)의 비죄거노

→ 화소연의 대상

썩로고져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돛은고야

→ 동경의 대상

→ 어머니가 계신 곳

→ 도치법

흐르는 새히 되어 집 압히 돌넋고져

△: 화자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

노는 듯 새히 되어 창전(窓前)의 가 노닐고져

→ 대주법

내 모습 헤여흐니 노친 정사(老親情思) 닐너 무슴

→ 어머니가 화자보다 그리움이 더 큰 것임을 강조함

ㄹ 여의(如意) 일흔 농(龍)이오 치 업스 비 아닌가

→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함

ㅁ 추풍(秋風)의 낙엽(落葉)긋히 어드메 가 지박(止泊)홀고

정답의 근거·3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유배지를 떠도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냄(직유법)

제택(第宅)도 파산(破散)하고 친속(親屬)은 분찬(分竈)하니

도로(道路)의 방황(彷徨)흔들 할 곳이 전혀 업니

어느 때에 즈음시며 무스거슬 잡습노고

→ 어머니에 대한 견제과 열연

일점의리(一點衣履) 숨히더니 어느 조손 더신(代身)홀고

→ 화자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음

나 아니면 뉘 피시며 조모(慈母) 맞기 날 뉘 필고

→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책임감과 어머니의 사랑 강조(설의법)

놈의 업스 모조 정니(母子情理) 슈유 상니(須臾相離) 못 흐더니

조물(造物)을 뉘이진가 이대도록 세쳐 온고

▶ 19~25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이광명, 「북찬가(北嶺歌)」

나 돈우의 집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있었는데 그 아내는 늙고 딸은 어렸으며, 다른 남자 가족은 없었다. 돈우는 옥영을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바깥으로는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옥영은 자신이 남자인 체하고 있었기에 거짓으로 말했다.

“저는 본디 몸이 작은 데다가 약골(弱骨)이라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을 때에도 장정들이 하는 일은 잘하지 못하고, 다만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돈우는 옥영을 더욱 붙잡고 여기고 잘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옥영

에게 사간(沙干)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돈우는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지방 일대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옥영에게는 뱃일을 돕게 하였다.

▶ 남장을 한 채 돈우의 뱃일을 도우며 살게 된 옥영

이때 최척은 중국 소흥부에 살고 있었는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은 자기 누이동생과 최척을 맺어 주려고도 했으나 최척이 끝내 사양하였다.

『저는 온 집안이 왜적에게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生死)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을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어찌 편안하게 아내를 얻겠습니까?』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의롭게 여기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들어 죽었다. 『또다시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江湖)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중략> ▶ 여유문이 죽자 강호를 떠돌며 유람한 최척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엽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펄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絕句)를 읊었다.

한 구가 일곱 글자씩으로 된 네 줄의 시. 예전에 옥영이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지은 시로 두 사람을 이어 준 매개가 됨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底]

중국 주나라의 해자로, 피리를 잘 불렀던 인물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海如海露淒淒] <중략>

▶ 고요한 밤중에 엽불 소리를 듣고 통소를 부는 최척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나 최척전

1 인물을 파악하자!

왜적의 침입으로 이(별)하게 된 옥영과 최척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정유재란의 발발로 옥영과 최척이 헤어짐

옥영	최척
• 왜병 돈우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감	•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감
• 남(장)을 한 채 돈우의 해외 무역에 동행함	• 여유문이 죽고 주우를 따라 외국으로 장사를 다님

안남에서 최척과 옥영이 극적으로 만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전란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 이산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림

정답의 근거·1번 최척의 서글픈 정서를 드러냄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
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
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
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
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
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
시 강독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
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
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
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
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
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
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 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
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안남에서 재회한 최척과 옥영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승예(蠅納): 파리와 모기
- 조갈(蚤蝸): 벼룩과 굴뚝이
-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저: 꿈을 둘러서 평상시처럼 하고 싶구나.
- 학발조안(鶴髮慈顏): 흰머리를 한 어머니 얼굴
- 안독서신(雁足書信): 기러기 발에 서신을 매달아 보냄
- 일반 고사(一般苦思): 괴롭거나 고 통스러운 모든 생각
- 처: 배의 방향을 돌리는 기구인 '키'의 옛말
- 지박(止泊): 멈추어 정박함
- 제택(第宅): 문중의 여러 집안
- 분찬(分釐): 뽕뽕이 흩어져 달아나거나 숨음
- 일점의리(一點衣履): 한 벌뿐인 옷과 한 켤레뿐인 신발
- 슈유 상니(須臾相離):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것
- 위이건가: 움직이게 했는가. '위다'는 '움직이다'의 옛말
- 안남: 베트남

1 ② 2 ⑤ 3 ⑤ 4 ④

가 북찬가(北畵歌) _ 이광명

해제: 이 작품은 벼슬살이에 뜻이 없어 시골에 숨어 살던 작가 이광명이 숙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큰아버지 진유(眞儒)가 역모 죄로 처형된 뒤 25년이 지난 1755년(영조 31년)에 나누해서(羅掛書)의 변이 일어나자 진유의 조카라는 이유로 갑산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쓴 유배 가사이다. 일반적인 유배 가사가 유배를 가게 된 연유를 밝히고, 유배에 대한 억울한 심정과 반성, 그리고 변치 않는 임금에 대한 연정과 충의를 노래하는 반면,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드러내지만 임금에 대한 충의나 연정은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홀로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한 안타까움 등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유배지에서의 고통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작품 전체 보기

서사	홀어머니만을 의지해 살아온 자신의 기구한 삶
본사 1	노모와 작별해야 하는 슬픔
본사 2	유배의 노정과 그로 인한 소회
본사 3	노모에 대한 염려와 울분
결사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성운에 대한 기대

나 최척전(崔陟傳) _ 조위한

해제: 이 작품은 주인공 최척과 옥영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離散)과 재회를 그린 군담 소설이다. 민족적 영웅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고자 한 전통적인 군담 소설과 달리 이 작품은 민족적 영웅의 활약상도, 무용담도 나타나지 않으며, 최척, 옥영과 같은 민중 계층의 고난과 역경, 가족 이산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고 있으며, 여주인공인 옥영은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고 전쟁으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매우 슬기롭고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당시 새로운 여인상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당시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 전란으로 인한 최척 가족의 이산과 재회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최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 상사 아래서 공부를 하던 중 옥영을 만나 혼인하여 첫째 몽석을 낳음
전개	• 전쟁 이후 최척의 가족들은 조선, 중국, 일본 등지로 흩어짐 •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주유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살기로 함 • 안남에서 재회한 최척과 옥영은 중국으로 가 함께 살게 됨
위기	장성한 몽선은 중국인 흉도와 결혼하고, 최척은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 다시 옥영과 헤어짐
절정	후금의 포로가 된 최척은 조선군 신분으로 포로로 잡혀온 큰 아들 몽석과 수용소에서 만나 탈출하고, 옥영은 몽선과 며느리 흉도를 데리고 조선으로 떠남
결말	20여 년 만에 온 가족이 남원에서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는 자신의 유배로 인해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걱정과 안타까움, 슬픔의 정서가 주로 드러나 있고, (나)에는 왜적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져 떠돌며 사는 최척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헤어져 살던 옥영과 최척이 시간이 지난 후 재회하게 된 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상황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의 '천산 만수(千山萬水) 막힌 길'은 화자와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화자는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일반 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라고 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장애물로 인한 인물의 절망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나 (나)의 옥영과 최척 모두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가)의 화자가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 화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옥영과 최척의 이별의 원인도 두 인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결과이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광명은 벼슬에 뜻이 없어 시골에 숨어 살고 있다가 25년 전 역모죄로 처형된 큰아버지로 인해 갑자기 귀양을 가게 된다. 「북찬가」는 이때 지어진 것으로,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 봉양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다. 일반적인 유배 가사들이 임금에 대한 연정과 충의를 노래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유배 가사의 특징
보기 노트

〈보기〉는 이광명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와 「북찬가」를 창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일반적인 유배 가사와 「북찬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물(造物)을 뉘이건가 이대도록 켜쳐 온고’는 유배로 인해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큰아버지 때문에 갑작스럽게 억울한 유배 생활을 하게 한 조물주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파리와 모기, 벼룩과 굼벵이가 가득한 방에서 나오지 않고 홀로 있다는 것을 통해 유배 생활을 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화자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가 꿈을 돌려서 평상으로 여기고 싶다는 것은 꿈속에서 그리운 대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임금에 대한 연정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어머니의 소식을 몰라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몰라 걱정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④ ‘친속(親屬)은 분천(分竈)후니’에서는 친척도 모두 흩어져 있어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화자의 걱정과 봉양에 대한 책임감이 드러나 있다.

3 표현상의 특징

‘츠퉁(秋風)의 낙엽(落葉) 꺾히’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유배지를 떠돌아 다녀야 하는 화자의 처지를 낙엽에 비유하여 드러낸 것으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승예(蠅蟻)’와 ‘조갈(蚤蝎)’, ‘폐창(蔽窓)후고’와 ‘만벽(滿壁)훈디’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화자가 처한 열악한 유배 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강조하는 수사법을 연쇄법이라고 한다. ‘좁든 밧고 한숨’, ‘한숨 맞히 눈물’은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에서 이어받아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연쇄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화자의 슬픈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문노라 붉은 동아’를 통해 자연물인 ‘동’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여의(如意) 일흔 농(龍)’, ‘치 업슨 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닌가’를 통해 설의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조위한의 「최척전」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친 동아시아의 전란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그리고 있다. 조위한이 남원의 주포(周浦)에 살고 있을 때 최척의 이야기를 듣고 적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최척이 당시 실존했던 인물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최척전」이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조위한의 문학적 상상력이 투영되어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최척전」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최척전」이 역사적 실재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최척이 이곳저곳을 떠돌다 안남에까지 이른 것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 의탁할 곳을 찾다 떠돌게 된 것이지 외국으로 흩어진 가족을 찾기 위함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4월 보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여 이 작품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전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소설임을 보여 준다.

② 옥영과 최척은 ‘안남(베트남)’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하게 되는데, 이는 전란으로 인해 이산의 고통을 당했던 당대 사람들의 희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최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왜군에 포로로 잡혀간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옥영이 돈우를 도와 중국의 복강성과 절강성 일대를 배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파는 모습과 최척이 주우를 따라 외국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이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안남(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하여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이 전쟁과 관계된 나라들인 조선,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전쟁과 관련이 없었던 안남(베트남)까지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최초의 소설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동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세계 인식의 확대를 가능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품에 제시된 구체적 사건과 지명은 작품의 공간이 실재적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낯설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복합

10

맹 진사 댁 경사 / 채봉감별곡

본문 085~088쪽

정답의 근거·1번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입본이가 갑분 대신 시집가게 된 상황을 부각함

가 참봉 즉 이를테면 그럴 사정이 있어서 자네들이 익히 잘 아는 입본이가 갑분 아가씨가 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이를테면 입본이가 갑분 아가씨이고 갑분 아가씨…… 갑분 아가씨대루 있게 댔단 말이야.

작인 1 (일어서며) 그럼 시집가는 건 누구예요?

참봉 그야 물론 갑분 아가씨가 김 판서 댁 며느님이 되는 셈이지.

작인 1 그럼 갑분 아가씨가 시집가는구먼요.

참봉 ㉠아, 아니다. 아니 어, 어느 갑분 아가씨 말이고.

작인 2 저 그럼 입본이가 갑분 아가씨구 갑분 아가씨가 입본이가 댔단 말씀인가?

참봉 뭘, 뭣이?

작인 3 그 으째 셈이 잘 맞지 않는답쇼. 왜 그런고 하니 참봉님 말씀에 의지할진대 도대체 시집가는 아가씨가 갑분 아가씨인데 실인 즉은 시집가는 아가씨는 입본이니 시집 안 가는 갑분 아가씨…… 도대체 뭐갑쇼. <중략>

▶ 참봉이 작인들의 입단속을 위해 갑분 대신 입본이가 시집가는 상황을 설명함

맹 진사 참봉 저리 좀 비키게. (올라서서) 너희들 참새 대가리로 궁리할 것두 없구 생각할 것두 없다. 다시 한번 일러둔다문서두 이제 곧 초례를 치를 테지만 그 당장에 나타난 신부가 누구이건 아랑곳할 게 아니란 말이다. 알아들었어? 만일에 신랑 댁에서 들으신 뒤에 너희들이 혹시 얼김에라두 “이크! 저 신부가 입본이 아냐.” 또는 “이크! 이게 어떻게 된 판국이야.” 이런 소리라도 사돈댁 양반들의 귀에 들렸단 큰일 저질 테이니 그런 줄이나 미리 짐작허구 아예 함구불언허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 일동 네.

소작인 ㉡옛날부터 상전께서들 허시는 일일랑 저희들이 아랑곳했습니까, 원.

맹 진사 그럼 어서들 돌아가. 일 거들 사람은 일 거들구.

작인 1 허 참, 내 오래 살려니까.

작인 2 무슨 조환지 모르지. (작인들, 상하수로 퇴장)

맹 진사 에이! 육실했 삼돌이 놈 땀에 이 고생이람! 짹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니. 대체 이놈이 오늘은 아침부터 얼씬 안 하니 어데루 갔어? 참봉, 사돈댁에서 들으신 뒤에 야로 못 허게 단단히 단속을 허야 하네. / 참봉 네, 염려 맙쇼.

맹 진사 원, 참봉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게 무슨 소린가? (멀리서 도라지타령)

㉢에그머니나, 어느새 쫄마 소리 같은데.

참봉 아니올시다, 쫄마 소리가 무슨 쫄마 소리니까. 아무렇기로나 어느새에…….

맹 진사 응, 아니로군. 에이 진땀이야. 내 그 병신 녀석 맛을 생각을 하니. <중략>

▶ 맹 진사가 입본이를 갑분으로 속여 시집보내려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날까 봐 불안해함

맹 진사 네…… 이놈, 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나.

삼돌 『아니예요. 죽으려다가 그만 낙상했어요. (다리를 뺀고 주저앉는다.) ㉣죽어라고 술을 퍼먹었지, 그래도 죽지 않아서 물로 뛰어들었지, 낚시질꾼에게 방해가 돼서 못 죽고 나무에 목을 매었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서러워서

● 지금필수 감/상/전/략

가 맹 진사 댁 경사

1 인물을 파악하자!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
• 맹 진사 • 갑분	• 입본 • 미언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맹 진사	삼돌
삼돌이 좋아 하는 입본이를 갑분 대신 시집보내려고 함	신랑 측에 신부를 바꿔친 사실을 말하겠다며 맹 진사를 협박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미언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갑분 대신 입본이를 시집보내려는 맹 진사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맹 진사
--	------------------



맹 진사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는 삼돌이 입본이 대신 갑분과 혼인시켜 달라고 요구함	상황이 악화되어 당황한 맹 진사
--	-------------------



절름발이가 아닌 미언과 입본이가 혼례를 치름	맹 진사의 좌절
--------------------------	----------

정답의 근거·3번

당대 상인들이 상전들로부터 받았던 수모를 짐작할 수 있음 → 상전들에 대한 서인들의 반감이 드러남

정답의 근거·2번

삼돌이 맹 진사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여 맹 진사를 곤란에 빠뜨려 풍자의 대상으로 삼음

또 못 죽었어. (일어서서 대청 앞 큰 상을 노리며) 입분아, 지레 빠진 이 계집애야. 넌 중시 ^{끝내} 갈테냐. 난 못생긴 머슴일망정 이렇게 성하다. 다리 병신 양반 자체가 그래도 맘에 들더냐? 이 시시한 년야! 시집 못 갈라, 입분아!

맹 진사 이 죽일 놈아! (털빈다.)

삼돌 흥, 날 치려구요? 치려면 쳐 봐요. 그 대신 이 혼인은 이제라도 저기 판서 댁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

참봉 ^{신부가 갑분이 아니잖아 입분이잖아. 사실} (진사를 비켜 세우고) 애, 애, 삼돌아. 제발 좀 진정해라. 응, 입분이 아닌 다 른 색시일랑 소원대루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얻어 줄게. 응. 곱단이가 좋다면 곱 단이도 얻어 주마. / 삼돌 싫어요!

참봉 그럼 금네는 어떠냐. 그 애가 이쁘고 재치 있고 아담하고 짹짹하고 상냥하 고…… / 삼돌 싫어요!

참봉 그럼 누구란 말이냐. 어디 말해 봐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

삼돌 입분이밖에 없어요.

참봉 예그 이런 심술궂은 소리 말구…… 고집도 너무 허면 그건 벽창호라는 거 야. 그러지 말구, 어서.

삼돌 뭐요, 벽창호요? 누가 할 소리예요? 정녕 색시 하나 얻어 주실려거든 댁 갑 분 아가씨를 입분이 대신 주세요. / 맹 진사 ^{조선 말기 신분 사회의 동요를 엿볼 수 있음} 원 이 녀석이!

참봉 ☒ 갑분 아가씨를? 네가 환장을 했느냐?

삼돌 왜들 놀라실까. 마찬가지예요. 입분이가 갑분 아가씨가 됐으니 갑분 아가씨 가 입분 아가씨가 된 게 아녜요? 피장파장인데 뭘 그래요.

맹 진사 엑기. (격노하여) 이 배우지 못한 후례자식아!

삼돌 싫거들랑 그만두세요. (일어선다.) / 참봉 애, 애 삼돌아.

맹 진사 내버려 두어! 참봉 내 저놈을 그냥 두지 않을 테야. (길보, 숨이 턱에 닿아 서 등장)

길보 나리마님, 신랑이 오나 봅니다. 저 동구 밖에 말 탄 행렬이 까박하고 옵니다. ^{'다리 병신 양반 자체' 곧 김 판서 댁 아들을 말함}

맹 진사 예그 정말 꼭두새벽에 온다드니, 부지런두 하지. 길보야, 얼른 안에 들어 가서 마님허구 입분이허구……. 삼돌아, 헤……. 너 술 먹으로 안 가련? ^{자랑을 위해 당당하고 권유함} 길보허 구 함께. <중략> ▶ 삼돌이 맹 진사에게 입분이 대신 갑분을 자신의 색시로 달라고 요구함

입분이 (드디어 울어 버리며) 서방님, 용서해 주세요. 실상은 갑분 아가씨가 서방님 을 절룩발이 신랑이라구 —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어찌는 수 없이 금방 신랑이 드신다 하는데 신부는 없고 미천한 몸이 아가씨 대신 신부로 뽑혔든 거예요. 저 는 가짜예요. / 미연 음…….

입분이 그리고 저는 서방님께서 절룩발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여태 장가도 못 드리고 아무도 시집와 주는 색시가 없는 쓸쓸한 양반이시라…… 이렇게만 알았 어유, 그랬드니만 이제는 왜 서방님께서 절룩발이가 못 되었을까. ^{『차라리 몸쓸}

다리병신으로 세상에 모든 색시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외로운 서방님이었으
『』: 미천한 중 신분인 자신에게 과분한 신랑이라고 생각함

면 좋겠어유. 지금은 그게 도리어 이 몸에게 견딜 수 없이 원망스러워유. 서방
 님…… 서방님께선 그 몸속 속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저를 용서하세요. (운다.)

미연 허—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 입분이 네?

미연 나두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오.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오.

입분이 아니 서방님…….

미연 (입분이 손목을 지그시 잡으며) 놀라지 마시오. 이번 일을 이렇게 꾸민 사람도
 실상은 나였소. 내가 그같이 꾸몄든 것이오. 내 명정 숙부로 하여금 절룩발이라
 고 헛소문을 내게 한 것도 기실은 나였소. / 입분이 네?

미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대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줄은 몰랐소.

입분이 서방님…… 무슨 연유로 그런…….

미연 그 연유는? 아가씨는 터득치 못하겠소? 내가 무엇을 구해서 그런 장난을 했
 으며 무엇을 찾아서 그런 일을 꾸몄는지 짐작하지 못하겠소.

입분이 잘 모르겠어요.

미연 …… 사람의 마음, 더욱이 여자의 마음, 그 마음의 참된 무게와 깊이가 알고
미연이 거짓 소문을 낸 이유
 싶었던 것이오.

▶ 첫날밤, 입분과 미연은 서로에게 진실을 고백함

- 오영진, 『맹 진사 맥 경사』

나 “아가, 너는 재상의 첩이 좋으냐, 여염집의 부인이 좋으냐? 아비, 어미가 있는
권세와 재력을 중시하는 김 진사의 가치관
 데 부끄러울 게 뭐냐. 네 생각을 말해 보아라.”

채봉이 예사 여염집 처녀 같았으면 부모의 말이라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터이
 지만, 원래 학식도 있을 뿐 아니라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 장필성에 대한 애저과 신의를 지니고 있음
 게다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터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로 하고 대
 답한다.』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되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계구우후(雞口牛後). 큰 닭의 줄개보다도 작은 당채의 우두머리가 나옴 → 재상이랑 해도 첩이 되고 실지 않음
 “허허, 그 녀석. 네가 첩 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재상의 첩이야 세
『』: 물질적인 것만 중시하는 김 진사
 상에 그 같은 호강이 또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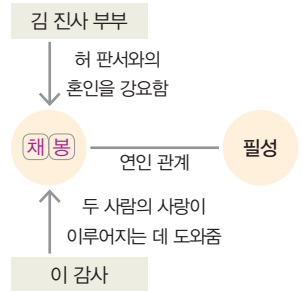
부인이 말을 가로막고 김 진사를 쳐다보며,

“영감 자식에게 별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애 자식이란 것은 으레 부모가 하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남
 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랍니다.” <중략> ▶ 채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 판서와의 혼인을 강행하는 김 진사 내외

창은 열려 있고 송이는 책상머리에 엎드려 누웠는데, 불 켜진 책상 위에 ㉠종이
 가 펼쳐져 있다. 종이를 집어 보니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가 눈에 들어
사랑하는 일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온다. 대강 보고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우니,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송이
 는 눈앞에 서 있는 감사를 보고 어찌할 줄 몰라 급히 일어서는데, 이 감사가 종이
 를 말아 들고,

나 채봉감별곡

1 인물을 파악하자!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김 진사	채봉
김 진사 내외	허 판서의 첩
가 딸 채봉에	이 되라는 부
게 허 판서의	모의 명을 거
첩이 될 것을	역하고 도망
강요함	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채봉	필성
허 판서의 첩	기생이 된 채
이 되라는 부	봉을 아내로
모의 명을 거	맞으려 하며,
역하고 적극적	이를 위해 이
이고 진취적으	방에 지원하
로 자신의 사	여 신분의 전
랑을 쟁취함	락까지 감수함

- 부패한 지배층의 횡포와 그릇된 가부장적 권위에 맞섬
- 권세에 굴하지 않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쟁취함

정답의 근거·4번

이 감사가 송이(채봉)와 필성의 관계를 알게 됨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위아래가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아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 ^{이 감사와 송이(채봉)는 감사와 기생으로 신분 차이가 있음} ^{송이(채봉)를 대하느 이 감사의 태도}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다 말하여라. 나는 너를 딸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같이 생각지 않고, 무슨 괴로움이 있어 말 아니하고 이려고 있던 말이나.”

송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열어,

“소녀의 죄가 큼니다.”

^{이방인 필서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임}
이 감사가 허허 웃고,

“너의 사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여라.”

송이는 어쩔 줄을 몰라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려 말을 못하고 섰는데, 이 감사가 또 말을 재촉한다.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눈물을 닦고 몸을 추슬러 단정히 한 다음, 처음 후원에서 장필성과 글을 주고받았던 일에서부터 모친이 장필성을 불러 혼약한 일을 말한 뒤, 김 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려고 허 판서와 관계한 일이며, 허 판서의 첩 자리를 마다하고 장필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리교에서 도망하였다가 몸을 팔아 부친을 구한 일, 기생이 된 후에도 장필성을 잊지 아니하고 있다가 글을 통해 장필성을 만난 이야기를 한다.

▶ 송이(채봉)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듣는 이 감사

이튿날 이른 아침에 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속으로,

^{송이(채봉)와 필서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이 감사}
‘사또께서 일찍이 부르시는 일이 없더니 무슨 일로 이같이 부르시나?’

이상하게 생각하며 감사께 문안을 올린다. 감사가 빙그레 웃으며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기에, 필성이 더욱 이상히 여기고 따라 들어간다. 감사는 필성을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더니 송이를 부른다. 송이는 별당으로 들어오다가 필성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았는데, 『그 두 남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감사의 앞이라 감히 반가운 기색을 못하니 그 곤경이 어떠할까.』 감사는 껄껄 웃더니 장필성을 보며,

“필성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방이라는 천한 일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 예닐곱 달이 되었구나. 여태 못 만나 보다가 오늘에야 서로 만나니 기분이 어떠하냐?”

장필성이 더욱 놀라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일어서서 절하며 말한다.

^{이 감사가 둘 사이를 알 것이랴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임}
“황공하오이다.”

“내가 이제 네 사정을 알았으니 안심해라. 너희 둘을 앉히고 보니 과연 천생배필이로구나. 네가 송이의 수건에 써 준 글처럼, 신랑 각시가 되어 신방에 든다는 언약이 있었으니 혼인을 아니 시킬 수 없구나. 『송이의 부모를 내려오게 한 뒤, 내가 중매하여 혼인을 꾸밀 것이니 그리 알아라. 오랫동안 서로 그리던 마음이』 ^{『』: 이 감사가 송이(채봉)와 필서의 사랑이 이룩어지도록 도와줌} 깊을 터이니, 송이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가거라.”

▶ 송이(채봉)와 필성을 만나게 하는 이 감사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쿨마 소리: ‘쿨마 소리’의 잘못. 귀한 사람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갈 때 앞에 선 사람이 내는 가늘고 긴 소리

• 지레 빠진: 지라 빠진. ‘지레’는 ‘지라(비장)’에 해당하는 방언으로, ‘지레 빠진’은 ‘비위도 없는’의 의미임

1 ② 2 ② 3 ② 4 ③

가 맹 진사 댁 경사_오영진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딸을 세도가인 김 판서 댁에 시집보내려다가 신랑이 될 사람이 절름발이라는 말을 듣고 하녀를 대신 시집보내는 내용을 통해 구식 결혼 제도의 모순과 인간의 허욕, 우매함을 풍자하고 있는 희곡이다. 작가는 맹 진사의 올바른지 못한 행실을 통해 인간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의 바탕에 허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고, 갑분 대신 시집을 간 입분을 통해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제: 인간의 탐욕과 우매함에 대한 풍자와 비판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맹 진사가 자신의 딸인 갑분을 세도가인 김 판서 댁의 아들 미연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쭐댈
전개	과객 차림의 인물에게서 신랑이 될 사람이 절름발이라는 말을 듣고 맹 진사 집이 혼란에 빠짐
절정	맹 진사가 하녀인 입분을 갑분으로 꾸며 혼례를 치르기로 하고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킴
하강	혼례 당일 미연이 절름발이가 아닌 잘생긴 장부임이 밝혀지지만 예정대로 혼례가 치러짐
대단원	첫날밤, 입분은 자신이 갑분이 아님을 고백하고, 미연은 신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일부러 거짓 소문을 낸 것이라고 밝힘

나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주인공 장필성과 채봉이 온갖 고초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을 그린 고전 소설이다. 남녀 간의 혼사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전형적인 애정 소설의 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건의 우연성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성 있는 사건 전개, 사실성 있는 표현 등은 근대 소설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딸을 팔아서까지 벼슬을 하려고 하는 김 진사,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였다가 기생이 되는 채봉, 애인을 만나기 위해 천한 이방이 되는 필성 등 기존 질서에 크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신분 질서의 와해와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성행했던 조선 말엽의 세태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권세에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작품 전체 보기

발단	평양에 사는 김 진사의 딸 채봉이 우연히 장필성을 만나 혼인을 약속함
전개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만 냥을 주고 벼슬을 사며 딸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주기로 약속함. 채봉은 허 판서와의 혼인에 불복하지만, 김 진사 부부는 서울로 가기 위해 재산을 모두 처분함
위기	서울로 가는 길에 채봉이 도망치고, 그 사실을 안 허 판서가 크게 화를 내어 김 진사를 옥에 가두자 채봉이 기생 '송이'가 되어 김 진사를 구하려 함
절정	이 감사가 채봉의 글재주를 보고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기고, 장필성은 채봉을 만나기 위해 이방으로 지원하고 이를 알게 된 이 감사가 둘을 만나게 해 줌
결말	허 판서가 역모 죄로 파멸하게 되어 김 진사와 부인이 돌아오고, 이 감사의 도움으로 채봉과 장필성은 혼인을 함

1 서술상의 특징

(가)는 참봉과 작인들의 대사를 통해 입분이를 갑분 아가씨로 속여 시집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맹 진사와 삼돌이의 대사를 통해 삼돌이 입분이를 좋아하여 입분이가 시집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입분이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뿐, 과장된 의상과 소품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는 인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거나 퇴장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⑤ (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 두 남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감사의 앞이라 감히 반가운 기색을 못하니 그 곤경이 어찌할까.' 부분에서는 이 감사의 도움으로 만난 채봉과 필성의 심정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남녀 간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性情)으로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이다. (가)와 (나)는 개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에 의해 의례적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가)와 (나)는 구식 결혼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혼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의 탐욕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남녀 간의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으로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와 (나)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돌이 '판서 댁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라며 맹 진사를 겁박하는 행동은 맹 진사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며,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맹 진사를 곤란에 빠뜨려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삼돌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여 주기 위함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인물이 지닌 탐욕과 허욕을 드러내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맹 진사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거짓 소문을 낸 것이라며 밝히는 미연에게 입분이가 그 이유를 묻자, 미연은 신부될 사람의 마음의 참된 무게와 깊이가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미연은 사람의 신분이나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허 판서와 혼인시키려는 아버지에게 채봉은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되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이를 통해 채봉이 권세에 굴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쟁취하려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세도가인 김 판서 댁과의 혼사를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였으나, 신랑이 될 사람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 대신 입분이를 시집보내려는 계락을 세우는 맹 진사나 권세와 재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허 판서의 첩으로 혼인을 시키려는 김 진사의 모습을 통해 아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미연과 입분이의 혼사가 결정되는 상황과 (나)에서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강행하려는 김 진사 부부의 모습을 통해 부모에 의해 의례적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던 조선 시대의 혼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알아 두기

「맹 진사 댁 경사」의 배경 설화인 「뱀 신랑 설화」의 줄거리

어떤 노부부가 자식을 기원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뱀이었다. 뱀 아들은 자라서 김 정승의 딸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 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거절하고 셋째 딸이 승낙하여 혼인을 하였다. 첫날밤, 뱀 신랑은 허물을 벗고 잘생긴 선비가 되었는데 이를 알고 신부의 언니가 질투를 한다. 남편은 뱀 허물을 아내에게 주면서 잘 보관할 것을 당부하고 과거를 보러 떠났으나, 이를 안 두 언니들이 뱀 허물을 훔쳐다 태웠다. 뱀 신랑은 허물 타는 냄새를 맡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길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지하 세계로 들어갔으나 뱀 신랑은 새 여자와 혼인을 하고 살고 있었다. 아내는 노래를 불러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게 하고 뱀 신랑과 재결합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3 작품의 형상화

㉠은 당시 상민들이 상전들로부터 받았던 수모를 짐작하게 하는 대사로, 상전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맹 진사의 처지를 이해하고 맹 진사의 말에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작인 1'의 질문을 듣고 말을 더듬는 것에서 참봉이 혼란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③ 도라지타령 소리를 듣고 곱마 소리라고 착각하며 놀라는 맹 진사의 모습을 통해 맹 진사가 도라지타령 소리에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삼돌이 물로 뛰어들고 나무에 목을 매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입분이가 시집가는 것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극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갑분 아가씨를 입분이 대신 달라는 삼돌이의 말에 대한 반응이므로, 참봉이 삼돌이의 말에 놀라 당황해함을 알 수 있다.

4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종이는 이 감사가 우연히 송이의 방에 들어가 발견한 것으로 '추풍감별곡'이라는 다섯 자가 적힌 물건이다.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다 말하리라.'라는 이 감사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종이는 송이의 마음속에 어떤 맺힌 것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물건일 뿐 송이가 이 감사에게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⑤ 종이를 본 이 감사가 송이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난 후, 다음날 송이와 필성에게 '송이의 부모를 내려오게 한 뒤, 내가 중매하여 혼인을 꾸밀 것이니 그리 알아라.'라고 말한다. 즉 종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므로, 사건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감사가 송이와 필성의 사정을 알게 되어 이튿날 필성을 불러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준다.

④ 종이에 쓰인 '추풍감별곡'은 사랑하는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따라서 필성을 그리워하는 송이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은 서도 송서(誦書)로,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에서 송이(彩鳳)가 필성에 대한 애절한 연모의 정을 가사체로 노래한 것이다. 송서란 말 그대로 서책을 읽는 듯이 소리하는 것으로 소리조에 가깝다. 오늘날 서도 송서와 경기 송서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젯밤 부던 바람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에 상사몽(相思夢) 홀적 깨어
죽창(竹窓)을 반개(半開)하고 막막히 앉았으니
만리장공(萬里長空)에 하운(夏雲)이 흩어지고
천년강산(千年江山)에 찬 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愴然)한데 물색(物色)도 유감하다
정수(庭樹)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을 아뢰는 듯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를 머금은 듯
잔류남교(殘柳南郊)에 춘앵(春鶯)이 이귀(已歸)하고
소월동정(素月洞庭)에 추원(秋猿)이 슬피 운다
임 여의고 썩은 간장(肝腸) 하마하면 끊길세라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런가 꿈이런가
세우사창(細雨紗窓) 요적(寥寂)한데 흡흡히 깊은 정과
야월삼경사어시(夜月三更私語時)에 백년 사자 굳은 언약
단봉(丹峯)이 높고 높고 패수(溟水)가 깊고 깊어
무너질 줄 몰랐으니 끊어질 줄 알았으랴 <하락>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고난도 복합 01 길 / 수오재기

본문 092~093쪽

가 잃어버렸습니다. 중경 어미 '~버린다'의 반복적 사용목적어를 생략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잃은 것을 찾는 과정,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공간정답의 근거·2번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드러냄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반복을 통해 화자의 목거울 심리를 강조함(반복법)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정답의 근거·5번화자와 참된 자아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담은 ㉠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시간의 연속성 -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의 지속성(연쇄법)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정답의 근거·3번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한 안타까움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시련과 고통의 과정(승교자적 삶의 길)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본질적 자아정답의 근거·1번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드러남

내가 사는 것은, 다만,

현실적 자아**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본질적 자아

▶ 1연: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

▶ 2연: 화자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

▶ 3연: 참된 자아와의 단절

▶ 4연: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한 과정

▶ 5연: 부끄러움을 통한 자아 성찰

▶ 6연: 참된 자아의 회복

▶ 7연: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의지

- 윤동주, 「길」

나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

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힘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

글쓴이의 처지

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

「」: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

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

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흠쳐 없앨 자가 있는

● 지금필수 감/상/전/탁

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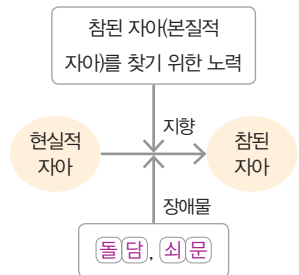
1 화자를 파악하자!

참된 자아(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길에 나아가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길	자기 성찰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자아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의 여정
돌담, 쇠문	본질적 자아로 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하늘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매개체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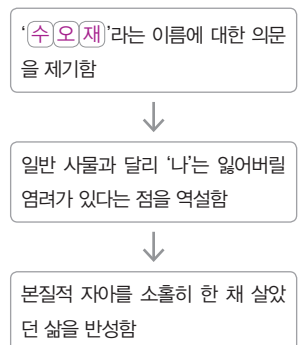


나 수오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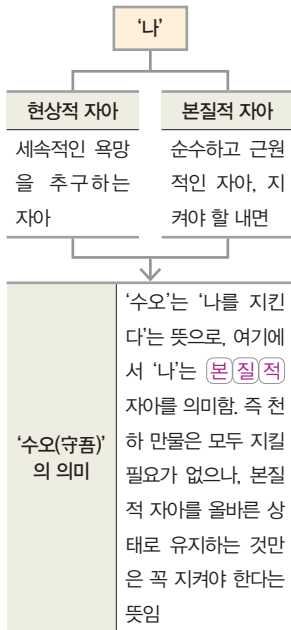
1 인물을 파악하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정답의 근거·1번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함

정답의 근거·4번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은 글쓴이의 귀양지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공간임

정답의 근거·2번
둘째 형님 역시 귀양 와서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게 됨

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궁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으랴.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 세상의 모든 사물을 지킬 필요가 없음

㉔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알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사물의 마음은 쉽게 바뀌고 유혹에 잘 넘어감}의 **이**로 보면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서로 떨어져서 못해 하나인 것 같다가도}의 **』**는 현상적 자아가 떠나가는 이유 - 현상적 자아 주변에 있는 온갖 유혹과 위협에 쉽게 흔들림으로

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정답의 근거·5번** ‘나’를 지키기 위한 다짐이자 수양의 과정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㉕**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오.”
^{정저하게 수양하여 ‘나’를 굳게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에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십 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 ^{△: 현상적 자아}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紗帽冠帶)에 비단 도포를 입고, 십이 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 ^{벼슬길에 나섬(대유법)}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새재를 넘게 되었다. ^{벼슬길} **㉖** 친척과 선영(先塋)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 ^{고향} **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㉗** 그 얼굴 빛을 보니 마치 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키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 큰형님이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사모관대(紗帽冠帶): 사모와 관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본디 벼슬아치의 복장이었으나, 지금은 전통 혼례에서 착용함
-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선산

1 ③ 2 ① 3 ⑤ 4 ④ 5 ⑤

가 길_윤동주

해제: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식인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탐색과 자기 성찰을 위한 고민을 노래한 시이다. '길'은 방향을 거듭하던 화자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선택한 공간으로, 화자는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과 자아 회복을 위한 노력

나 수오재기(守吾齋記)_정약용

해제: 이 작품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인 '수오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가진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얻은 깨달음을 기록한 한문 수필이다. 본질적 자아를 잃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고하며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깨달음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나'와 '또 다른 나'를 구분하여 현상적 자아에 대비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글쓰이는 처음에 나를 지킨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시작함으로써 자신도 독자들과 유사한 상황을 밝혀 공감을 형성한다. 이후 나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였음을 밝히고,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작품 전체 보기

기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
승	천하 만물 중에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전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키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결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과 자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 있고, (나)에는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모두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아란 개인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버려 내는 상징적인 기호이다. 하지만 자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 넓게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므로 자아를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상적 자아는 외면적인 '나'의 모습으로 상황과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이며, 본질적 자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을 지닌 자아로,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아를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본질적 자아를 찾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인 (가)와 (나)를 감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길’은 화자가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공간으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련과 고통이 예비된 삭막한 길이다. 또한 ‘이 길’이 감옥과 같은 ‘돌담’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것은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돌담’과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돌담’ 때문에 자신이 간직해야 할 내면의 자아(본질적 자아)를 찾지 않으려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본질적 자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을 지닌 자아라고 하였다. (가)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식인의 고민을 드러낸 작품이라면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나’는 본질적 자아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양심이자 민족의식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나’가 ‘잃은 것’은 본질적 자아에 해당한다. ‘나’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현상적 자아만 남아 있게 된다. 〈보기〉에서 현상적 자아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으므로, ‘나’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한다면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현실적 조건에 따라 변화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④ (나)에서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본질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다짐 때문이다. 〈보기〉에서 본질적 자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을 지닌 자아라고 하였으므로,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돌째 형님 좌랑공’은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잃은 ‘나’는 본질적 자아, 쫓은 ‘나’는 현상적 자아, 붙잡은 ‘나’는 본질적 자아에 해당한다. 이처럼 ‘돌째 형님 좌랑공’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귀향자인 ‘남해 지방’에서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길’의 의미

윤동주의 시 「길」의 화자는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길을 나선다. 담 저쪽의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걷는 것이다. ‘길’은 현재의 부끄러운 자아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는 탐색의 장소이며, 화자는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참된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길’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탐색의 과정, 출발과 도착의 과정을 지닌 행위의 공간이다. ‘길’의 공간성은 언제나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길’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시련의 극복이라는 정신적인 세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시에서의 ‘길’은 자아 성찰과 자기 고행을 통해 본질적이고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인생의 역정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표현상의 특징

5연의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 있고,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에는 푸른 하늘을 통해 화자의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을 뿐, 방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종결 어미 '~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아 성찰을 통한 내면의 부끄러움을 고백적인 어조로 나타내고 있다.

② 4연의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에 연쇄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2연의 '돌과 돌과 돌이'에 반복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를 돌담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무거운 심리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잃어버렸습니다.'와 같이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시작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상실의 인식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은 글쓴이가 귀양 온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곳이자,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곳은 글쓴이가 '나'를 찾기 위해 찾아온 곳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를 찾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나'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에서 지고 달아날 자가 없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는 '발'과 달리 '나'는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나'는 지키지 않으면 달아날 수 있다는 의미로, 지킬 필요가 없는 사물인 '발'을 통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의 앞부분에서는 '천하 만물'은 흠쳐가거나 없앨 수 없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나'라는 것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음을 밝히며, 천하 만물과 '나'를 대조하여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음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

⑤ 현상적 자아인 '나'는 귀양지에 와서야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벼슬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를 귀양지에 와서야 지킬 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수오재기(守吾齋記)」의 형식적 특징

「수오재기」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통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강조하며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제목에 드러나는 것처럼 한문 문학 양식의 하나인 '기(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수오재기'도 글쓴이의 형이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연을 적고, 그에 따른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기(記)'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쇠문'은 내면의 본질적 자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와 본질적 자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자물쇠'는 '실', '끈', '빋장'과 함께 글쓴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수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는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는 글쓴이가 본질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 수양하는 과정이나 다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와 ㉤를 화자나 글쓴이가 앞으로 겪을 시련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나)의 글쓴이가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는 목표 달성을 위해 드러낸 굳은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는 목표 달성을 위해 드러낸 굳은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가 본질적 자아를 지키기 위한 수양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글쓴이의 다짐을 굳건하게 해 주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는 화자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④ ㉢는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므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는 본질적 자아를 굳게 지키겠다는 노력이자 다짐이므로 글쓴이의 자아 성찰을 가로막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고난도 복합 02 제망매가/만전춘별사/봄이 왔다 하되~/이론 본문 096~097쪽

정답의 근거·1번 누이의 죽음에 따른 슬픔이 드러남

가 생사(生死) 길은
살과 죽음의 강철길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여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간다는 말도
죽음 누이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의 요절 암시
이에 저에 ㉠ 떨어질 것처럼
누이의 죽음
한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 밑에서 헤어나고
가는 곳 모르온제.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강한사 극락세계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슬픔의 종교적 승화와 재회의 기약

生死路隱
생 사 로 은
此矣有阿米次勝伊遣
차 의 유 아 미 차 힐 이 건
吾隱去內如辭此都
오 은 거 내 여 사 질 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 기(1~4구): 누이의 죽음
모 여 은 건 거 내 니 질 고 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於內秋察早隱風未
어 내 추 찰 조 은 풍 미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차 의 피 의 부 랑 락 시 업 여
一等隱枝良出古
일 등 은 지 랑 출 고
去奴隱處毛冬乎丁 ▶ 서(5~8구): 누이의 죽음으로
거 노 은 처 모 동 호 정 느끼는 인생무상
阿也彌陀刹良逢吾
아 아 미 타 찰 랑 봉 호 오
道修良待是古如 ▶ 결(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도 수 랑 대 시 고 여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나 어름 우희 땃넋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당
죽지 않을 잠자리(차가운 이미지)
어름 우희 땃넋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당

정(情) 둔 오늻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임과 정을 나눌 → 상황의 변화 ▶ 1연: 임과 오래 함께 있고 싶은 소망

정답의 근거·1번
임이 떠난
후의 외로움
이 드러남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주미 오리오,
이별하여 홀로 잠자리에 누워 있는 화자
서창(西窓)을 여러 하니 ㉠ 도화(桃花) 발(發)호도다.
정답의 근거·2번 화자의 처지와 대비됨
정답의 근거·3번 의인법을 사용하여 도화의 행위를 표현함
도화(桃花)는 시름 업서 소춘풍(笑春風)호느다 소춘풍호느다.
버림받은 화자를 비웃고 있다고 여길 ▶ 2연: 임이 떠난 후의 외로움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경(景) 너기다니
‘: 「적과적」의 구절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져라 아요’와 유사함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경(景) 너기다니
지내겠다고
벼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여기 사람이 ▶ 3연: 임에 대한 원망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연약한, 어련 일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하니 여흘도 도하니.
일의 방랑한 생활 ▶ 4연: 임의 방랑한 생활 풍자

남산(南山)에 자리 보와 옥산(玉山)을 베퍼 누어 □: 파푼한 잠자리들 의미하는 시어
파푼한 온돌 옥베개
금수산(錦繡山) 니블 안해 사향(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비단 이불 사향이 든 주머니, 아름다운 각시

남산에 자리 보와 옥산을 베퍼 누어
금수산 니블 안해 사향 각시를 아나 누어
정답의 근거·3번 정유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냄
약(藥)든 가슴을 맞초압사이다 맞초압사이다.
임과의 잠자리를 상상하는 화자 ▶ 5연: 임에 대한 욕망과 상상

아소 님하, 원대평생(遠代平生)에 여힐 살 모라압새.
강한사 이별할 줄 모르고 지냈사 ▶ 6연: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지금필수 감/상/전/락

가 제망매가

1 화자를 파악하자!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시어	의미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
떨어질 잎	누이의 죽음
(한) 가지	한 부모, 같은 핏줄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예	미타찰
• 이승 • 누이와의 이 별	→ 극락세계 • 누이와의 재 회
자연의 질서 → 슬픔	종교적 신념 → 극복

나 만전춘별사

1 화자를 파악하자!

임과의 (이)별로 고통을 느끼며, 임에 대한 사랑과 욕망을 드러내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도)화(객관적 상관물)
시름이 없어 봄바람에 웃음
↓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화자의 근심을 더욱 심화시킴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어름 우희 땃넋자리	극한 상황 설정
↕ 대비	
정(情) 둔 오늻 밤	뜨거운 사랑

→ 극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차가운 이미지와 대비된 임에 대한 화자의 뜨거운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다 봄이 왔다 후되~

1 화자를 파악하자!

임과의 이별로 상심한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봄	화자의 애상감을 자극하는 배경
프른 버들	의인화된 대상으로, 화자와 대조되는 자연물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화자	프른 버들
봄이 온 소식을 모를	봄이 온 소식을 알고 있음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임과의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함	

다 봄이 왔다 후되 소식을 모로더니

넋7에 프른 버들 네 묻져 아도괴야,
 어즈버 인간 이별을 쏘 엇지 후는다.

애상감을 자극하는 배경
 정답의 근거: 3번 의인법을 사용하여 버들에게 말을 건넨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
 정답의 근거: 3번 색채어를 통해 계절감을 표현함
 정답의 근거: 4번 화자가 처한 상황
 종장에 감탄사가 사용됨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 신흠

라 고려 중엽에 태동하여 조선 시대 내내 집중적으로 창작, 가창되었던 노래 양식인 시조의 연원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향가 기원설과 고려 가요 기원설을 들 수 있다.

▶ 시조의 연원에 대한 여러 학설

먼저, 향가 기원설은 신라 시대의 「제망매가」 같은 10구체 향가가 대개 세 개의 의미 단락 구조로 이루어지고 끝 단락인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내용 전개에 따라 정서가 고조되는 점 등이 시조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 시조의 연원에 대한 학설 ① - 향가 기원설

한편 고려 가요 기원설은 고려 가요 중에서도 「만전춘별사」 같은 작품이 지닌 특성으로부터 시조의 율격적, 형식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학설이다.

이외에도 시조가 백제 가요 「정읍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두 줄 형식의 민요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 한시(漢詩)의 한 종류인 절구(絕句)로부터 왔다는 설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다.

▶ 시조의 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제기됨

- 경경(耿耿):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염려가 됨
- 소춘풍(笑春風) 후느다: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을 희롱하는구나
- 율하: 오리아
- 비율하: 비오리아
- 소콧: 소마저('소'는 늪)
- 사향(麝香):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하여 얻는 향료. 어두운 갈색 가루로 향기가 매우 강함
- 원대평생(遠代平生): 평생토록, 영원히

1 ① 2 ② 3 ④ 4 ④

가 제망매가(祭亡妹歌) _ 월명사

해제: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부른 10구체 향가이다. 혈육의 죽음을 개인의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불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 승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또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향가 중에서도 문학성과 서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극복 의지

나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_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강렬한 사랑을 진솔하게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허식이 없고 감정의 표출이 직설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쌍화점」, 「이상곡」과 함께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詩)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원제목은 '만전춘'인데 조선 시대에 윤희(尹淮)가 지은 가사인 「만전춘사」와 구별하기 위해 '만전춘별사'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한편 2연과 5연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시조의 형식과 유사한 면이 많아 이 작품을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주제: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

다 봄이 왔다 후되 ~ _ 신효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의 무심함과 대비하여 인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이다. 화자는 봄을 맞이하고도 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이별의 슬픔을 겪고 있다. 시름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되는 무심한 자연물인 푸른 버들의 모습을 제시하여 인간사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초장에서 화자는 봄이 왔음에도 봄이 온 소식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는 종장에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시상 전개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주제: 이별로 인한 슬픔

라 이론

해제: 이 글은 시조의 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음을 밝힌 후,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학설인 향가 기원설과 고려 가요 기원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는데 사실과 함께 시조의 연원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시조의 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 있고, (나)의 2연에는 임이 떠난 후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애상적 분위기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는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나기 위해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 역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회의적 태도를 환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의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이 담긴 초월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초월적 공간을 찾을 수 없다.

⑤ (가)~(다)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개선된 삶의 양상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알아 두기

「제망매가(祭亡妹歌)」의 배경 설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49재를 지내던 중 이 향가를 지어 부르자 문득 광풍(狂風)이 불어 죽은 자에게 주는 노자인 지전(紙錢)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설화를 통해 향가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주술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사상을 알 수 있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떨어질 앞’은 한 가지에 나고서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지는 것들이다. 이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혈육 간의 이별을 경험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달리 ‘도화’는 이별의 슬픔으로 봄이 왔는지도 모르는 화자와 달리 봄이 온 소식을 알고 시름 없이 웃고 있는 존재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외로움과 슬픔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떨어질 앞’은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며, ‘도화’ 역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떨어질 앞’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며, ‘도화’ 역시 화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떨어질 앞’은 화자의 삶을 운명하게 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화’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화자의 근심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화자의 삶을 서글프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떨어질 앞’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시어로, 누이의 죽음은 곧 화자의 슬픔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는 화자의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화’는 화자에게 삶의 희망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자의 근심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

알아 두기

「제망매가(祭亡妹歌)」의 의미 구조

「제망매가」의 의미 구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4구에서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정서적 반응이 그려져 있고, 5~8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단순히 혈육의 죽음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보편의 문제로 승화시켜 생사에 대한 화자의 깊은 통찰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9~10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된 생사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에 기대어 극락왕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생사의 문제를 초극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이의 죽음은 화자의 정서적, 의지적 노력을 거쳐 종교적인 승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인 사유 과정을 통해 세 의미 단락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인생의 심오한 주제를 시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3 표현상의 특징

(다)에서는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의 ‘프른 버들’은 봄이 온 소식을 알고 있는 존재로,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여 봄이 온 줄도 모르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물이므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어느 주미 오리오’는 ‘어찌 잠이 올까나’라는 의미로 임 생각에 잠 못 드는 화자의 처지 및 상황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각한 것이다.

② (나)의 ‘맞초압사이다’는 ‘맞춤시다’의 의미로, 화자는 청유형 문장 표현을 통해 임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냇가에 늘어진 ‘프른’ 버들의 모습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2연에서는 ‘도화’가 시름이 없이 봄바람에 웃는다며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다)의 종장에서는 ‘네 몬져 아도괴야’라고 하며 의인화된 청자 ‘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알아 두기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조선 전기의 학자들이 고려 가요를 낮추어 부른 명칭이다. 고려 가요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노래가 많았는데,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시(國是)와 유교적 안목으로는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를 비방하는 뜻으로 남녀상열지사(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래)라 부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고려 가요가 망실(亡失)되었고, 지금 전하는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만전춘(滿殿春)」 등도 원래의 가사에서 내용이 많이 수정되어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허식이 없고 감정과 정서의 표현이 매우 절절하며 평민들의 성정을 진솔하게 노래한 고려 가요의 문학적 특징이 낱은 비극으로 보기도 한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나)의 2연과 5연은 각각 ‘소춘풍흐느다 소춘풍흐느다’와 ‘맞초압사이다 맞초압사이다’처럼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다)의 종장은 시구를 반복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라)에서 설명한, 시조의 기원을 논함에 있어 고려 가요가 형식적 차원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나)의 2연이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5연 역시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점이 (다)와 같은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구성의 연원이 되었다는 학설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죽음의 허무함과 누이를 잃은 슬픔(1~4구),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5~8구),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9~10구)처럼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에서 설명한 향가 기원설에서는 이러한 10구체 향가의 3단 구성이 (다)와 같은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② (라)에서는 향가 기원설의 내용 중 하나로 ‘끝 단락인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가)에서 9구의 맨 앞에 놓인 ‘아아’가 시조 중 일부 작품에서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 경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다)에서 종장 첫 음보에 제시된 감탄사 ‘어즈버’에 해당한다.

③ (라)에서 설명한 고려 가요 기원설에서는 「만전춘별사」와 같은 고려 가요의 특성이 시조의 율격적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나)를 낭송해 보면 4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 가요 기원설에 따를 때 이 율격은 (다)와 같은 시조의 4음보 율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라)의 끝부분에서는 향가 기원설이나 고려 가요 기원설 말고도 시조의 연원을 찾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알아 두기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의 형식적 특징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로 이루어지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만전춘별사」의 2연과 5연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지우면, 3장 6구, 4음보라는 시조 형식의 기본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만전춘별사」를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고난도 복합 03 나무와 기계의 마음/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명태에 관한 추억

본문 099~101쪽

정답의 근거·1번 (가)는 '나무', (나)는 '겨울나무', (다)는 '명태'를 통해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가 깊은 산 협곡에서 산짐승과 산사람의

가파른 성품을 다독여 흐르는 물처럼 순치(馴致)시키던

나무들이,

천지 사방 눈 씻고 보아도 흠 한 줌 안 보이는

『색유리와 시멘트의 도시』

『』: 현대 문명의 상징 → 무생명성

거대한 빌딩 만질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이식되어 있다. 때아닌 돌풍이라도 몰아치면 쓰러질세라

몇 개의 지주목에 단단히 허리를 묶인 채.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연을 변형, 구속시키는 존재

▶ 1연: 대리석 바닥에 이식된 나무들의 모습

쌍쌍, 양옆으로 질주해 가는

날카로운 기계들의 굉음 속에서 불꽃 튀는 마찰을 일으키며

그악스레 기심(機心)을 품고 살던

나는 문득 저 검붉게 변색되어 가는 나무들에서

눈길을 땔 수 없다. 색맹의 눈알을 껌벅이며 회전을 멈춘

이 도시의 해와 달처럼 그 어디, 지향처가

보이지 않는다. 물과 산에 깃든 덕(德)을 버리고

안팎으로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을 따라

거대한 인간 뗏목에 동승한 내가 가 닿아야 할 곳은

▶ 2연: 변색되어 가는 나무처럼 지향처를 찾기 어려운 '나'

도대체 어디일까 목발을 짚고 선 듯

지주목에 기대어 마지막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는 저 가련한 길벗은

차라리 은둔하라, 은둔하라, 일러 주는 듯싶지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황색의 차선에 이미 들어선

나는, 쌍쌍 검은 사신(死神)의 위세에 맞물려 돌아가는

작디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구르고

잠시 품어 본 나무의 마음엔 목마른 톱밥만 가득 내려 쌓이고.

▶ 3연: 본래의 덕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의 삶 - 고진하, 『나무와 기계의 마음』

나 ㉠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현대 도시 문명의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전구의 불빛 자연의 생명력 (현대 문명)

▶ 1연: 겨울밤 가로수에 일제히 켜지는 수만 개 꼬마전구들

지급필수 감/상/전/탁

가 나무와 기계의 마음

1 화자를 파악하자!

대리석 바닥에 이식된 (나)를 바라 보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자연적 생명성	도시의 삭막함
깊은 산, 협곡, 산짐승, 물, 흠	색유리, 시멘트, 대리석

→ 자연적 생명성을 드러내는 시어와 도시의 삭막함을 드러내는 시어를 (대)조시켜 나무의 마음을 훼손하는 도시적 삶의 비인간성과 반생명성을 부각하고 있음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나무의 모습
소리대로 살던 나무들이 몇 개의 지주목에 허리를 묶인 채 도시 속 (대)리(석) (바)닥에 이식됨
순수한 본성과 덕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지향처도 보이지 않는 현대 문명에 매몰되어 욕망의 물결에 따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1 화자를 파악하자!

수만 개의 **코마전구**로 몸을 감고 있는 가로수들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겨울밤 광화문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어둠, 밤	안식과 휴식을 위한 시간
겨울	돌아올 봄을 준비하는 시간



긍정적 이미지

→ 일반적으로 시에서 '어둠, 밤, 겨울' 등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에서 '어둠, 밤, 겨울'은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았음. '어둠, 밤'은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안식'과 '휴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겨울'은 나무들이 새로운 봄을 준비하기 위해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광화문의 불꽃나무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인 밤을 휘황하게 밝힘



자연의 소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 - 현대 문명 비판



다가올 '봄'조차 비정상적인 것
같다는 염려

휴식, 종전의 시간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제거되어야 할 것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 현대 도시 문명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이승신 장군상

문단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 2연: 나무가 잠들 수 없게 불을 켜 놓은 권력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 자연 그 자체로 있지 못하는 도시 속 자연의 아픔을 표현함

㉠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 휴식을 취해야 할 겨울나무들이 인위적인 문명에 의해 착란에 빠짐(자연 질서 파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 같지 않은 도시의 자연 상태. 비정상적인 상황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정답의 근거: 3연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존재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데 대한 불안감

▶ 3연: 교란당하고 있는 겨울나무와 사람들의 처지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다 내 친구 중에는 명태국을 안 먹는 자가 있어서 나는 일단 그를 경멸한다. 명태는 맛이 없는 생선이라는 것이다. 생선 맛이야 비린 맛일 터인데, 그놈은 비린 맛을 되게 좋아하는 놈이다. 사실 맨 북어포를 먹어 보면 알지만 숨을 쉰 것처럼 맛이 없긴 하다. 그런데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숨어 있던 북어살의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살아난다. 그래서 말이지만 명태가 맛이 없는 것은 우리 입맛에 순응하기 위한 담백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명태의 그 담백성을 몰개성적이라고 매도한다면 잘못이다. 생선은 비린 만큼 교만하다. 비린 생선들은 비린 그의 개성을 우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맛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명태는 맛에 대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들지 않는다. 쯤대도 없는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쯤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쯤대 없는 그의 본성 자체가 그의 쯤대인 것이다.

▶ 명태를 싫어하는 친구의 무지함을 비판하는 글쓴이

나는 여태껏 썩은 명태를 보지 못했다. 오늘날의 명태 말고, 냉동 산업과 운송 여건이 불비한 시절, 동해안에서 태산준령을 넘어 충청도 산읍 5일장의 어물전까지 실려 온 명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하다. 명태는 썩지 않는 철에만 잡히기 때문이다. 『명태는 바닷물이 섭씨 1도에서 5도가 되어야 산란을 하러 북태평양에서 동해로 떼지어 내려오는데, 그때가 명태의 어획기다. 부패의 철을 비켜서 어획기를 설정한 주체는 어부가 아니라 명태다. 가급적 주검을 부패시키지 않으려는 명태의 의지가 진화된 결과로 보고 싶다.』 어차피 그물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회유성(回游性)이 운명일 바에는 주검을 부패시켜 가지고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의 손길에

뒤채이며 어물전의 천덕꾸러기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게 명태의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다.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말이다. 명태가 들으면 ‘무슨 분해 속도가 빠른 것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속도가 빠르다 소리야, 썩으면 썩은 것이지-’ 하고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부패 직전의 살코기에서는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젖산을 발생시켜서 구수하고 단맛을 낸다는 요리학적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건 숙성을 뜻하는 것이지 부패를 이룬 말이 아니다. 자연에서 생선의 숙성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숙성을 보존하는 것은 기술이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리사의 몫이지 준치의 몫이 아니다.

‘썩어도 준치’란 말은 꼭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의 뻔뻔스러운 변명** 같아서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준치는 4월에서 7월까지 **부패가 촉진되는 철에** 잡힌다. 제 주점의 선도(鮮度)에 대한 대책도 없는 주제에 ‘썩어도 준치’라니, 명태에 비하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본성이다.

보릿고개가 준치의 어획기다. 배가 고프는 백성들은 준치의 어획을 고마워하며 먹었으리라. 어쩌다 숙성된 준치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대개 썩은 준치를 먹고 삶의 비애를 개탄하는 마음으로 짐짓 ‘썩어도 준치’라고 역설적인 감탄을 했을지 모른다. 얼마나 우리들의 슬픈 시대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감탄구인가.

명태는 무욕으로 일관한 제 생의 담백한 육질을 신선하게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 명태와 달리 부패가 촉진되는 철에 잡혀 썩어버리는 준치 **보**시했다. 명태는 **제 속을 비워 창난것과 명란젓**을 담게 하고 몸통이만 바닷가의 덕장에서 바닷바람에 말려 북어가 되고, 대관령 너머 눈별판의 덕장에서 **더덕북어**가 되었는데, 알다시피 제상의 좌포(左脯)로 진설되거나, 고사상 떡시루 위에 실타래를 감고 누워 사람들의 국궁 재배(鞠躬再拜)를 받는 귀물(貴物)로 받아들여졌다.

명태를 생각하면 언뜻 늦가을 텃밭의 황토 흙에 하반신을 묻고 상반신을 햇살에 파랗게 드러낸 채 서 있던 청정한 조선무가 떠오른다. 그 **순박무구하고 건강**하기가 과년한 산골 큰애기 같은 조선무가 없으면 명태의 담백한 맛을 살려 내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산골 동네 텃밭에서 그 청정한 무가 가으내 담백한 맛의 진수를 보여 주려고 뼈무르면서 명태를 기다렸다.** 순박한 무와 단백한 생선의 만남, 그야말로 산해가 진미로 만나는 것이다. ▶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간에게 보시하는 명태

▶ 청정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태

- 목성균, 「명태에 관한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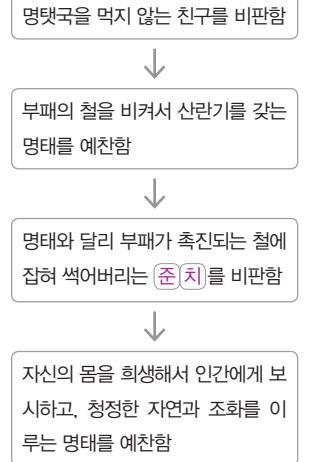
- 순치(馴致): 목적인 상태로 차차 이르게 함
- 기심(機心): 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마음
- 태산준령(泰山峻嶺): 큰 산과 험한 고개
- 어획기(漁獲期): 고기잡이에 적당한 시기
- 글리코겐(glycogen): 동물의 간장이나 근육 따위에 들어 있는 동물성 당질
- 보시(普施): 은혜를 널리 베풀
- 더덕북어: 얼어서 부풀어 올라 더덕처럼 마른 북어

다 명태에 관한 추억

1 인물을 파악하자!

(명태)의 본성에 대해 생각을 하는 글쓴이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명태의 본성
• 교만하거나 아집을 부리지 않음 • 부패하지 않고, 청(淸)렴(廉)결(潔)백(白)하게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명태와 달리 썩은 준치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현실을 한탄함

정답의 근거·4번

청정함과 담백함이 어우러지는 맛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인 시각

고난도 복합 03

본문 099~103쪽

1 ④ 2 ③ 3 ④ 4 ⑤

가 나무와 기계의 마음 _ 고진하

해제: 이 작품은 기계와 문명에 익숙해짐에 따라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반성한 시이다. 나무가 대리석 바닥에 이식되어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듯이 인간도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 때문에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차라리 먼 시골로 숨어 은둔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어 본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삶은 도시 문명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과 본래의 순수한 덕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반성

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_ 이문재

해제: 이 작품은 인간이 이룩한 도시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리와 꼬마전구로 장식된 나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겉보기에 휘황한 그 불꽃과 나무 장식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도시 권력이 만들어 내는 휘황찬란한 풍경 앞에서 자연의 가치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현대의 불모성을 꼬집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본 현실의 모습,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과 그 속에 존재하는 우리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다 명태에 관한 추억 _ 목성균

해제: 이 작품은 명태의 본성을 밝히고, 이를 사람들의 성향에 비유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한 수필이다. 명태는 교만하거나 아집을 부리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명태의 본성에 대해 글쓰는 이는 예찬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편 글쓰는 이는 이런 명태와 같은 본성 대신, 썩은 준치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며, 나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명태의 고결한 성품에 대한 예찬

작품 전체 보기

전반부	1	명태를 사 가지고 오셨던 아버지
	2	명태를 사 가지고 오며 떠올린 아버지
	3	명태국에 대한 단상
	4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후반부	1	명태를 싫어하는 친구의 무지함을 비판하는 글쓰는 이
	2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산란을 하러 동해로 내려오는 명태
	3	명태와 달리 부패가 축진되는 철에 잡혀 썩어버리는 준치
	4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간에게 보시하는 명태
	5	청정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태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대리석 바닥에 이식되어 있는 '나무'를 통해, (나)는 밤에도 환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는 '겨울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다) 역시 '명태'와 대비되어 썩은 준치처럼 부패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이처럼 (가)~(다)는 모두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자연의 모습과 도시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고, (다)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명태와 쉽게 부패하는 준치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서는 기계와 문명에 익숙해짐에 따라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을, (나)에서는 인간이 이룩한 도시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다)에서는 썩은 준치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구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다)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나)의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현대 도시 문명의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구이지만, (가)와 (다)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고진하의 「나무와 기계의 마음」은 인공물로 가득한 도시에 옮겨진 나무를 통해 문명의 이기 뒤에 자리한 도시적 삶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휘둘러 대리석 바닥에 이식된 나무가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렸듯, 인간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시 문명의 굴레에 갇혀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인간은 자연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인간 역시 검붉게 변색된 나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임」을 시인은 경고하고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나무와 기계의 마음」에 제시된 '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본래의 덕성을 잃고 검붉게 변색된 나무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화자 역시도 거대한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채 방향성을 잃고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향처가 보이지 않고' '가 닿아야 할 곳'도 모르겠다고 한 것은 나무와 같이 덕성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을 굴복시키려는 인간의 의지가 꺾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의 욕망 때문에 '흙 한 줌 안 보이는' 도시에 옮겨진 나무는 도시 문명의 굴레에 갇혀 본래의 덕성을 잃어버렸다.

- ② '색유리와 시멘트의 도시', '거대한 빌딩' 등은 인간이 만들어 낸 도시 문명의 산물이다.
- ④ '지주목에 기대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가련한 길벗'인 나무들의 모습에서 결국 인간의 운명도 검붉게 변색된 나무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인은 경고하고 있다.
- ⑤ 벗어날 수 없는 '작디작은 톱니바퀴'는 인간이 도시 문명의 굴레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 ㉡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가 졌는데도 거리는 어두워지지 않고, 겨울이 되었는데도 나무들은 켜 놓은 전구들 때문에 잎이 없이도 광합성을 하고 있다. 사람들 역시도 '광화문 겨울나무'처럼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화문 겨울나무'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격화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 현대 도시 문명의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풍경으로 볼 수 있다.
- ②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도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것이다.
- ③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다가오는 봄'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상한 광합성', '교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4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선생님: 수필은 작가가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개성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글로, 그를 통해 글쓴이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의 글쓴이는 『명태의 생태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는 개성적인 시각으로 명태에서 발견된 다양한 가치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보기 노트

〈보기〉는 수필의 개념 및 특성,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태는 비리지 않고 담백한 맛을 지녔다. 글쓴이는 이러한 담백한 맛을 황토 흙에 하반신을 묻고 상반신을 햇살에 드러낸 채서 있는 '청정한 무'가 살려 준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글쓴이는 청정한 무가 담백한 맛의 진수를 보여 주려고 가을 내내 명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이는 청정함과 담백함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맛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인 시각이지, 순수한 생명력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 내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명태의 비리지 않은 담백한 맛을 명태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개성이라고 하면 남과 다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글쓴이는 '죽대 없는 그의 본성 자체가 그의 죽대'라고 말하며 개성이 없는 것이 명태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므로 여기에는 개성에 대한 글쓴이의 새로운 시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② '바닷물이 섭씨 1도에서 5도가 되어야 산란을 하러' 오는 것은 명태의 생태이다. 이러한 명태의 생태를 명태의 주제적 면모와 연결시킨 것은 글쓴이의 개성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씩어도 준치'라고 말하는 것을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의 뻥뻥스러운 변명'으로 여기며, '제 주검의 선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주제에 '씩어도 준치'라'고 불리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제 속을 비워 '창난젓과 명란젓'을 담게 하는 명태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보신한다고 보았다. 즉 이를 통해 글쓴이는 명태의 무욕의 가치를 발견하였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고난도 복합 04 명년 삼월에~ / 매호별곡 / 별

● 지금 필수 감/상/전/탁

가 명년 삼월에~

1 화자를 파악하자!

오지 않는 입을 그리워하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감정 이입의 대상

귀뚜라미

기러기

화자의 그리

움과 근심을

드러냄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덧없이 흐르는 시간

- 푸른 버들가지가 누렇게 변함
- **앵두꽃**이 피었다 짐



화자

긴 밤 내내 잠 못 이루고 입을 그리
워함

나 매호별곡

1 화자를 파악하자!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풍류**를 즐기
는 사람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 망망 속물은
안중의 **진**
애로다
- **기**심을 이
젓거니 어조
나 날 뒤출라

속세에서 벗
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화
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매호 마을의 아
름다운 경치를
예찬함독서로 성현의
도리를 공부하
고, 아름다운 자
연을 즐기며 살
아감

만족감

가 명년(明年) 삼월(三月)에 온다고 하더니, 명년이 끝이 없고 삼월도 끝이 없다.
일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
 ⑦ 푸르고 푸른 버들가지 누렇게 되었으니, 푸르고 누렇게 변한 것이 몇 번이

며, 창밖의 앵두 붉었으니, 꽃이 피었다 진 것이 몇 번이나. 한단지몽(邯鄲之
고사의 인용
 夢) 빌려다가 장주(莊周)의 나비 만들어 꿈속에서 서로 만나자고 하였더니, 동
일과의 재현에 대한 소망
 지 긴 밤 길고 긴 밤에 전전반측(輾轉反側) 잠 못 이루어 꿈에서 깨지 않음이
그림이 실화되는 시간
 몇 밤인가.

지금에 방의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푸른 하늘에 뜬 **기러기** 소리 이내 근심과

희포로다.

일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

정답의 근거 1번 여러 해가 지나도 입이 오지 않음

▶ 초장: 입이 오지 않음

▶ 중장: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종장: 입을 기다리는 마음

- 작자 미상

나 십리 어촌(十里漁村)은 연수(煙樹)로 장점(粧點)하니

임호(臨湖) 안계(眼界)와 어풍(御風) 승개(勝概)를

매호 마을에 들어가 지은 일출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
 말노 다 이르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고

설의법
 그는 3니와 사시(四時)에 보이는 경이

피여 디는 듯 푸르러 이우는 듯

천암(千巖)이 금수(錦繡)된 듯 만학(萬壑)이 경요(瓊瑤)된 듯

대구법

화공(畫工) 솜씨를 측량(測量)키 어려워라

화공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경치가 아름다움

본다고 싫증이 나며 바뀔 모습을 거둬들까

▶ 1~8구: 임호정, 어풍대에서 바라보는 산천의 아름다움

늪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결론한 해도
 세정(世情)도 몰락고 인사(人事)의 우환(迂闊)하니

세상의 인심, 험편
 공명부귀(功名富貴)도 구하기에 **손**이 낮설어

익숙하지 못할
 빈천 기한(貧賤飢寒)을 일생(一生)에 격거 이서

한자의 가난한 삶
 낙천지명(樂天知命)을 옛날에 잠깐 들었더니

안빈낙도(安貧樂道)
 산수(山水)에 벽(癖)이 있어 우연(偶然)히 드러오니

천석고향(泉石膏肓)

득상(得喪)도 모를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득실(得失)

시비(是非)를 못 듯거니 출척(黜陟)을 어이 알코

대구법

환도 소연(環堵蕭然)하니 용슬(容膝)을 하듯 말듯

두실 잠적(斗室岑寂)하니 세려(世慮)를 이저시니

황권 성현(黃卷聖賢)은 세상에 드문 스승이며

천지신명(天地神明)은 방촌(方寸)의 비최시며

성분 품수(性分稟受)를 저바리지 마자 하니

가난한 생활에도 분수를 지키고자 함(안분지족(安分知足))

소사 수음(蔬食水飮)도 잊든지 못 잊든지

단사음(單食飮)

고인 진락(古人眞樂)이 정중(靜中)에 김혀서라 <중략>

▶ 9~23구: 가난함 속에서도 독서로 옛 성현의 마음가짐을 배우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

산림(山林)이 적막(寂寞)한데 헤어든 다스흔 듯

고운(孤雲)을 보거나 독오(獨鳥)는 무슴 일고

명월청풍(明月淸風)은 함씩 조차 드노미라

팽다(烹茶)를 호오리라 송자(松子)를 주어 노코

출주(兪酒)를 거른 후의 갈건(葛巾)을 아니 널나

㉠ 계변(溪邊) 든 잠을 수성(水聲)이 끼오느 듯

죽림(竹林) 깃흔 곳이 손니 조차 오노미라

㉡ 시문(柴門)을 열치고 낙엽(落葉)을 밧비 쓸며

이끼 낀 바회에 기대어 안즈 보며

그늘진 송근(松根)을 베고도 누어 보며

한담(閑談)을 못 다 그쳐 산일(山日)이 밧겨시니

심승(尋僧)을 언제 홀고 채약(採藥)이 저물거다

정답의 근거·4번 더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나타남
그도 번거로워 썰치고 거러 올라

만리 쌍모(萬里雙眸)를 치드러 도르 보니

* 낙하 고목(落下孤鶩)은 오며 가며 단니거든

망망 속물(茫茫俗物)은 안중(眼中)의 진애(塵埃)로다

㉢ 기심(機心)을 이젧거나 어조(魚鳥)나 날 디홀라

정답의 근거·3번 기회를 엿보는 마음 『』: 세속적 욕망을 떨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 태기(苔磯)에 내려 안즈 백구(白鷗)를 밧을 삼고

와분(瓦盆)을 거우려 취토록 혼즈 먹고

흥진(興盡)을 괴약하여 석양(夕陽)을 보닌 후의

강문(江門)의 달이 올라 수천(水天)이 일식인 제

만강 풍류(滿江風流)를 한 비 우의 시러 오니

* 표연 천지(飄然天地)에 걸닌 고디 무슴 일고

두어라 이령 성그러 종로(終老)흔달 어이 흐리

성의법(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 24~47구: 산중에서의 한가로움과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

- 조우인, 「매호별곡(梅湖別曲)」

다 무슨 글자를 보느라고 옥편을 뒤지다가 ‘별 성(星)’ 자를 보았다. ‘성(星)’ 자를

보고 생각하는 동안 문득 별에 대한 정다움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별을 못 본 지 얼마나 오래인지 별의 빛깔조차 기억에 희미하다. 보려면 오늘 저녁이라도 뜰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 있을 것이건만.

『밤길을 다니는 일이 적은 나요, 그 위에 밤길을 다닌다 해도 위를 우러러보는 일

이 적은 데다가 고층 거루가 즐비하고 전등불이 휘황한 도회지에 사는 탓으로 참

별을 우러러본 기억이 요연(窳然)하다.』 물론 그 사이에도 무의식적으로 별을 본 일

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별을 본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보았겠는지라 별

별을 보아야겠다는 의지

다 별

1 인물을 파악하자!

어린 시절과 달리 별을 잊고 살아가는 글쓴이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우연히 옥편에서 ‘별 성(星)’ 자를 봄



별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곤 했던 과거를 떠올림



별을 보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



자신의 삶을 반성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별을 바라보는 여유를 잃은 현대인의 삶을 사는 글쓴이

자기반성 및 순수함을 잃고 사는 현대인의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을 의식한 기억은 까맣다.

▶ '별을 본다'라는 의식을 잊었음을 자각함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② 여름날 뜰에 모여서 목청을 돋우며 세어 나가던 그 시절의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변함은 없을 것이며, 그 뒤 중학 시대에 음울한 소년이 탄식으로 우러러보던 그 시절의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며, 또는 그 뒤 장성하여 시적(詩的) 흥취에 넘친 청년이 마상이를 대동강에 띄워 놓고 거기 누워서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탄미하던 그 별과 지금의 별이 변함이 없으려면,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날이 흐려서 하루 이틀만 별이 안 보이더라도 마음이 조조(躁躁)하여 마치 사랑을 따르는 처녀와 같이 안타까워했거늘, 지금 이렇듯 별의 빛깔조차 잊어버리도록 오래 별을 보지 않고도 그다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 나가는 이 심정은 어찌 된 셈일까.

▶ 어린 시절과 달리 별을 보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현재

세상만사에 대하여 이전 흥분과 감동을 잊었다. 혹은 별을 보고 싶은 감정이 생기지 못하도록 현대인의 감정이란 뻑뻑하고 기계적인 것인가. 지금도 별을 우러러보면 옛날의 그 시절과 같이 괴롭고도 즐거운 감동에 잠길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등만큼 밝지 못한 것이라고 경멸해 버릴 만큼 마음이 변했을까.

정답의 근거·1번

별을 우러러보던 일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남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저녁에는 꼭 다시 별을 우러러보려 한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그냥 이 마음이 그대로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③ 날이 춥다는 핑계가 있고, 바쁜 원고가 많다는 핑계가 있고, 그 위에 오늘이 음력 팔일이니 그믐 별이 아니고야 무슨 흥취가 있겠느냐는 핑계도 있고 하니, 어찌 될는지 의문이다.

정답의 근거·2번

순수함과 여유를 가지고 별을 바라보던 추억

④ 보면 날이 새고 안 보면 문득 솟아오르던 별. 저 별은 장가를 가지 않는가 하고 긴 밤을 지키고 있던 별. 내 별 네 별 하여 동생과 그 광휘를 경쟁하던 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 다시 잠 못 자는 한 밤을 별을 우러러 보며 새우고 싶다. 그러나 ⑤ 현 시대의 생활과 감정이 너무 복잡다단함을 어찌하랴. 별을 쌀알로 보고 싶을 터이며, 달을 금덩이로 보고 싶을 테니까. 이런 감정으로는 본다 한들 아무 감흥도 없을 것이다.

정답의 근거·3번

번잡한 생활 속에서 물질적인 사고에 젖어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안타까움

▶ 과거의 감성을 잊고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씁쓸함

- 김동인, 「별」

- 연수(煙樹): 연기나 안개, 구름 따위에 싸여 뽕알고 멀리 보이는 나무
- 우환(迂闊):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름
- 환도 소연(環堵蕭然): 좁은 방이 쓸쓸함
- 두실 잠적(斗室岑寂): 작은 방이 적막함
- 황권 성현(黃卷聖賢): 책 속의 성현 말씀
- 성분 품수(性分禀受): 타고난 성품
- 낙하 고목(落下孤鶯): '落霞孤鶯'의 오기. 저녁노을에 외로운 따오기
- 기심(機心): 기회를 엿보는 마음
- 표연 천지(飄然天地): 아득한 천지
- 장점(粧點): 좋은 땅을 가리어 집을 지음
- 출척(黜陟):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
- 용슬(容膝): 장소가 좁아 겨우 움직일 수 있음
- 세려(世慮): 세상의 근심
- 방촌(方寸): 마음을 이르는 말
- 소사 수음(疏食水飮):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심
- 진애(塵埃): 티끌과 먼지
- 태기(苔磯): 낚시터
- 거루: 건물

1 ② 2 ⑤ 3 ⑤ 4 ④

가 명년(明年) 삼월(三月)에 ~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꿈속에서라도 임을 보고 싶지만 잠을 이룰 수 없어 그마저도 할 수 없다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이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오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여 임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한 그리움

나 매호별곡(梅湖別曲) _ 조유인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은퇴 후에 은거하고 있던 경북 상주 매호리에서의 삶을 그린 것으로,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정경이 잘 드러나 있는 가사이다. 3단 구성으로 서사에서는 관직을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살겠다는 뜻을, 본사에서는 임호정, 어풍대를 짓고 거기서 바라보는 산천의 아름다움을, 결사에서는 안빈낙도하는 삶과 자연에서 즐기는 소탈한 흥취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사림(士林)의 내용과 형식을 따르는 가사로, 묘사가 섬세하고 치밀하며 어휘 구사가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주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삶

작품 전체 보기

서사 (序詞)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 묻혀 살겠다는 뜻을 노래함	수록
본사 (本詞)	낙동강 서안(西岸)에 있는 매호 마을에 들어가 임호정(臨湖亭)과 어풍대(御風臺)를 짓고 거기서 바라보는 산천의 아름다움을 유려한 필치로 묘사함	
결사 (結詞)	안빈낙도(安貧樂道)와 독서공리(讀書窮理)로 옛 성현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생활을 하는 한편, 거문고와 술을 벗삼아 율적한 심정을 달래며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흥겨운 삶을 노래함	

다 별 _ 김동인

해제: 이 작품은 도시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별을 본다는 의식조차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린 시절 별을 볼 때의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다시 별을 우러러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수필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별에 대한 상념을 통해 현재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의 바탕이 되는 것은 글쓴이가 어릴 적 가졌던 순수한 동경과 청년 시절에 품었던 정열과 흥취를 모두 상실한 데에서 오는 반성이다. 글쓴이는 어릴 때는 별을 보지 못하면 초조해지기까지 했는데, 현재는 별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별을 다시 보고자 다짐해 보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삭막한 감성과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별을 제대로 우러러볼 수 있겠냐는 말에서 글쓴이의 씁쓸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잠깐이나마 삶을 돌아볼 여유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 생활의 여유를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는 내년 삼월에 온다고 한 임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려져 있다. (나)에는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화자의 강호한 정이 나타나 있다. (다)는 어느덧 도회지의 번잡하고 물질 중심적인 삶에 젖어 별을 바라보지 않고 지내게 된 현재의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에는 모두 특정 대상(사랑하는 임, 별을 바라보던 삶)이 부재 또는 상실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염원은 드러나지만, 임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어떤 대상과 재회하리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화자는 이미 자연을 즐기고 있으며, 이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글쓴이는 '별'을 바라보는 여유를 되찾길 바랄 뿐이지, '별'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 모두 자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에는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강호가도를 지향하고, (다)의 글쓴이는 도시 속에서 다시 여유를 찾고 순수하게 별을 우러러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할 뿐,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은 예전에 별을 바라보던 추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의 순수함이나 여유를 되찾고 싶다는 글쓴이의 바람이 담겨 있을 뿐, 유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푸르고 푸른 버들가지 누렇게 되었으니'라고 하여, 색의 변화를 통해 시간이 그만큼 흘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푸르고 누렇게 변한 것이 몇 번이며'를 통해 몇 해가 흘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계곡에서 든 잠을 물소리가 깨운다.'는 의미로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은 열거를 통해 사립문 열기, 낙엽 쓸기, 이끼 낀 바위에 앉기,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눕기,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이야기 나누기 등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④ ㉣은 지난날 순수했던 글쓴이가 보았던 과거의 별과, 도회지의 삶에 익숙해져 여유를 잃어버린 글쓴이가 보지 않는 현재의 별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나)에서 화자는 '기심(機心)'을 잊으니 '어조(魚鳥)' 즉 '물고기와 새가 자신을 대할까'라고 했다. 여기서 '기심'은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속세에서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다)의 글쓴이는 별을 바라보며 살고 싶지만, '현 시대의 생활과 감정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별을 쌀알로 보고 싶을 터이며, 달을 금덩이로 보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으로는 별을 본들 아무 감흥도 없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세속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기심'은 속세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②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별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로 인해 별을 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⑥가 현실에 대한 미련을 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기심'이 속세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냉정한 세태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다)에서 '현 시대의 생활과 감정'이 현실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것이 변덕스러운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

③ '고답적'이란 '속세에 초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므로 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②와 ⑥에 인위성의 여부를 가릴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알아 두기

「별」의 창작 배경과 도시화 현상

이 글의 글쓴이는 별을 보지 않게 된 원인으로 생활 습성, 휘황한 도회지에 사는 까닭, 현 시대의 생활과 감정이 너무 복잡다단함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근대화의 한 측면인 도시화라는 사회 변동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창작되었는데, 일제는 식민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화 정책을 시행했다. 우리 민족의 생활 수준 향상과는 무관한 형태로 진행된 도시화 정책은 식민 통치하의 억압된 환경과 결합하여 작가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조선 시대에는 문학과 산수화에도 성리학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사대부들은 산수화를 감상하며 그림 속 은사(隱士)와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했는데, 16세기 문인 임숙영의 한 제화시(題畵詩)에 사대부의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난다. “기상이 한가롭고 숙연하여 적막함에 싫증을 내지 않는 듯 하니, 이 사람은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군자로구나. 내가 어찌 이 그림 앞에서 자신을 경계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화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를 「매호별곡」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제화시(題畵詩): 동양화에서, 그림의 제목과 관련된 시를 지어 화면에 적어 놓은 글

보기 노트

〈보기〉는 조선 시대 산수화의 특징을 설명한 글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화자가 '심승(스님을 찾음)'을 하겠다는 것은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적막한 산림에서도 할 일이 많다는 내용으로 볼 때 화자가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산림'에서 '명월청풍'을 즐기는 모습에서 은거하는 군자의 풍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② '고운', '독오', '고목'이 외로움과 관련된 말이므로, 화자가 적막한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음이 드러난다.

③ 화자와 '한담'을 나누러 온 '손'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은사로 화자와 동일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아득한 속세를 뜻하는 '망망 속물'을 눈 안의 티끌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고난도 복합 05 연행가 / 한바탕 올 만한 자리

본문 108~111쪽

가 하 오월 초칠일의 도강 날즈 정혀여네.

방물을 정검히고 ^{가을 건널} 횡장을 슈습혀여
^{사신이 중국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의주 부윤 나와 안고 다담상을 츠려 낚코,

삼 사신을 ^{침나랏로 가는 사신 일행} 전별홀시 ^{몹시 구슬프고 애달푼} 쳐창키도 그지없다.
 일비 일비 부일비^는 서로 안져 권고하고,
^{한 잔 한 잔 다시 또 한 잔, 이백의 시에 나오는 구절} 상스별곡 혼 곡조를 참아 듯기 어려워라.

▶ 1~7구: 송객정의 도착과 의주 부윤의 전별 잔치

장계를 봉헌 후의 썰터리고 이러나서,
^{나라를 떠나는 감회가 그지없어} 거국지회 그음업서 ^{아름다운 여인, 여기서도 기생}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정답의 근거: 3번} ㉠꽃눈물이 심회를 돕는다.

늑인교을 물너 노니 ^{가마} 장독교을 등디하고,

전비 토인 ^{가마 앞에 서는 하인} 흐직하니 일산 좌견뿐만 잇고,
 공형 급창 물려서니 ^{말에 다는 긴 고삐} 마두 서즈뿐이로다.
^{관아에서 부친던 사내중} 일엽 소선 ^{역마 일을 맡아 보던 사람과 각 역에서 일하던 배술아치} 비을 저어 ^{한 척의 작은 배} 점점 멀이 썩서 가니,

『푸른 봉은 첩첩혀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
^{점점이 쌓여} ^{『』: 나라를 떠나가는 쓸쓸한 감회를 대변하는 풍경} 벵운은 요요하고 광식이 참담하다.』

▶ 8~16구: 환송객들의 전송과 도강

비치 못홀 이니 마음 오날이 무슴 날고.

^{세상에 헤어날 지} 출세흔 지 이십오 년 시혀의 즈라나서
 『』: 침나랏로 들어가기 직전 화자의 실정
 평일의 이층혀여 오리 썩나 본 일 업다.

^{부윤의 결을 떠날} 반년이나 엇지홀고, ^{부윤 결을 떠나느 저} 이위정이 어려우며,
 경괴 지경 빅 니 밧기 먼길 단여 본 일 업다.

허박하고 약흔 기질 말 이 ^{여행의 괴로움} 횡역 걱정일세.』

흔 즐기 압록강의 양국지경 ^{두 나라의 경계} 난화스니,
 도라보고 도라보니 우리나라 다시 보즈.

▶ 17~24구: 떠나가는 배 위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과 행역에 대한 걱정

구연성 다다라서 ^{만주 압록강 연안에 있는 옛 성} 혼 고기를 너머서니
 앗가 보든 통군정이 그림즈도 아니 뵈고,
^{압록강변에 있는 저자} ^{조금} 줘금 뵈든 ^{조금} 빅마산니 봉오리도 아니 뵈다.

빅여 리 무인지경 인적이 고요하다.
 위험흔 만첩 산중 ^{나무가 뻗뻗하고 조밀한} 울밀흔 슈목이며
^{정답의 근거: 1번}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적막흔 시 소리는 처처의 구슬푸고,

혼가흔 들의 쫓춘 누을 위히 피엿는냐?
 앗갑도다, 이러한 쫓 양국의 ^{배달 땅에} 발인 ^{배달} 짜의
 인가도 아니 살고 전답도 엷다 ^{배달} 흐되
 곳곳지 김흔 골의 계전 소리 들이는 듯

● 지금필수 감/상/전/탁

가 연행가

1 화자를 파악하자!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견문}과
^{여정}을 기술하고 있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시구	화자의 심리
푸른 봉은 첩첩 혀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 / 빅 운은 요요하고 광식이 참담하 다.	주객전도와 감 정 이입의 수법 을 사용하여 고 국을 떠나는 화 자의 암담한 마 음을 드러냄
이위정이 어려 우며, ~ 우리나 라 다시 보즈.	^{부모} 결을 떠 나는 외로움과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 사신으 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 이 드러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여정	견문과 감상
압록강변 송객정	의주 부윤의 배웅을 받 고 작별함



압록강 도강	압록강을 건너면서 부 모에 대한 생각과 연행 길에 대해 걱정함
-----------	--



만주 구연성	무인지경(無人之境) 만 주 별판에서 적막과 두 려움을 느낌
-----------	--



봉황성	^{강제도} 의 실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열시} 의 시각도 드러남
-----	--

나 한바탕 울 만한 자리

1 인물을 파악하자!

청나라를 방문하여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감격하는 글쓴이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기	문	'나'가 요동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 터 라고 말함
		울고 싶다고 한 이유를 물음
승	답	모든 감정은 울음을 자아낸다고 답함
		칠정 중 어느 정에 따라 울어야 하는지 물음
전	답	갓난아이 가 넓은 세상에 나와 시원하게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 과 즐거움 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요동의 광활한 풍경을 살펴되며 통곡 할 만한 자리임을 확인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요동 벌판	
정 진사	'나'(글쓴이)
장관을 보고 감탄함	장관을 보고 울고 싶다고 함
↓	↓
일반적인 사고	독창적인 사고
일반적 통념에 따르는 칠정에 맞추어 반응함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모든 칠정은 극에 달하면 결국 울음 으로 통한다고 생각함

왕왕이 험험 산세 호포지환 겁이 난다. <중략> ▶ 25~35구: 구연성에서의 심회와 험한 산중의 두려움
끝없이 넓고 깊은 **호포지환(虎豹之患)**의 오기인 듯,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게 당하는 해(害)
십여 세 **처녀**들은 더운 밤에 나와 섰니

머리는 아니 짝고 혼 편 넓히 모하다가
스양머리 모양처럼 점점점점 잡아 미고,
꽃가지들 **쏘조**시니 풍속이 그러하다.

소소뱃발 늙은 년도 머리마다 치화로다.
무론 남녀 노소하고 담비들은 즐기인다.
팔구 세 이하라도 곰방단을 물어스며
하쳐라고 츠즈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오랑각 이 간 반의 벽돌을 곱게 깔고,
반 간식 **강을** 지어 좌우로 **던강**하니
강 모양 엇더터냐, 강 제도를 못 보거든,
우리나라 **붓두막**이 그와 거의 흡스하여,

그 밋히 구둘 노하 불을 씨게 마련하고,
그 우히 쓰리 펴고 밤이면 누어 즈며,

낮이면 **손님** 접던 걸터앉기 **가장 조코**,
친유호온 완즈창과 면회호온 벽돌담은
미천한 **호인**들도 집치레 과람코나.

나 『초팔일 갑신(甲申), 맑다.』

정사 **박명원(朴明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십여 리 남짓 가서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복(泰卜)**이
국궁(鞠躬)을 하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현신함을 아뢰오.”
한다.

태복이란 자는 정 진사(鄭進士)의 **말을 맡은 하인**이다. 산기슭이 아직도 가리어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
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내리락하여 현란**했다.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붙어 의지하는 데가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 터로다. 한바탕 울어 볼 만하구나!”

정 진사가,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계(眼界)**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오?”
하기에 나는,

▶ 36~40구: 처녀들과 할머니의 머리 모양

정답의 근거: 2번 만주인들에 대한 열사의 감정

▶ 41~52구: 청나라 사람들의 주거 형태 - 홍순학, 「연행가(燕行歌)」

1780년 7월 8일 『』: 일기체 형식임을 알 수 있음

1780년 7월 8일 박지원의 팔주 회으로 북경 사적단의 대표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이 드러남

몸을 굽힐

중국 요동 요양성 밖의 탑 『』: 곧 백탑이 보일 것임을 알림

백탑의 장관을 실감나게 표현함

『』: 넓은 광야를 보고 인간 존재의 왜소함에 대한 깨달음을 얻음

정답의 근거: 2번 광활한 요동 벌판에 대한 감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슬픔이 아닌 감격으로 울어 볼 만하다고 표현함 - 참신한 발상

▶ 요동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 터라고 생각함

정답의 근거: 3번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

“참 그렇겠네, 그러나 아니거든!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아직까지 그 울음 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 보진 못했소이다.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칠정(七情) 중에서 ‘슬픈 감정[哀]’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겁니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 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벽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오?”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 보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哀]’에다 울음을 짜 맞춘 것이요, 이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리어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서 감히 터져 나올 수 없소이다. 저 한(漢)나라의 가의(賈誼)는 자기의 울음 터를 얻지 못하고 참다못하여 필경은 선실(宣室)을 향하여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오.”

▶ 요동 벌판에서의 고조된 감정과 칠정의 작용에 대해 생각함

“그래, 지금 울 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요?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히 차 있을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랴?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런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환란·근심·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제 조문(弔問)을 제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겁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갑갑하고 엷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비로봉(毘廬峰) 꼭대기에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잡을 것이요,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사(金沙) 바닷가에 가면 한바탕 통곡할 ‘자

정답의 근거·1번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냄

정답의 근거·1번 설의적 표현 사용

정답의 근거·3번
갓난아이의 울음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기쁨

정답의 근거 1번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리'를 얻으리니, 오늘 **요동 별판**에 이르러 이로부터 산해관(山海關) 『일천이백 리』: 요동 별판의 모습을 참신하게 묘사함 - 비유
 까지의 **어간(於間)**은 사방에 도무지 한 점 산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만이 이 속에서 창망(蒼茫)할 뿐이니, 이 역시 **한번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겠소.”
 시간이나 공간의 일정한 사이
 예와 지금

▶ 요동 별판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확인함
 - 박지원, 『한바탕 울 만한 자리』

고난도 복합 05

본문 108~112쪽

1 ③ 2 ⑤ 3 ④ 4 ①

가 여행가(燕行歌) - 홍순학

해제: 이 작품은 고종 3년(1866)에 고종의 왕비 책정 사실을 청나라에 알리기 위한 사행(使行)에 참여한 홍순학이 130여 일 간에 걸쳐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다녀온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기행 가사이다. 노정(路程)이 자세하고 서술이 풍부하며 치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한 점 등이 돋보여 『일동장유가』와 함께 조선 후기 사행 가사(使行歌辭)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또한 가사 문학에서 양반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문이나 고사성어를 억제하고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풍부하고,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등이 비슷한 시기의 다른 가사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당대 기행 문학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행 문학의 수준을 한층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견문과 감상

작품 전체 보기

여정		견문
조선	한양, 평양, 의주	고국의 산천과 그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압록강 도강	작은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며 우리나라를 돌아봄
청나라	구연성, 온정평, 봉황성	청나라 사람들의 인상과 외양, 옷차림, 가옥 구조, 식생활, 가족 방식, 육아 방식, 농사와 길쌈 등 낯선 이국적 풍물을 소개함
	청석령	효종이 불모로 끌려 갔던 치욕에 분개하면 서 사내의 호기를 드러냄
	연경	문루(門樓)·사우(寺宇)·고적을 견문하고, 시장을 두루 참관하고 유명 인사를 만나 교류함

이 작품에는 '한양 → 평양 → 의주 → 압록강을 건넌 → 구연성 → 온정평 → 봉황성 → 연경'에 이르는 여정이 제시되며, 돌아오는 여정은 역순으로 반복됨

나 한바탕 울 만한 자리 - 박지원

해제: 이 작품은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한 뒤 쓴 기행문 『열하일기』 중 한 편으로, 만주 지방의 광야를 묘사한 여행기로는 최고작으로 손꼽힌다. 그는 요동 별판에 이르러 드넓은 세계를 만난 기쁨을 한바탕 울고 싶다는 독특한 발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천하의 장관인 광활한 광야를 보고 좋은 울음 터라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나름대로의 독

특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지원은 조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가 이 작품에서 장관을 접하게 된 기쁨의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의 표현인 동시에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요동 별판 자체의 묘사보다 글쓴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보고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겠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 대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적절한 비유가 돋보인다.

주제: 광활한 요동 별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적막한 시 소리는 처처의 구슬푸고, / 혼가혼 들의 쫓은 누를 위해 피었느냐?'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적막한 산중에서 느끼는 글쓴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오?',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오.',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울음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수양머리 모양처럼'에서 직유적 표현을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도 직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나)에서 중국 한(漢)나라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가의(賈誼)라는 인물을 제시하여 그가 정치적 폐단에 대한 상소문을 올린 일을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중국 고전의 인물을 활용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서 '푸른 봉은 첩첩하여 날을 보고 즐기는 듯'과 (나)에서 '백탑(白塔)이 현신함을 아뢰오' 등을 통해 의인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나)의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에서 '울게 되고'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울음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에서 '일비 일비 부일비'는 '한 잔 한 잔 다시 또 한 잔'이라는 의미로, 이백의 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청나라로 가던 도중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쓴 기행 수필 (가)는 1866년 홍순학이, (나)는 1780년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으로서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견문과 여정을 기록한 기행 가사를 여행하고 쓴 글이다. (가)와 (나)에는 여행을 함께하거나 배웅하는 인물, 시간과 공간 등의 여정, 이동 수단, 보고 들은 견문에 대한 서술과 작가의 느낌 등 기행문의 요소가 나타나 있다.

보기 노트

〈보기〉는 기행 가사인 (가)와 기행 수필인 (나)가 청나라 여행을 하고 쓴 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여정과 견문 등 기행문의 요소가 담겨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글쓴이는 ‘하쳐라고 초즈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미천한 호인들도 집치레 과람코나.’라고 하여 호인들의 집 제도와 그들에 대한 멸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강 제도’를 설명하면서 ‘낮이면 손입 접디 걸터앉기 가장 죠코’라고 표현하여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가 제시되어 있고, (나)에서는 요동 벌판에 이르러 드넓은 광야를 목격한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 ② (가)에서는 ‘의주 부윤’이 작가를 배웅하였고, (나)에서는 글쓴이가 ‘박명원’과 함께 요동 벌판에 갔다.
 - ③ (가)에서는 압록강을 건널 때 배를 이용하였고, (나)에서는 요동 벌판을 갈 때 말을 이용하였다.
 - ④ (가)에서는 청나라 처녀들과 할머니의 머리 모양을 묘사하고 있고, (나)에서는 요동 벌판을 본 글쓴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통곡’하겠다고 말하면서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발상의 전환이 드러난다.

알아두기

사행 가사(使行歌辭)

왕명으로 다른 나라에 다녀온 외교 사절들의 해외 체험을 다룬 가사로, 국문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수용 계층을 부녀자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상황들을 모두 담아 낼 수 있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에도 용이하였던 점도 국문 표기의 이유였을 것이다.

3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나)의 글쓴이는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픈 감정에만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아름다운 여인인 기생이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눈물이므로 슬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울음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七情)이 극에 달했을 때 모두 나오는 것이며 다만 그 발원이 각기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넓은 요동 땅을 보고 한바탕 통곡할 때는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느냐는 정 진사의 질문에 글쓴이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우는 것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바탕 울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한바탕 울 만한 자리」는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뒤 쓴 『열하일기(燕行日記)』에 실린 작품으로, 청나라의 발전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따라 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와 쓴 여행 일기 된 문물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지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폐쇄적인 조선을 비판하는 한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어둡고 갑갑하고 비좁은 어미 태 속에 비유함’} 조선의 낡고 오래된 문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오랑캐의 문물이라도 받아들여 우리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야 한다는 ^{정답의 근거 4번}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창하였다.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해 냄}

보기 노트

〈보기〉는 북학론을 전개한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의 문물과 생활 기술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고 쓴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청나라의 신문물과 배워야 할 점을 논하고, 조선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박지원은 조선의 낡고 오래된 문물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지 조선의 문물을 전부 버릴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土臺)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 ② 글쓴이는 백담의 장관과 요동 벌판의 광활함을 보고 감격하여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내리락하여 현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백담’은 중국 요동의 요양성 밖에 있는 탑으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에 대한 글쓴이의 감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어미 태 속’의 ‘어둡고 갑갑하고 좁매고 비좁은’ 것은 당시 조선의 좁은 땅과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조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갓난아이가 비좁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탁 트인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정신이 시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 울음을 우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글쓴이는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넓은 세상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 터라고 한 것은 광대한 세계를 접하게 된 기쁨과 감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고난도 복합 06 과도기 / 유민탄

● 지금 필수 감/상/전/락

가 과도기

1 인물을 파악하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간도로 이주했다가 귀향한 창선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고통스러운 간도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온 창선

어머니에게 간도에서 일가족이 몰
살한 이야기를 들려줌

어머니에게 고향 마을의 그간 사정
에 대해 듣게 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간도 체험	고향 상실
일가족이 몰살 할 정도로 극심 한 빈곤에 시달 림	평화로운 농어 촌이었던 고향 이 공장 지대가 되어 있음
식민지 조선의 현실 뿌리 뽑힌 민중의 삶과 몰락	

정답의 근거·2번
간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창선

가 [앞부분 줄거리] 창선은 먹고살 길을 찾아 간도로 갔다가 4년 만에 가족을 이끌고 귀향한다.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장 지대가 되어 버린 고향 창리의 모습에 놀란 창선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옛날을 추억하다가 형님께 집에 들어와 노모께 안부 인사를 한다.

“죽지 않으면 그래도 만나는구나! 아들을 낳았다지. 어디 보자……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었니?”

“간도에서 났다고 간남이라고 했습니다. …… 추위에 고뿔을 만나서 영 죽게 되었어요.”

아낙은 젖에서 어린것을 떼어 어머니에게 안겨 드렸다.

“아이구, 컸구나! 이런 무겁기라구…… 작년 구월에 낳았다지…… 원, 늙은 것은 얼른 가고 너희나 잘 살아야겠는데…….”

어머니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 간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창선의 가족

“그래, 그곳 사는 일이 어떻더냐. 예보다는 좋다더구나.”

정답의 근거·1번 왜지들, 순경놈들, 지주놈들의 횡포에 고통받는 민중
“말 마십시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지들, 순경놈들, 지주놈들 등쌀에 몰려다니기에 볼 일을 못 봅니다. 우리 살던 고장에서든 원아무 집 되든 데서 벌써 열 집이나 어디로 떠났습니다. 땅을 떼고 잡아가고 이름도 모를 세금을 내라고 죽여 내는데 살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 동네 아랫동네 영남 사람은 한 집이 몰살을 했답니다.”

“저런…… 몰살을? 끔찍도 해라.”

“늙은 어머니와 아낙과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장이 벌이를 갔더라나요. 한 게
「」: 비참하게 몰살한 한 집안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뜻대로 되지 못해서 한 스무 날 만에야 돌아와 보니 늙은이가 방에서 얼어 죽고, 아낙은 어디로 갔는지 뵈지 않더라요.”

㉠ “저런……! 어느 놈이 차 갔구나? 원, 사람은 못살 데로구나!”

정답의 근거·4번 창선이 전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추측을 말하는 어머니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닌데, 가장도 처음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찾아 나섰대요.”

“죽일라고, 원 저런, 치가 떨리는 일이라구는…….”

“남편이 미친 사람같이 두루 찾아다니는데 눈얼음 속에 사람 같은 것이 보이더라요. 그래 막상 가 보니 아낙이 옳더라지요.”

“아, 그래 살았어?”

“살기를 어떻게 살겠어요. 눈 속에서 얼어 죽었더라요. 머리에는 강냉이 한 되를 이고, 어린애는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앞에 안은 채 얼어붙었더라요.”

“원, 하늘도 무심하지. 그것들이 무슨 죄가 있니.”

“그뿐인가요. 남편까지 죽었답니다. 발광이 나서…….”

▶ 어머니에게 일가족이 몰살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선
“사람은 못살 데다. 말도 마라. 원 끔찍끔찍해서 그걸 누가 듣는단 말이나…… 그래도 재 애비(창선이의 형)는 정 안 되면 너 있는 데로 간다구…… 하더라만

고향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음을 드러냄

저게도 [●]팔각발이가 잤구나. 그러니 살 수 있니. 그놈들이 [●]삼재팔난을 다 싣구 다
니느니라.”

“그럼요. 거기도 그놈들 판입시다. 그러니 소문만 듣고 갔다가는 큰일납니다. 그
렇게 죽고 몰려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북해서 이 겨울에 나왔겠습니까.”

“잘 왔다. 하기사 여기도 [●]생물여사다만, 그래도 앉아서 죽을 수야 있니. 그래 오
늘도 어쩌면 살아볼까 모두들 읊으로 몰려갔다…….” / “아주머니도 가셨어요?”

“나 같은 늙은 것만 빼구는 다 갔다. 사다사다 안 되니 오늘, 감사라든지 난 모른
다만 그리로 온 동네가 몰려갔다.” / “감사요…… 무슨 때문예요?”

“원, 세월이 없구나. 보지 못하니 태평이지, 모두 굶어 죽는다고 야단들이다.”

① “글쎄, 그렇다기로 [●]도장관도 다 한속인데 그가 살려주겠습니까?”

“사흘 굶은 범이 [●]원을 가리겠니. 그놈들이 한당해서 못살게 만들었으니 아무 놈
이라도 물고 늘어진다더라. 글쎄 저놈들이 그 종던 동네를 다 빼앗구 이리로 몰
아내더니 고기가 잡혀야 살지, 무얼 먹고 산단 말이나.”

“배는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가요?”

“그럼사 세월 탓이지. 그러나 세월 탓이 아니란다. 『포구가 나빠서 그렇단다. 배
도 못 들어오고 요행 들어붙으면 바사진다는구나. 그놈의 파도까지 못된 놈의
『: 흰사가 포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깃배를 제대로 댈 수 없어 어획이 줄고 배가 부서져 버릴
심보를 닦아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구나.』 지난 시월에 작은돌이 애비네 은어배가
바사졌다. 그리고 사람이 둘이나 고기밥이 됐다. 그 집 말사람은 분김에 그놈의
회사에 가서 행악을 하다가 순사놈들한테 끌려나고, 술이 잔뜩 취해서 바사진
뱃조각을 두드리고 통곡하다가 얼어 죽었단다. 원!』”

“그런데 회사는 무슨 회사니까?”

“저게 있지 않니. 창리 바닥을 못 봤니. …… 그게 회사란다. 내사 원…….”

“어째서요?”

“이리로 온 게 뉘 때문이나? 글쎄 창리야 좀 좋았니! 운수가 고단하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글쎄 그 터를 내 준 게 잘못이지.” ▶ 어머니에게 그간의 고향 사정을 듣는 창선

어머니 말만 들어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온 동네가 온
통 끌려 갔다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창선이는 막막하고 답답하던 가슴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도리어 해를 향하여 열
리는 것 같음을 깨달으며 생의 의욕과 함께 문득 왕성한 식욕을 느끼었다. 아내도
배가 몹시 고팠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형의 내외를 기다리는 동안 감자
밥으로 우선 요기했다.

② “이게 무슨 야단이 났구나. 갈 때에도 말이 많더니 왜 엽때 안 오는가?”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아들을 만난 기쁨이 차차 옅어지고, 잠시 잊었던 근심이
『: 동네 사람들과 뭉쳐 나간 아들 내외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느 어머니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정답의 근거·2번

창선에게 고향 창리의 근세 상황을 전해
주는 어머니

원년

정답의 근거·4번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창선은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므로 방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봄

정답의 근거·4번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길함을 느낌

나 유민탄

1 화자를 파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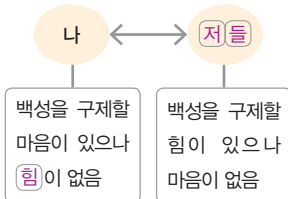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 대해 무관심한 **관(리)**들을 비판하는 '나'

2 시어(구) 및 표현에 주목하자!

- 백성들 어렵구나, 백성들 어렵구나.
- 백성들 고달파라, 백성들 고달파라.

특정 구절의 **(반)복**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글쎄 날씨가 별안간 추워져서…….”

창선이 내외도 저으기 걱정되었다.

“날씨도 날씨지만…… 온 별일이더라. 동네에서 물려나서기만 하면 어쩐지 순사들이 뿌듯뿌듯 못 가게 하더구나. 그래 오늘 아침은 장날 핑계를 대고, 새벽부터 장으로 갑네 하고 떡엄떡엄 떠나갔다. 이게 필시 무슨 일이 났다 났어. …… 원.”

“오겠습지요. 누우십시오.”

창선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해도 사정을 잘 몰라서 할 말이 나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쪽저쪽으로 돌아누우며, **중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끝까지 내내

▶ 감사로 물려간 형 내외를 기다리는 창선과 어머니 - 한설야, 「과도기(過渡期)」

나 백성들 어렵구나, 백성들 어렵구나.

흥년이 들었는데 너희들 먹을 것 없구나.

정답의 근거·5번 □: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상
나에게 너희를 구제할 마음이 있건만

너희를 구제할 힘이 없구나.

백성들 고달파라, 백성들 고달파라.

날이 찬데 너희들 입을 것 없구나.

저들에게 너희를 구제할 힘이 있건만

『』: 지방 관리들의 안일한 태도 비판
너희를 구제할 마음이 없구나.

▶ 1~8구: 백성에 대한 '나'의 연민과, 백성 구제에 대한 관리들의 무관심

내 바라는 것, 소인의 배를 뒤집어

잠시 군자의 마음으로 바꾸고

잠시 군자의 귀를 빌려다가

백성의 말을 듣게 하는 것.

▶ 9~12구: 소인배 관리들을 군자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

백성은 할 말이 있어도 임금의 말이 못해

지방 관리들의 무관심으로 임금에게까지 백성의 고통이 전해지지 못함

올해 백성들 모두 집을 잃어버렸네.

대궐에서 백성을 근심하는 조칙을 내려도

㉔ 고을로 전해지면 한 장의 빈 종이뿐.

정답의 근거·4번 □: 임금의 조칙도 쓸모가 없음
특별히 서울 관리 보내 고통을 물어보려

천리마로 매일 삼백 리를 달리지만

우리 백성 문지방 나설 힘조차 없으니

어찌 마음에 둔 생각을 직접 말하랴?

▶ 13~20구: 임금의 조칙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구조적인 문제점

한 군에 서울 관리 한 명씩 둔다 해도

서울 관리 귀가 없고 백성은 입이 없으니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한 중앙 관리들

급장유를 살려 일으켜서

㉕ 죽기 전 남은 백성들이라도 구하는 게 낫겠네.

정답의 근거·4번 □: 백성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남 ▶ 21~24구: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蒼生難蒼生難
창생난창생난
年貧爾無食
연빈이무식
我有濟爾心
아유제이심
而無濟爾力
而無濟爾力
이무제이력
蒼生苦蒼生苦
창생고창생고
天寒爾無衾
천한이무금
彼有濟爾力
피유제이력
而無濟爾心
而無濟爾心
이무제이심
願回小人腹
원회소인복
暫爲君子慮
잠위군자려
暫借君子耳
잠차군자이
試聽小民語
시청소민어
小民有語君不知
소민유어군부지
今歲蒼生皆失所
금세창생개실소
北關雖下憂民詔
북관雖下憂民詔
복귀수하우민조
州縣傳看一虛紙
주현전간일허지
特遣京官問民瘼
특견경관문민막
駟騎日馳三百里
일기일치삼백리
吾民無力出門限
오민무력출문한
何暇面陳心內事
하가면진심내사
縱使一郡一京官
종사일군일경관
京官無耳民無口
경관무이민무구
不如喚起汲淮陽
불여환기급회양
未死子還猶可救
미사혈유유가구
- 어무적, 「유민탄(流民嘆)」
유량평의 함식

정답의 근거·5번
화자의 소망

정답의 근거·1번

임금의 조칙에도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한 관리들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백성의 현실

- 딸각발이: 가난한 선비나 일본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임
- 삼재팔난(三災八難): 모든 재앙과 곤란을 이르는 말
- 생불여사(生不如死): 살아 있음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이르는 말
- 급장유: 중국 한나라 때 회양(淮陽) 땅에서 선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한 태수 급암(汲黯)을 가리킴

1 ⑤ 2 ② 3 ⑤ 4 ② 5 ④

가 과도기(過渡期) _ 한설야

해제: 이 작품은 192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주인공 창선이 조선에서의 궁핍한 생활을 청산하고 만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의 생활 역시 무척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와 친지들이 사는 고향으로 다시 귀향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 소설은 한국 문학사에서 당시까지의 신경향파 문학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사실이나 체험에 근거를 둔 경향의 작품들이 극도의 궁핍상을 보여 주는 데 급급하여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든지, 지식인인 작가의 관념을 표출하던 경향의 작품들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만 강조한다든지 하는 한계를 일정한 수준에서 극복할 바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제: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뿌리 뽑힌 민중의 삶

작품 전체 보기

1	창선은 먹고살 길을 찾아 간도로 갔다가 4년 만에 귀향함. 되놈의 등쌀에 간도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어 가족을 이끌고 돌아왔으나 고향은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장 지대가 되어 있음. 창선은 창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 너머 구룡리로 옮겨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음
2	가난했지만 재미있고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창선은 아내 순남을 만나고 연애했던 때의 일도 떠올림
3	형님 집을 찾아들어 어머니를 만난 창선은 간도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묻는 어머니에게 어느 가족의 몰살 내력을 비롯해서 간도의 삶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줌. 어머니는 먹고살기 어려워진 고향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음에 나간 아들 내외의 귀가가 늦어짐을 걱정함
4	밤중에 돌아온 형을 통해 일제의 감언이설과 간교에 빠져 마을이 통째 옮겨졌던 저간의 사정을 창선은 자세히 들음. 창리에는 공장이 들어섰으나 축항을 해 주겠단 약속과 달리 개밭은 고기잡이에 손해를 끼치는 쪽으로만 행해지고, 어민들이 회사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해 보았으나 회사는 꼬떡도 않음. 고기가 줄어들고 농사지를 땅도 없어진 주민들은 산송장이나 다름없게 됨
5	창선은 요행히 공장 노동자로 뽑혀 상투를 자르고, 감발 치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됨

나 유민탄(流民嘆) _ 어무적

해제: 이 작품은 백성들의 극심한 생활고를 그린 조선 시대의 한시이다. 어머니가 관비여서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어무적은 연산군 때 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을 사또의 학정을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가 쫓겨 다닌 끝에 객지에서 병사했을 정도로 비판적인 지식인이었다. 이 시에서 그는 백성을 구제할 의사가 있는 이는 능력이 없고, 백성을 구제할 능력이 있는 자들은 구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사리사욕만을 취하려는 소인배 관리들을 변화시켜 군자의 마음과 귀를 갖게 해 주고 싶다고 말한다. 또 그는 관리들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임금의 명령서는 휴지나 다름이 없으며, 서울 관리를 파견해도 백성의 말을 들을 자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고 비판하고, 차라리 전설적인 목민관이었던 급장유를 되살려 아직 죽지 않은 이들이라도 구제하는 편이 낫겠다고 통렬하게 풍자한다.

주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힘쓰지 않는 관리들의 부패에 대한 비판과 풍자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왜치들, 순경놈들, 지주놈들’ 때문에 괴로운 간도의 삶, 그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도장관’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는 고향 창리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백성을 구제할 힘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는 ‘저들’의 행태로 인해 고통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공동체의 구조적 모순이 구성원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창선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심리적 동요를 드러내고 있지 않고, (나)의 백성들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② (가)의 창선과 마을 사람들, (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모순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

③ (가)는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겪는 민중의 삶을, (나)는 관리들의 부패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도덕적 성찰을 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는 관계의 왜곡으로 인해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서술상의 특징

(가)에 제시된 부분은 창선과 어머니의 대화로, 창선은 간도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들려 드리고 있으며, 어머니는 창리의 근래 상황을 창선에게 전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부분은 창선이 형님네 집에 들려 노모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빈번한 장면 교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간도에서의 삶은 창선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중에 제시될 뿐이다.

③ 제시된 부분은 창선과 어머니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내적 독백 위주의 서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등장인물인 창선과 어머니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형님네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3 사건의 전개 양상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월에 작은돌이 애비네 은어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그 집 만사람’은 ‘회사에 가서 행악을 하다가 순사놈들한테 끌려나고, 술이 잔뜩 취해서 바사진 뱃조각을 두드리고 통곡하다가 얼어 죽었’다고 했으므로, 작은돌이 애비네 만사람이 순사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는 창선의 아들인 손자 간남이를 처음 안아 보고 있는데, ‘추위에 고삿을 만나서 영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늙은 것은 얼른 가고 너희나 잘 살아야’ 한다며 눈물을 떨구면서 애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머니는 창선에게 창리가 좀 좋았느냐고 말하면서 ‘그 터를 내 준 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창선은 ‘떨깅발이’들이 ‘삼재팔난’을 싣고 다닌다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면서 ‘거기도 그놈들 판’이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 갔다가는 큰일’이 난다면서 ‘죽고 몰려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하고 있다.

④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창선의 형님 내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음의 감사로 갔는데, 순사들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모두들 장날 핑계를 대고 새벽부터 장에 간다고 하고 띄엄띄엄 떠났다고 하였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①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답답함을 느껴 한 말이 아니다. 창선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마을 사람들이 도장관에게 하소연 혹은 항의를 하러 읍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장관도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방문 행위가 소용없는 짓일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①은 창선이 들려주는 '아랫동네 영남 사람'의 집안이 몰살을 한 이야기에 대한 어머니의 추측과 평가이다.

③ ③은 창선의 형 내외가 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는 것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라는 어머니의 불길한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④은 임금이 고난에 처한 백성을 근심하여 조칙을 내려 보내 봤자 각 고을에까지 전해지면 실질적인 쓸모를 갖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진술이다.

⑤ ⑤은 '서울 관리 귀가 없고 백성은 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급장유를 살려서 아직 안 죽은 백성들이라도 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훌륭한 목민관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연산군 때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어무적은 양반가의 후손이지만 모친이 관비여서 ^{그의 아버지인 효량은 사직을 지낸 사대부임} ⑧천민의 신분이었다. 『패관잡기(裨官雜記)』에 따르면, 어무적이 살던 ⑥김해 고을의 사또가 백성의 매화나무를 장부에 올려 두고 매실이 홍년이 어도 늘 정해진 숫자만큼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함} 거두어들이자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어 버렸다. ⑦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④비판적 지식인인 어무적은 ⑥이를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또의 체포령을 피해 타지로 도망 다니다가 객지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보기 노트

〈보기〉는 (나)의 작가인 어무적의 출생과 신분, 시적 경향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다.

(나)에서 어무적이 '한 군에 서울 관리 한 명씩' 두는 것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어무적은 만일 그렇게 관리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관리 귀가 없고 백성은 입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서 차라리 죽은 급장유를 되살려 죽기 전 남은 백성이라도 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화자는 백성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힘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어

무적이 '천민의 신분'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② 〈보기〉의 '김해 고을의 사또'는 (나)에 그려진 '저들'과 같은 사람이다. 백성을 구제할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럴 마음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③ (나)에서는 백성들이 홍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 없고, 날이 찬데 입을 것 없고, 올해 모두 집을 잃어버린 처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백성들의 고통이 의식주 전반에 걸친 결핍임을 드러낸 것이다.

⑤ 〈보기〉에는 어무적이 김해 고을 사또의 학정을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가 쫓겨 다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시를 지은 의도는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리려는 것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나)의 '내가 바라는 것', 즉 '소인의 배를 뒤집어 / 잠시 군자의 마음으로 바꾸고 / 잠시 군자의 귀를 빌려다가 / 백성의 말을 듣게 하는 것'과 가까운 것이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고난도 복합 07 조신의 꿈 / 구운몽

본문 118~121쪽

가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다. — 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성군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縣)에 날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으로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春州)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 본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가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쫓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낼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털너털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

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 지금 필수 감/상/전/략

가 조신의 꿈

1 인물을 파악하자!

꿈속에서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승려 조신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현실 (외화)	조신은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기를 소망함. 조신은 관음보살에 소망 성취를 빎
------------	--



꿈 (내화)	조신은 김흔의 딸과 부부의 연을 맺지만, 가난한 삶은 부부와 자식들에게 고통을 줌. 이에 부인은 조신에게 헤어지자는 제안을 하고 조신은 이를 받아들임
-----------	---



현실 (외화)	꿈에서 갓 조신은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깨닫고, 정토사를 짓고 수행함
------------	--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조신의 소망	김흔의 딸과 인연을 맺기를 소망함 ↓ 입몽 꿈속에서 김흔의 딸과 부부의 연을 맺지만, 가난으로 고통을 받음 ↓ 각몽 조신의 깨달음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함

나 구운몽

1 인물을 파악하자!

	성진	육관 대사
현실	속세의 부귀 공명에 번뇌 하다 잠이 들	성진의 스승
	↓ 환생	↓
꿈속	양소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인생무상을 느낌	노승 도술로 성진을 꿈에서 현실로 인도함
	↑	↑
	사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성진의 내적 갈등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다 인생무상을 느낌
	↓
성진의 깨달음	꿈에서 깨어난 성진은 불도에 정진하고자 함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현실(선계)	현실(선계)
세속적 욕망으로 번뇌하는 성진	깨달음을 얻은 후 불도에 정진하는 성진

- 지상 세계로, 양소유가 되어 세속적 욕망을 성취함
- 인생무상의 주제를 드러냄
- 성진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임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정답의 근거·1번} 이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생활고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강조함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의 이슬이 되었고, ^{「」: 이슬은 쉬 사라지는 것이고, 버들솜은 떠돌아도 흩날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로, 부부 간의 약속도 쉽게 사라지고 흩날리기 쉬운 것임을 비유적으로 제시함}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 이슬은 쉬 사라지는 것이고, 버들솜은 떠돌아도 흩날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로, 부부 간의 약속도 쉽게 사라지고 흩날리기 쉬운 것임을 비유적으로 제시함}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나 어쩌서 이 지정이 되었는지요. ^{「」: 온 가족이 함께 굶어 죽는 것}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부부가 헤어지는 것}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①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정답의 근거·3번} 조신 또한 김혼 딸과의 삶이 고통스러워 헤어지를 바람 -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느낌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 **꿈 ② - 조신 부부의 헤어짐**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각몽(覺夢)} 꿈에서 깨어났는데 ^{시간의 경과} 희미한 등불이 어그러지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꿈속에서 경험한 삶의 고뇌}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 꿈에서 깨 뒤 인생무상을 깨닫고 세속적 욕망을 버림}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루가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 전설의 특징}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각몽 - 꿈에서 깬 조신은 깨달음을 얻고 정토사를 세움**

- 작자 미상, 「조신(調信)의 꿈」

나 ① 승상이 옥통소를 내어 한 곡조를 부니 그 소리가 처량하여 ^{고사(軋聲이 역수를 건너는 고사, 초패왕이 우미인과 이별한 고사)에 빗대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함} 형경(荊卿)이 역수(易水)를 건널 때 고점리(高漸離)가 비파를 켜고, 초패왕(楚霸王)이 해하(垓下)에서 삼경에 우미인(虞美人)을 이별하는 노래 같았다. 모든 미인이 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두 부인이 물어 말하였다.

“승상이 일찍이 공명을 이루고 오래 부귀를 누리 오늘날 좋은 풍경을 당하였는데, 통소 소리가 처량하여 전일과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승상의 실경 변화 → 복인들과의 이별 암시} 승상이 옥통소를 던지고 난간에 기대어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동쪽을 바라보니 ^{「」: 세 임금의 앞에서 인생무상을 느낌} 진시황의 아방궁이 풀 속에 외롭게 서 있고, 서쪽을 바라보니 ^{「」: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소재} 한무제의 무릉(茂陵)이 가을 풀 속에 쓸쓸하며, 북쪽을 바라보니 당명황(唐明皇)의 화청궁에 빈 달빛뿐이라오. 이 세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어서 사해(四海)로 집을 삼고 억조창생으로 신첩(臣妾)을 삼아 해와 달과 별을 돌이켜 천세

를 지내고자 하였지만 이제 어디 있는가?』소유는 하동의 한 벼옷 입은 선비로
다행히 현명한신 임금을 만나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고 또 여러 남자와 함
께 서로 만나 정이 두텁고 심정이 늙도록 더 긴밀하니, 전생 연분이 아니면 어
찌 그러하겠소? 연분이 있어 모이고 연분이 다하면 흩어지기는 천리(天理)의
뜻뜻한 일이오. 우리 한번 돌아가면 높은 누각과 굽은 연못과 노래하던 궁전과
춤추던 정자들이 거친 풀과 쓸쓸한 연기로 적막한 가운데 나무하는 아이와 풀
뜯어 마소 치는 아이들이 손가락질하여 이르되, ‘양 승상이 남자와 함께 놀던
곳이다.’ 하리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소? 천하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儒
道), 선도(仙道), 불도(佛道)라오. 유도는 윤리와 기강을 밝히고 사업을 귀하게
여겨 이름을 죽은 후에 전할 따름이요, 선도는 허망하니 죽히 구할 것 아닌데,
오직 불도는 『내 근래에 꿈을 꾸면 항상 부들방석 위에서 참선하는 것이 불가에
반드시 인연이 있는 것 같소.』 내 장차 장자방(張子房)이 적송자(赤松子)를 좇
은 것같이 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께 뵈고, 의대에 올라 문수보살에 예불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고자 하나, 다만 그대들과 함께 반평생을 서로 따르다가 장
차 멀리 이별하려 하니 자연 비창한 마음이 통소 소리에 나타났던 것이오.”

⑥ 여러 남자도 다 남악 선녀로서 세속의 인연이 장차 다한 가운데 승상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 감동치 아니하겠는가?

다 말하였다.

“상공이 변화한 중에 이 마음이 있으니 분명 하늘의 뜻입니다. 첩 등 여덟 사람
이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예불하여 상공을 기다릴 것이니, 상공은 밝은 스승을
얻어 큰 도를 깨달은 후에 첩 등을 가르치십시오.”

승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 아홉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으니 무슨 근심이 있겠소.”

여러 남자가 술을 내어와 작별하려 할 때, 『문득 지팡막대 끄는 소리가 난간 밖에
서 나 여러 사람이 다 의심하였다. 한참 후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눈썹은 한 자
나 길고 눈은 물결 같아 얼굴과 동정(動靜)이 보통의 중은 아니었다.』

대(臺) 위에 올라 승상과 자리를 맞대고 앉아 말하였다.

“산야(山野)의 사람이 대승상께 뵙니다.”

승상이 일어나 답례하여 말하였다.

“사부(師父)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평생 사귀던 오랜 벗을 모르십니까?”

승상이 한참 보다가 깨닫고 여러 남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⑦ “내 토변을 치러 갔을 때 꿈에 동정호에 갔다가 남악산에 올라 늙은 화상이 제
자를 데리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부가 바로 그분이십니까?”

정답의 근거·1번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생무상을 느낀 양 승상
의 생각을 강조함

정답의 근거·2번

□: 꿈 밖의 세계와 달리 성진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인간 세상

벼슬이 없는 선비, 포의향사(布衣寒士) - 대유법

세월이 흘러 만물이 변함, 상전벽해(桑田碧海)

유(儒)불(佛)선(仙) - 「구원론」의 사상적 배경

살아 있을 때의 일과 이종(명예)을 죽어서 남길 - 유교의 한계

『』: 몽중몽(夢中夢) - 서진의 선계로의 복귀가 머지않았음을 암시함

만년에 진리를 구한 행동을 본받아

불교에 귀의할 소망함

이유 - ① 인생무상을 느꼈, ② 남자들과의 이별을 애타

서술자의 직접 제시 - 인물들의 실재 및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고함

양소유와 딸 나자

▶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불문에 귀의할 것을 결심하는 양 승상

『』: 고전 소설의 특징(사건 전개에 무연성) - 노승의 출현

정답의 근거·5번

십 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노승의 말에 의문을 표하고, 소유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자기의 삶을 이야기함

정답의 근거·2번

초월적 능력을 지닌 노승(육관 대사)이 승상(성진)의 꿈을 깨움

노승이 박장대소하며 말하였다.

꿈에 본 일을 생각하면서 현실(선계)에서 함께 지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

“옴소! 옴소! 그러나 승상은 꿈속에서 한 번 본 것만 기억하고, 십 년을 같이 산

현실(선계)에서 육관 대사에게 가르침을 받던 일

일은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승상이 멍한 채로 말하였다.

여전히 노승의 저체통 알지 못하기 때문임

① “십육 세 이전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육 세 후는 벼슬하여 임금을

섬겨 분주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때 사부를 좇아 십 년을 놀았겠습니까?”

▶ 노승의 출현과 노승을 기억하지 못하는 암 승상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이 오히려 꿈을 깨닫지 못하였소.”

승상이 말하였다.

“사부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노승이 말하였다.

“이 어렵지 않다.”

하고, 막대기를 들어 난간을 치니, 문득 흰 구름이 일어나 사면에 두루 껴 지척을

고전 소설의 특징(비현실성, 전기성)

분간치 못하였다.

승상이 크게 불러 말하였다.

“사부는 바른 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어찌 환술(幻術)로 희롱하십니까?”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며 노승과 두 부인 육 낭자는 간 데 없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자세히 보니 누대 궁궐은 간 데 없고, 몸은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니 새로 깎은 흔적이 송송하고 백팔 염주가 목에 걸려 있으니 다시는 대승상 위위는 없고 불과 연화 도량의 성진 소화상이었다.

▶ 노승이 도술로 꿈을 깨워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성진

다시 생각하되,

‘당초 일념 그르침을 사부가 경계하러 하여 인간 세상에 나가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한번 알게 하신 게구나.’

하고, 즉시 샘에 가 세수한 후, 장삼을 바로 입고 고깔을 뚜렷이 쓰고 방장에 들어 가니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더냐?”

양소유로서의 삶을 통틀어 - 깨달음의 축구 → 대사가 꿈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나타냄

성진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눈물을 흘려 말하였다.

이유 - 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② 사부의 자비에 감사함, ③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함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진이 함부로 굴어 도심(道心)이 바르지 못하니 마땅히 괴로운 세계에 있어 길이 양화(殃禍)를 받을 것을 사부께서 한 꿈을 불러 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덕은 천만 년이라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

대사가 말하였다.

“네 흥을 띠어 갔다가 흥이 다하여 왔으니 내가 무슨 간섭하겠느냐? ㉠ 또 네가 세상과 꿈을 다르게 하니, 네 꿈을 오히려 깨지 못하였구나.”

대사가 성진을 꾸짖는 말로, 세상의 일을 모두 꿰뚫어 볼 것임

▶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침회하고, 대사의 가르침을 듣는 성진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장원(莊園): 궁정·귀족·관료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토지
- 지초(芝草): 지치. 예전부터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한 풀로, 여기에서는 향기로운 풀을 의미함
- 난(鸞)새: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함

1 ② 2 ③ 3 ② 4 ② 5 ④

가 조신(調信)의 꿈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로, 조신이라는 인물이 태수 김혼의 딸과의 혼인을 소원하다 꿈속 체험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는 몽자류 소설의 기원이 되고, 꿈이 내화가 되고 현실이 외화가 되는 액자식 구성을 지닌다. 한편, 돌미륵, 정토사라는 사원 등 구체적인 증거물이 제시되어 전설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며, 정토사라는 절이 세워진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찰 연기 설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과 불도에 대한 정진

나 구운몽(九雲夢)_김만중

해제: 이 작품은 김만중이 지은 소설로, 꿈과 현실의 이중적 구조인 환몽 구조를 통해 부귀공명과 같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주제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현실과 꿈이 교차한다. 현실의 공간은 천상이고 꿈속 공간은 지상 세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현실의 공간인 천상은 불교적 세계를, 꿈의 공간인 지상 세계는 유교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 한편, 꿈속 지상 세계에서의 양소유의 삶은 ‘비범한 출생 → 비범한 능력 → 큰 공을 세우고 부귀공명 달성’ 등과 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영웅의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 전형적인 영웅 소설로는 보지 않고 이를 변형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에 대한 자각과 불교에의 귀의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남악산 연화 도랑에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는 성진은 동정호의 용왕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희롱하고, 불가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낌
전개	육관 대사는 성진을 인간 세상으로 보내고,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함. 팔선녀 역시 각각 인간 세상에서 환생하고, 이후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음
위기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린 양소유는 임신양명하여 벼슬이 승상에 이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림
절정	벼슬에서 물러난 양소유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불가에 귀의하고자 함. 이때 양소유 앞에 한 노승이 나타나 그의 꿈을 깨움
결말	꿈에서 깬 성진은 비로소 양소유의 삶이 자기가 꿈인 것을 깨닫고 육관 대사의 설법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 팔선녀와 함께 불문에 귀의함

1 서술상의 특징

[A]에서는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생활고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B]에서도 ‘이 세 임금에 ~ 어디 있는가?’, ‘소유는 하동의 ~ 어찌 그러하겠소?’, ‘우리 한번 ~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소?’ 등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생무상을 느낀 양 승상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B]는 통소 소리가 왜 그렇게 처량하냐는 두 부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지만, [A]는 부인이 개에게 물린 딸을 보고 울다가 눈물을 씻고 한 말일 뿐 누군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③ [A]를 들은 조신은 기뻐하면서 부인의 제안을 따르고, [B]를 들은 두 부인과 여섯 남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승상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을 한다. 따라서 둘 다 결국 청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발화라고 볼 수 있다.

④ [A]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사랑의 싹을 틔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의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B]는 ‘사해로 집을 삼고 역조창생으로 신첩을 삼아’, ‘장자방이 적송자를 좇은 것같이’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A]는 현재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조신의 아내가 조신에게 한 이별 제안이고, [B] 역시 양 승상이 ‘그대들과 함께 반평생을 서로 따르다가 장차 멀리 이별하려’ 하는 마음을 털어놓는 말이다. 따라서 둘 다 이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현실-입몽-꿈-각몽-현실’이라는 형식을 띠는 환몽 구조의 서사에서 꿈은 대체로 주인공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든지 주인공이 욕망을 대리 충족하고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된다. 이때의 꿈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 마련된다는 설정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그 전후로 신비로운 현상이 배치되거나, 현실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끼는 환몽 구조 서사에서 꿈 전후로 나타나는 배경 설정 방법』에 의거하여 증거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 꿈속 공간이 이계(異界)로 설정되거나 주인공이 정체성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처럼 환몽 구조의 서사에서 꿈은 작품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교훈적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보기 노트

〈보기〉는 환몽 구조 서사에서 꿈이 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대사, 남악 선녀 등이 존재하는 꿈 밖의 세계와 달리, 꿈속에서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 경험하는 세계는 ‘현명하신 임금을 만나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경험하는 인간 세상이다. 그러나 (가)의 경우는 꿈속의 세계가 꿈 밖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나)의 주인공과 달리 (가)의 주인공이 꿈의 내용을 통해 이계(異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주인공 조신은 꿈속에서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조신이다. 그러나 (나)의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연화 도랑의 성진 소화상’이고 꿈에서는 ‘대승상’인 ‘소유’이다.

② (가)에서는 입몽과 각몽 과정에 특별한 장치가 동원되어 있지 않지만, (나)에서는 각몽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인 노승이 막대기로 난간을 치자 흰 구름이 문득 일며 사면에 두루 꺼 지척을 분간치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④ (나)에서는 꿈속의 일을 환기하는 증거물이 현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에서는 꿈속에서 죽은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는 내용을 통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증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는 조신이 짝사랑하던 여인과 결혼하여 사는 경험을 꿈속에서 하게 됨으로써 세속적인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도 '도심(道心)'이 바르지 못하던 성진이 꿈을 통해 소유로 태어나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경험함으로써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알아 두기

몽자류 소설로서의 「구운몽」

몽자류(夢字類)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이 입몽(入夢) 과정을 거쳐 꿈속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경험한 후 다시 각몽(覺夢) 과정을 거쳐 깨달음을 얻게 되는 환몽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몽자류 소설에서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꿈에서 얻기 때문에 현실과 꿈 모두가 의미가 있다. 김만중의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의 효시로, '꿈'은 전체 분량의 90% 가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과 인간 세상의 무심함'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에서 조신이 기뻐한 것은 간절히 바라던 바인 김혼 딸과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에서 조신이 기뻐한 것은 가난으로 인한 처절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끝난 기쁨의 감정인 ㉠, 가난 때문에 겪는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기쁨의 감정인 ㉡은 모두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든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 전에 이별했던 사람과 재회하게 된 상황과 무관하다.

③ ㉠은 재물이 아니라 김혼 딸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데에서 느낀 기쁨이다. 그리고 ㉡은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느끼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기는 하나, 이를 원하던 재물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관음보살께 빌었던 내용이 성취되었기에 기쁨을 느낀 것은 ㉠뿐이다.

⑤ ㉠과 ㉡ 모두 자신이 상대방에게 존중받았다고 생각해서 든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속담 및 한자 성어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는 서 발이나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거치거나 걸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이라 세간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는 조신이 꿈속에서 김혼 딸과 부부의 연을 맺은 후 겪게 된 생활고와 같은 가난한 집안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속담은 ②이다.

오답 풀이 ①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도끼가 제 자루 못 찍는다'는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알아서 고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주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끝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5 작품의 종합적 감상

㉣는 승상이 노승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승상은 소유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큰 흐름을 말하면서, 십 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노승의 말에 의문을 표하고 그 말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형경이 역수를 건너는 고사, 초패왕이 우미인과 이별하는 고사를 언급하며, 마치 그것처럼 승상의 옥통소리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고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고사에 빗대어 장면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는 여러 남자가 감동했다는 말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였고, 장차 세속의 인연이 다했다는 진술을 통해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③ ㉥는 승상의 발화를 통해, 노승의 정체가 남악산 연화 도량에서 성진을 비롯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사임을 알 수 있다.

⑤ ㉦는 대사가 성진을 꾸짖는 말로, 세상과 꿈을 다르게 아는 것은 꿈을 깨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즉 세상의 일은 모두 꿈처럼 헛된 것이라는 주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고난도 복합 08 아우를 위하여 / 뿌리 깊은 나무

본문 124~129쪽

가 [요부분 줄거리] '나'는 입대한 아우에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에 대해 편지를 쓴다. 서울 수복 후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온다. 학급 운영에 관심이 없던 담임 선생님은 반장인 영래에게 교실 일을 모두 맡겼고, 영래를 중심으로 한 힘이 센 아이들은 힘으로 '나'와 급우들을 괴롭힌다.

정답의 근거·6번 영래 일행의 부당한 권력 앞에 무력한 아이들의 모습

있으나 마나 한 부반장으로 영리한 석환이도, 나도, 하여간에 좀 영리한 애들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지식인들을 의미함 끼리끼리 소곤소곤 어린이 잡지나 돌려 보면서 그 애들의 노는 꼴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 애썼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가 죽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영래를 신뢰했는데, 그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하고 동시에 무서운 존경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재주가 비상했던 것이다. 영래의 제의로 우리는 두어 차례의 모금을 했었다. 한 번은 담임 선생 매뚜기네 아기의 돌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다음엔 청소 도구를 마련한다는 구실이였다. 판단이 부족했던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기에 도 금액이 좀 과했던 것 같았다. 제삼 분단장인 동열이의 머리가 터졌던 건 바로 그 일 때문이었다. 그 애가 쭈군거린 얘기를 들어 보면 거둔 돈의 절반을 그 애들이 아이들의 돈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영래 일행 씩씩해서는 학교 앞 찜빵 가게에 맡겨 놓고 까먹고 있다고 했다. 얘기를 들은 다섯 아이들 중 누군가의 — 아마도 영래와 방향이 같은 기지촌에 사는 아이가 그랬을 — 고자질에 의해서 폭행이 벌어졌다. 『예의 매뚜기가 자리를 비운 자습 시간에 영래가 무조건 동열이를 불러내어 “인마, 너 나한테 잘못된 거 없어?” 하고 따지면서 다짜고짜 발길로 걷어찬 다음 막대기로 그 애 머리를 꿰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침을 삼키며 그 애가 머리를 움켜쥐고 죽는 소리로 우는 걸 바라보기만 했다. 폭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침묵하는 모습 종하가 옆에서 울려댔다.

“짜식들 누가 돈을 떼먹었냐, 애 맞은 거 담임한테 찌르면 알지?”

영래는 역시 화를 발각 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새까.” 종하를 으박지른 다음에 우리에게 씩 웃어 보였다.

“돈이 남은 건 맞다. 그걸 말이지 나는 다음에 쓸라구 남겨 뒀던 거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축구부를 만들기루 했지. 다른 반과 시합을 갖구 다음번엔 저쪽 오목내 학교 패들하구두 붙는다.” 내부의 분열이 있을 때 외부에 적을 만들어 내부의 단결을 꾀하는 저지 행태와 유사함

아이들이 와글와글 손뼉치는 소리.

“그러구 애가 맞은 건…….”

영래가 공포에 질려 끓어앉은 동열이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잠깐 사이를 두었다.

“우리 반을 배반했기 때문야.”

내부 고발자를 배반자로 몰아 고발 내용을 믿지 않게 함

은수가 맞장구를 쳤다. / “그래, 영래 말이 옳다. 짜식이 배반자야.”

가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씩씩하고 멋진 애기 같았으므로 교실의 이곳저곳에서 낱말 외우기나 하는 듯 아이들의 “배반자, 배반자.” 하는 중얼거림이 퍼져 나갔다. 그들은 으쓱해진 느낌이었고 앞에 적발되어 끓어앉은 이 새로운 적을 새삼스럽게 관찰했다.

▶ 학급비를 횡령한 것이 들키자 변명을 하고 폭력으로 협박하는 영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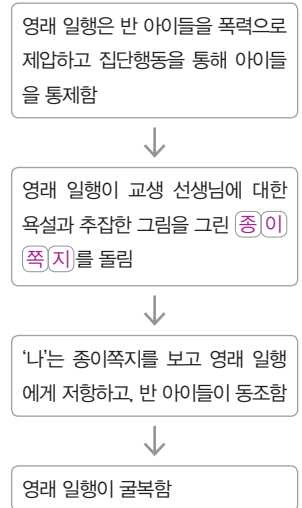
지금필수 감/상/전/탁

가 아우를 위하여

1 인물을 파악하자!

‘나’	영래 일행의 폭력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굴종하다가 교생 선생님 의 가르침을 통해 불의에 저항하게 됨
영래	반장으로, 폭력과 공포로 반 아이들을 통제함. 부당한 권력자의 전형을 보여 줌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영래 일행	‘나’와 반 아이들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 권력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다수의 시민
불의와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와 연대 의식 이 필요함	

[중간 부분 줄거리] 교생으로 온 병아리 선생님이 영래 일행의 불합리한 행동을 타이르자 영래 일행은 이에 반발한다.

정답의 근거·2번

'나'는 교생 선생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음

정답의 근거·5번

'나'가 영래 일행에 대항하게 된 결정적 계기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이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 자신들의 지위가 위해조워진 것을 안 영래 일행은 비명횡 방법으로 교생 선생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노력함}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으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 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잇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 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잇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종하’라고 써서 있고 밑에다 ^{교생 선생님}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얻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루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 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 댔다.

“그게 니 깔치니?” /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잇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따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 버려.” / “이 새끼가…… 맞아 불래?”

종하가 내 먹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뱀아 버려, 뱀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 지내던 장판석이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 적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정답의 근거·1번

교생 선생님을 조롱하는 영래 일행과 이에 저항하는 '나'와 반 아이들의 갈등이 드러남

④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려지두 았구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 “요전에
^{『』: 반 아이들이 영래 일행의 잘못을 지적함}
 동열이를 때린 것두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았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정답의 근거·4번

반 아이들은 '나'의 항의를 계기로
 영래 일행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
 하고 있음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
 노랗게 질려 있었다.

^{반 아이들의 태도에 당황함}
 “너희들, 반장에게…… 이러기냐?” /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 “그만둬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반 아이들이 영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됨}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
 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찢어, 인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반 아이들의 저항에 굴복함}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 “사과 안 하면 물매를 놓아서 쫓아 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 말까 한 음성으로 말했다. /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영래 일행의 몰락에 반 아이들이 당황함}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꽉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
^{『』: 이를 계기로 '나'는 그동안 물의에 저항하지 못하여 느껴던 수치심을 벗어 버림}
 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 영래 일행에 대한 아이들의 저항과 영래 일행의 굴복

⑤ 나는 노깡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며칠 전에
^{‘나’를 겁쟁이로 판독 부저적 공간}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지. 그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도 내 악몽의 비밀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말했다.

“애써 보지도 았고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
^{『』: ‘나’가 서숙해지는 계기. ‘나’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됨}
 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에서 놓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뒤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고, 노깡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더랬지. 나는 그 속의 빠다귀가 개빠, 소빠, 사람 빠다귀인지 몰랐지만 어쨌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함}
든 아무렇지 않게 길을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이가 어린이들끼리의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거나 모른 체했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구나. 다만 아이
 들이 존경하는 그이가 옆에 계시니까 욕스럽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깨달았
 던 것만은 분명하다.

▶ 교생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노깡에 대한 공포를 스스로 극복한 ‘나’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걸
^{『』: 아우에게 다분하고 싶은 말 - 윤리적 무관심의 위험성과 영래 의식의 중요성}
 인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 너는 저 깊고

수많은 안방들 속의 사생활 뒤에 음울하게 숨어 있는 우리를 상상해 보구 있을지
^{『』: 불의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 - ‘윤리적 무관심’을 비유하는 표현}
 도 모르겠구나. 생활에서 오는 피로의 일반화 때문인지, 저녁의 이 도시엔 쓸쓸한
^{부조리에 무관심한 사회의 모습 상징}
 찬 바람만이 지나간다. 그이가 봄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보이지도 았고 만질 수
^{‘저의’, ‘용기’, ‘민주주의’ 등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 ^{‘그이’가 추상적인 가치임을 알 수 있음}
도 없어, 그이가 오는 걸 재빨리 알진 못하겠으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노래하고
 먼산이 가까워 올 때에 우리가 느끼듯이 그이는 은연중에 올 것이다. 그분에 대한

자각이 왔을 때 아직 가망은 있는 게 아니겠니. 너의 몸 송두리째가 그이에의 자각
^{용기와 실천을 통한 희망의 회복 가능서를 암시함} ^{그이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실천함}
 이 되어라. 형은 이제부터 그이를 그리는 뉘우침이 되리라.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그이를 잊고 있던 시절을 뒤우치고 그이를 그리워함} ▶ 용기와 실천의 의미를 아우에게 전달하는 ‘나’

나 뿌리 깊은 나무

1 인물을 파악하자!

이도	태종
세종 대왕, 자주적인 조선 을 세우고자 함	이도의 아버지, 강력한 왕 권으로 피의 정치를 행함

무휼

이도의 호위
무사로, 왕의
안위를 걱정함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한글을 창제하여 자주적인 **조선**
을 세우고자 하는 이도

- 이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과 갈등함
- **일본**이 나타남
- 집현전 학사들이 살해당함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학사들이 죽자 극심한 **갈등**에 빠진 이도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통치 방식에 관한 갈등

이도	태종
칼이 아닌 말 로써 설득 하는 통치를 하고자 함	힘에 의한 정 치를 통해 왕 권을 강화하 고자 함

정치 신념에 관한 논쟁

이도	젊은 이도
자신의 정치 신념 을 포기하고 태종의 뜻을 따라 할지 갈등함	현실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좌절하는 이도 를 비웃음

정치적 이상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극심하게 갈등하는 이도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나 S# 55 이도의 밤(밤)

세종 대왕

이도, 가빠진 호흡을 누르며 상소문들을 읽고 있다. 옆엔 **엄청나게 많은** **상소문들이** 놓여 있다. 이때 들어오는 무휼, 상소문들을 보고 놀란다. 결심한 듯 앞에 와 앉는다. 말이 없는 이도.

무휼 (조심스럽게) 지난 상소문들이 아니옵니까. 어찌 다시 읽으시는지요?

이도 (읽으며) 그동안 과인의 일에 대해 **참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구나…….

무휼 전하, 아뢰옵건대 다른 상념은 마시옵소서. 지금 중한 일은 오로지 **일본을** 찾아내는 것이옵니다.

이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무휼 (놀라) 전하! 전하의 뜻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일본**은 아니옵니까!

이도 그들 중 하나겠지.

무휼 (놀라) ……! (더욱 강하게) 전하! 심기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이도 (상소문들을 집어 던지며 버럭)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느냐?

무휼 …….

이도 **난 조선을 세우고 싶을 뿐이었다!**

무휼 …….

이도 현대…… 지금도 신하들은 모두 모여 나의 뜻을 거스를 모의를 한다더구나!

무휼 …….

이도 생각해 보면 항상 그랬다. **중국의 책력이 아닌 우리 책력을 만든다 할 때도!** 천문 기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 사람을 밀파할 때도! **세법 가부 조사를 한다 할 때도!** **노비 장영실에게 관직을 줄 때도!**

무휼 …….

이도 『대명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국고를 낭비한다며!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면서……』 온갖 공맹의 도리를 들 **이대며 말이다!**

무휼 …….

이도 공자께서 언제 자국의 책력을 만들면 안 된다 하였느냐? 맹자께서 언제 백성의 의견을 직접 물으면 안 된다 하였어? (하다가는 울컥) 난 단지…… **조선을 세우고 싶을 뿐이었는데…….**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무휼 (보며)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도 …….

무휼 전하께서는 **침수도 파하시고…… 옥체를 열로 나누어 일하셨고! 그 많은 반대에도…… 기다리고 설득하셨사옵니까.** 그렇게 **조선을 세워 오셨사옵니까.**

이도 (힘이 쭉 빠져서는) 그 결과……. (스스로를 비웃듯 웃으며) 『내 학사들이 죽어 가고, 일본은 나타났고, 얼마나 많은 나의 사람들이 죽어 갈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내 필생의 일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

무휼 …….

이도 내 잘난 결심이! 나의 치기 어린 결심이! 그리 만들었다!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하는 것이냐?

무휼 …….

이도 난 정말 모르겠다. 답을 해 다오……, 답을……. **아바마마의 방식이 맞는 것이 아니냐?**

무휼 …….

이도 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나는 왕이다!

무휼 …….

이도 **나만 남기고! 모두 죽어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도가 불쌍한 무휼, 차마 답을 하지 못한다.

▶ 정치적 신념이 흔들리며 갈등하는 이도

정답의 근거·6번

자신의 정치적 이상 때문에 학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자책과 회한을 느끼며 좌절함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며
국심한 내적 갈등을 드러냄

S# 56 이도의 방 밖 복도(밤)

광평, 들어가지 못한 채 안타깝게 듣고 있다. 이때 나오는 이도, 예를 취하는 광평, 이도, 상관 이도의 아들. 이도와 뜻을 같이함
치 않고 나간다.

S# 57 집현전 앞 일각(밤)

걸어오는 이도, 집현전 현판을 본다. 과거 현상 장면 삽입
세종이 세종 학문 기관

태종 (한심하다는 듯) **집현전…… 그런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컷(cut))

인서트 컷(ins. cut) - 현실의 이도의 표정.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보여 줌

태종 (비아냥) 어떤 조선인가, 그것은?

이도 권력의 독을 감추고, **칼이 아닌 말로써 설득하고.**

인서트 컷(ins. cut) - 현실의 이도의 표정 위로 3부 4신 이펙트.

이도 (이펙트(E)) 『모두의 진심을 얻어 내어, 모두를 오직 품고…… 하여 **방진에 1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 3, 4, 5, 6…….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조선입니다.』

회상에서 돌아오는 이도, **자조**하듯 피식 웃고는 허허로운 표정으로 간다.

▶ 정치적 신념으로 아버지와 대립했던 과거를 회상함

정답의 근거·1번

권력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태종과 이도의 대립이 드러남

S# 58 집현전 안(밤) - 내적 갈등이 환각으로 드러나는 장면

혼자 들어오는 이도, 집현전 안을 본다. 그런데 어둠 속 집현전 서재에 책을 보고 있는 누군가. 그자가 고개를 돌리며, 용포를 입은 젊은 이도이다. 이도, 늘 그래 왔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노려본다. 그런 이도를 보며 생긋 웃는 젊은 이도.

젊은 이도 (**비웃듯 헛웃음을 흘리며**) **그 꼴이 무언가?**

이도 (노려보며) **밀본이 있다.** 아바마마의 말이 옳았어. 밀본이 나의 사람을 죽이고 있다.

젊은 이도 (물끄러미 보며) …….

이도 (점점 흥분하며) 어떤 권력이라도 독이 있다. 그 독을 바깥으로 뽑지 않으면!
이렇게 안으로 썩는 것이다!

젊은 이도 해서?

이도 권력의 독은 안으로 감추겠다고! **오직 문으로 치세를 하겠다고!** 그 네놈의
한심하고 치기 어린 생각이 이리 만든 것이야! 아무 죄도 없는 내 사람을 이리
죽인 것이야! 내가 아니라…… 너다. 내가 아니라…… 네놈이 죽였다!

젊은 이도 (가까이 다가가 비아냥대듯) 허면……. 아직도 늦진 않았다. (귀에 대고)

이방원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미소로) 사죄해라.

이도 (거칠게 젊은 이도의 목살을 잡으며) 이놈! (분노로 노려보며)

젊은 이도 『(차가운 미소로) 이방원이 왜 이방원인가? 이도가 왜 이도인가? 그것밖
에 되지 않으니, 이도인 게지? (하고 깔깔 웃는다.)』

▶ 젊은 이도와 대면하며 논쟁하는 장면으로, 극심한 내적 갈등을 보여 줌
- 이정명 원작 / 김영현·박상연 각색, 『뿌리 깊은 나무』

정답의 근거·3번

아버지에게 완전히 져음을 인정하라는 의미
→ 현실에 굴복하려는 이도에게 냉소적으로
대함

- 일본: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것
이 아니라, 유학으로 다져진 여러
신하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로,
정도전의 죽음 이후에 은밀하게 활
동하는 비밀 조직이 됨

고난도 복합 08

본문 124~131쪽

1 ④ 2 ⑤ 3 ⑤ 4 ③ 5 ③ 6 ③

가 아우를 위하여 _ 황석영

해제: 이 작품은 형인 '나'가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외화) 속에 '나'의 초등학교 때 경험담(내화)이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형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을 통해 소수의 권력자와 이에 저항하는 선량한 약자들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권력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는 용기와 단결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형이 어렸을 적에 탄환을 주우러 노깅에 들어갔다가 기절한 일로 노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자주 악몽에 시달렸으나, 용기를 내어 노깅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이겨 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강자의 폭력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기만 하면 영원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주제: 불의에 대한 저항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

작품 전체 보기

도입	'나'는 군대에 간 아우를 위해 초등학교 시절 겪었던 일이 담긴 편지를 씀
발단	한국 전쟁 직후라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탄환을 수집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노깅에는 탄환이 많았지만 시체도 많다는 말에 아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음. 그러나 '나'는 탄환을 줌기 위해 노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뼈다귀를 발견하고, 이에 놀라 기절함. 그 후 '나'는 악몽에 시달림
전개	'나'의 반에 전화를 온 영래는 반장이 되어 힘센 아이들과 함께 온갖 횡포와 불의를 저지르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수록

위기	교생 선생님이 부임하여 영래 일행의 횡포를 제지하고, 영래 일행은 이를 못마땅해함
절정	자치회 때의 일로 교생 선생님께 앙심을 품은 영래 일행은 선생님을 모욕하는 종이쪽지를 돌리고, '나'가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의 사과를 받아 냄
결말	'나'는 교생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노깅에 들어가서 노깅에 대한 공포를 극복함
종결	'나'는 여러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무관심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아우에게 당부함

나 뿌리 깊은 나무 _ 이정명 원작/김영현·박상연 각색

해제: 이 작품은 이정명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각색한 것으로, 조선 세종 집권기에 한글 창제를 둘러싼 집현전 학사들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대본이다.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집현전 학사들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에서 출발하여 한글 창제 과정의 뒷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한글을 반포하려는 이도와 이를 막으려는 밀본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서사이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조선의 근간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이도는 조선의 뿌리가 백성이라고 생각하여 백성에게 문자 권력을 나누어 주기 위해 한글을 반포하려 하고, 밀본은 조선의 뿌리를 사대부로 보아서 한글 반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용비어천가 2장의 '불휘 기픈 남간'에서 따온 이 작품의 제목 '뿌리 깊은 나무'는 이도가 생각하는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밀본이 생각하는 사대부가 되기도 한다. 발췌된 부분에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이도의 내적 갈등과 통치 방식에 관한 태종과의 외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이도의 정치적 이상 실현과 밀본 세력과의 갈등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왕권 강화를 위해 강력한 힘의 정치를 실현하는 아버지 태종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려는 세자 이도가 정치적 의견 차이로 갈등함
전개	이도는 왕이 되어 집현전 학사들과 한글 창제를 하는 등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침
위기	한글 창제를 비밀리에 추진하던 이도 앞에 반대 세력인 비밀 조직 밀본이 나타나 집현전 학사들을 살해하기 시작하고, 이도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한 갈등에 빠짐
절정	밀본은 이도가 한글을 창제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신하들의 반대와 밀본의 방해에도 이도는 한글 창제를 계속함
하강	이도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가리온이 밀본의 수장 정기 준이었음을 알게 되고, 한글 반포를 천명함
대단원	밀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도는 소이, 무휼, 강채윤의 희생으로 한글 반포에 성공함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병아리 선생님이라는 대상에 대해 조롱하는 영래 일행과 '나'가 대결하고 있다. 한편 (나)는 권력이라는 대상에 대해 혼자 독점하려는 태종과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이도가 대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하지만 사건을 다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와 (나)에는 모두 인물의 말과 행동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풍자적으로 제시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반전한 것은 아니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시간이 역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물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거나 이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감추려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역전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내막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 ⑤ (나)에서 이도가 과거 태종과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을 제시하여 이도가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에 제시된 것처럼, '나'는 병아리 선생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 반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 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내 악몽의 비밀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말했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영래의 제의로 우리는 두어 차례의 모금을 했었다. 한 번은 담임 선생 메뚜기네 아기의 돌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직은 영래를 신뢰했는데, 그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하고 동시에 무서운 존경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재주가 비상했던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작품의 형상화

S# 58에서 젊은 이도가 이도에게 '(가까이 다가가 비아냥대듯) 허면……, 아직도 늦진 않았다. (귀에 대고) 이방원의 무덤에 가

서,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미소로) 사죄해라.'라고 말한다. 이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현실에 굴복하려는 이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S# 55의 '그런 이도가 불쌍한 무휼. 차마 답을 하지 못한다.'와, S# 56의 '광평, 들어가지 못한 채 안타깝게 듣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S# 57의 '방진에 1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 3, 4, 5, 6…….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조선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S# 57의 '인서트 컷(ins. cut) - 현실의 이도의 표정.'과 '인서트 컷(ins. cut) - 현실의 이도의 표정 위로 3부 4신 이펙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S# 57은 이도와 태종이 정치 철학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S# 58은 젊은 이도와 이도, 즉 과거의 이도와 현재의 이도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 사건의 전개 양상

문학 작품의 서사는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의 전개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르기도 하지만 작가는 보다 독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과성을 바탕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 혹은 내면적 상상 등을 활용한다.

보기 노트

<보기>는 문학 작품에서 서사의 전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사의 전개 방식 중 인과성에 의한 전개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작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S# 57에서 태종이 집현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대해 S# 58에서는 오직 문으로 치세를 하겠다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③의 (나)에 관한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가)의 ④는 병아리 선생님을 모독한 행위에 대한 '나'의 항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④의 상상과는 관련이 없다. ④는 영래가 동열이를 때렸던 경험에 기반한 '나'의 상상으로 영래 일행에 대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의 허상들이다.

- 오답 풀이** ① ㉗의 '배반자'라는 어휘에 대해 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씩씩하고 멋진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이도는 아버지 태종과 정치 철학으로 대립하였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고뇌가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㉗가 영래가 동열을 때린 것에 대한 반 아이들의 긍정적인 평가라면, 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나)에서 이도가 기다리고 설득하면서 조선을 세워 왔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뜻으로, 이는 같이 아닌 말로써 설득하였다는 이도의 과거 기억과 연결된다.
- ④ '나'는 영래 일행에 대한 저항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노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나만 남기고 모두 죽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왕 혼자만 독재한다는 의미로 방진의 1을 언급한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고 있다.

⑤ 노강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 악몽의 비밀은 '나'로 하여금 ④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의 이도는 태종과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자조, 즉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데, 이는 이도가 젊은 이도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상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5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가)에서 '나'는 종잇조각을 보고 영래 일행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종잇조각을 보고 영래 일행의 만행이라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 이도는 상소문들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일에 반대가 많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도는 상소문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도가 상소문들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펼쳐 온 정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좌절했다는 점에서 ㉠이 회의감을 갖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나'는 ㉠을 보고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한다.

② 이도가 상소문들을 보고 자신의 정치 철학이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번민한다는 점에서 ㉠이 방향을 유발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을 보고 '나'는 영래 일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로 결심한다.

④ 영래 일행의 만행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나'가 종잇조각을 보고 적극적인 행동을 결심했다는 점에서 ㉠이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존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이도는 ㉠을 보고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번민을 할 뿐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

⑤ '나'가 종잇조각을 보고 대항을 결심하면서 영래 일행에게 맞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은 이도에게 고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할 뿐 공포심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

6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와 (나)에는 모두 현실적 좌절과 이로 인해 갈등하는 인물이 제시되어 있다. (가)에서는 '나', (나)에서는 이도 인물이 이상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나 좌절된 원인을 제시하기도 하고, (나)에서 한글 창제를 통해 자주적 조선을 세우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좌절된 이도의 모습 (가)에서 영래 일행의 하기 위한 노력과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 이때 주변에 이 불합리에 대해 저항하고, 노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 인물을 보호하거나 위로하는 조력자가 존재하여 사건을 좀 더 다채롭게 해 준다.

보기 노트

〈보기〉는 (가)와 (나)에 나타난 대략적인 갈등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각 작품에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나)의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하는 것이냐'는 이도의 사람들이 죽어 가는 당면한 결림돌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현실적 좌절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의 '있으나 마나 한 부반장으로 영락한 석환이도, 나도, 하여간에 좀 영리

한 애들은 끼리끼리 소곤소곤 어린이 잡지나 돌려 보면서 그 애들의 노는 꼴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 애썼다.'에 제시된 것처럼, '나'가 잡지에 집중하는 행위는 영래 일행이라는 현실적 좌절로 인해 생긴 무력감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는 '나'가 동생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로 '나'의 이상을 의미한다. (나)의 '난 조선을 세우고 싶을 뿐이었다!'는 이도의 정치적 목표이자 이도의 이상을 의미한다.

② (가)에서 장판석이 종하를 '나'에게 떼어 밀치면서 '애들 때리면 재미적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이도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며 자책하자 무홀이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이도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나'는 영래 일행에 저항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노강의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 좌절을 겪고 있다. (나)의 이도는 많은 신하들과 일본의 반대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

⑤ (가)의 '나'는 그이를 그리는 뉘우침이 되겠다고 하며 용기와 실천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나)의 무홀의 말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한 이도의 노력이 제시되어 있다.

알아 두기

병아리 선생님의 역할

'나'의 반은 영래 일행이라는 폭력적 집단에 철저하게 지배당한다. 영래 일행의 횡포가 극심해져 있을 때 병아리 선생님이 부임해 오고, 영래 일행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한다. 굴종적 삶에 익숙해져 있던 '나'와 반 아이들을 감화시켜 아이들 스스로 불의에 저항하게 만든다. 즉, 병아리 선생님은 두려움으로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던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고난도 복합 09 유자소전 / 광문자전

본문 132~135쪽

가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연못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함}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상류층의 사치스러움과 현대인의 통정, 만능주의를 보여 주는 소재」}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러?”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먼그러. 뽀어낸뽀(베토넨)라나 뽀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폴구싶어(차이콥스키)라나 뽀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구먼.」

^{▶ 비단잉어의 몸값에 놀란 유자와 '나' 정답의 근거: 1번} 비단잉어의 떼죽음과 관련한 일화를 통해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총수와 유자의 갈등을 나타냄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낯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감기} 고뽀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실없이 거짓으로}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비단잉어를 죽인 게 유자인 것처럼}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총수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낄}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썰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비단잉어를 키우는 것이 분수에 맞지 않음을 드러냄」}
그런디다가 부룻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몯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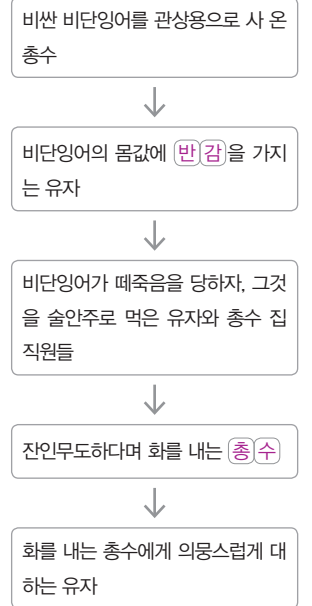
지금필수 감/상/전/탁

가 유자소전

1 인물을 파악하자!

「비단잉어」의 떼죽음 사건으로 총수와 갈등하는 유자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유자
• 긍정적 인물 • 권력자인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함 • 비판 의식을 지녔으며, 구차한 살을 거부하는 용기가 있음
총수
• 부정적 인물 • 허영심이 많고 사치스러움 •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상은 위선적임

대조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 줌

정답의 근거·4번
비단잉어가 죽은 진짜 이유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결론은 어쨌든 것처럼 보이면서 속은 어둡함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유자가 자신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비단잉어의 죽음에 의해 총수의 처연함을 비꼬고 있으므로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웅색한 편이 아니었다. ▶ 비단잉어의 죽음에 의문을 떠는 유자
유자의 성격
아침에 들은 말만은 십사리 삭일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 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떡했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뺐지기도 거시기허구, 비싼 고기는 맛두 괜찮겠다 싶기도 허구…… 게 비단잉어의 몸값 비늘을 대강 긁어서 된장끼 좀 허구, 꼬치장두 좀 풀구, 마늘두 서너 통 다져 놓구,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임 멸국두 좀 있게 저서 한 고뿌덜씩 했지유.”
일본어로 접. 여기서도 '술'의 의미함
“뭇이 어찌구 어째?”

“왜유?”

“왜애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총수 - 비인간적인
총수는 분기탱천(憤氣撐天)하여 부찌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 “달리 처리할 방법두 읊잖은갑유.”

총수에게 의문스러운 태도로 일관함 - 유자의 죽어 있는 태도를 보여 줌
총수의 성깔을 덧붙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달은 거였다.
남을 견드려서 어떻게 하려고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것들하고 따따부따해 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무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 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해서 처먹어 버려? 에이…… 에이…… 피두 눈물두 없는 독종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 지저 먹어 보니 맛이 워똥타?”

이 작품은 유자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 주는 형식임. 이 부분은 유자와 '나'가 만나고 있는 장면임
내가 물은 말이었다.

“워똥기는 뭐가 워똥…… 살이라구 허벅허벅헌 것이, 별맛도 읊더구만그려.”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디…… 좌우지간 맛대加里 읊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육을 두 사발이나 먹구 낫더니, 지금지금허구 해감내가 나더래두 이런 붕어 지지미 생각이 절루 나길래 예까장 나오라구 했던겨.”

▶ '나'와 만나서 비단잉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자

정답의 근거·4번
비단잉어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을 보이고 측은해 하면서 인간에게는 인색하게 구는 총수의 위선을 풍자함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 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하교용 승용차 운전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석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頂上)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거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들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럴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셔 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매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맛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위선적인 총수에게서 떠나고 싶어 하는 유자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나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鐘樓)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정답의 근거: 1번 거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일화를 통해 광문의 인물됨이 부각됨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꾹꾹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쉼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올라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알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薦舉)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 광문의 순박하고 의로운 성품

나 광문자전

1 인물을 파악하자!

신의 있고 정직한 광문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광문이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밥을 빌러 나간 사이에 아이가 죽음



누명을 쓰고 패거리에서 쫓겨난 광문은 죽은 아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름



광문이 몸을 숨기러 들어간 집의 주인이 광문의 의(義)로(義)를 알게 됨



약국에서 일하게 된 광문이 오해를 받게 되나, 그 오해가 풀리고 광문의 인(仁)격(格)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일화	광문의 성품
병든 아이 대신 밥을 빌러 나감	따뜻한 인(仁)간(間)애(愛)를 지님
누명을 쓰고 쫓겨난 후에도 죽은 아이의 시체를 수습함	선량하고 의(義)로(義)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믿고 따르며, 재물을 탐하지 않음	신(信)의(義) 있고 정직함

정답의 근거: 5번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러 주는 광문의 따뜻한 인간성과 의로움이 드러남

정답의 근거·3번

부자는 광문을 의심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임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부찌지를 못하였다: '부점을 못하였다'의 방언. 한곳에 붙어 배기거나 건디어 내지를 못하였다.
- 종루(鐘樓): 오늘날 종로 네거리에 있는 종각
- 천거(薦舉):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 광문을 몰고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제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것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宗室)의 빈객들과 공경(公卿) 문하(門下)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공경 문하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長者)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 광문의 욕심 없고 정의로운 성격

-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고난도 복합 09

본문 132~137쪽

1 ① 2 ② 3 ④ 4 ⑤ 5 ③

가 유자소전(俞子小傳) _ 이문구

해제: 이 작품은 서사 문학의 전통적 서술 방식인 전(傳)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유재필(유자)의 일대기를 서술한 소설이다. 이 글의 주인공인 유재필은 인정 많고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선비적 도량을 갖춘 인물로, 이에 '나(작가)'는 '공자', '맹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그를 '유자'라고 부른다. 수록된 지문에서는 유자가 충수와 비단잉어 사건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작가는 이 갈등을 통해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사람의 월급보다 비싼 비단잉어를 관상용으로 가져오고, 죽은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는 이유로 잔인무도하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충수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풍토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희극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약자인 유자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충수를 조롱함으로써 현대인의 허황된 삶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 비판

작품 전체 보기

발단	‘나’에게는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심성이 밝고 곧은 성품을 지녔고 깨어 있는 삶을 살기에 그를 ‘유자’라고 부름
전개	유자는 특유의 불임성과 왕성한 호기심으로 명물로 불리며, 어린 시절을 보낸, 중학교 졸업 후 야당 위원장의 일을 돕다가 군대에 입대하고 제대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재벌 총수의 운전사가 됨
위기	충수의 신임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던 유자는 ‘나’를 만나 충수의 위선적인 모습(비단잉어 떼죽음 사건과 관련한 일화)에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말함. 결국 충수 집에서 쫓겨난 유자는 운수 회사 노선의 상무가 됨
절정	교통사고를 처리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았던 유자는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까지 고맙다는 말을 들음
결말	말년에 종합 병원 원무 실장을 지낸 유자는 뜻밖에 간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를 아는 문인들과 ‘나’는 유자의 죽음을 애도함

나 광문자전(廣文者傳) _ 박지원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로, 기존 고전 소설의 제자佳人(才子佳人)형 주인공이 아닌 미천한 신분에 추한 외모를 지닌 광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따뜻한 인간성과 소탈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광문은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거나 비범한 능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비렁뱅이면서도 마음이 착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는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통찰할 줄 알며,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욕심이 없고 순수한 광문은 탐욕과 부패에 빠진 조선 후기의 양반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대비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정직하고 신의 있는 광문의 삶에 대한 예찬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종루 저잣거리 걸인들의 우두머리인 광문은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쫓겨나 어떤 집에 들어감. 광문의 덕행을 보고 그의 인품을 알아본 집주인은 광문을 의롭게 여겨 그를 약국의 부자에게 천거함
전개	어느 날 부자의 돈이 없어져 광문이 의심을 받게 되는데, 며칠 후 주인의 처조카에 의해 오해가 풀림. 부자는 광문에게 사죄하고, 그의 인품과 의로움을 널리 알림
위기, 절정	광문이 성실한 행동으로 위기를 넘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음
결말	광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랑받음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는 비단잉어의 죽음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허영심 많고 위선적인 총수와 인간적이고 주대 있는 유자의 성격이 대조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에는 광문이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거지 아이를 거둔 일화를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돌보는 광문의 의롭고 따뜻한 성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일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 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일대기적 구성이란 인물의 출생부터 성장, 활동,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서술한 것을 의미한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들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생애를 다룬 일대기적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③ (가)에서는 총수와 유자의 갈등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위선적인 인물인 총수를 모시는 것에 대한 유자의 내적 고통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의 심리적 갈등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아닌, 인간미와 의리를 지닌 인물의 성격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④ (가)는 유자가 '나'와 만나 비단잉어 사건을 전해 주는 형식이므로 과거와 현재가 엮여진 구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엮어 구성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유자와 총수의 대화를 통해 총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인물들의 대화가 제한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전(傳)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짧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일반인 가운데에서도 미덕이나 재예(才藝)가 있거나 선행을 하여 후대에 전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전의 작가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하지만 엄밀히 말해 작가가 전달하는 사실은 작가에 의해 편집된 사실이다. 따라서 전을 읽을 때 독자는 일차적으로는 인물 각각의 삶을 검토하며 이해하고, 전을 읽을 때 유의할 점 비판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찾는 후에, 이차적으로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입장과 가치관, 사상을 판단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보기 노트

〈보기〉는 우리 서사 문학의 전통적인 양식인 전(傳)의 개념과 전을 읽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전(傳)의 작가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하지만 작가가 전달하는 사실은 작가에 의해 편집된 사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의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나'와 유자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입장과 가치관, 사상을 판단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의 작가는 총수를 통해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자 했으므로, 독자가 유자를 통해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총수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겠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전(傳)은 일반인 가운데에서도 미덕이나 재예가 있거나 선행을 하여 후대에 전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의 작가는 유자를 생각이 깊고 곧은 성품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므로, (가)의 작가가 생각이 깊고 곧은 성품의 유자가 후대에 전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전(傳)의 양식을 활용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작가가 전달하는 사실은 작가에 의해 편집된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나)는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자 했으므로, (나)의 작가가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걸인인 광문의 미덕이나 선행을 편집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입장과 가치관, 사상을 판단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의 독자가 광문의 모습에서 작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3 속담 및 한자 성어

‘반신반의(半信半疑)’는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한다’는 의미이다. 부자는 돈이 없어지자 광문을 의심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④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감언이설(甘言利說)’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의미한다. 유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 것에 대해 총수가 자신에게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하려 들

자 비위가 상해 부려 의문을 떨어 충수를 비교고 있을 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화가 난 충수에게 의문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 유자의 모습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인물인 충수에게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좇대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광문은 감탄고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집주인은 광문이 의로운 인물임을 알아보고 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⑤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광문의 정직하고 의로운 인품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문구는 『전통적인 농촌이나 어촌, 산업화의 소외 지대인 도시 변두리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충청도 특유의 토속어를 잘 포착하여 형상화』해 낸 작가이다. 그는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과 정서에 주목하여 풍자와 해학을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공감의 정서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어리숙한 주인공을 등장시켜 산업화가 생산해 낸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가 만들어 낸 주인공들은 말투와 몸짓, 그리고 어설픈 판단까지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게 하고, 주인공과 대조되는 인물을 희화화함으로써 작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시의 사회 풍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의 상실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허황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

보기 노트

〈보기〉는 이문구의 작품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가)에 그려진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물의 말과 행동이 풍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해 본다.

유자로부터 죽은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충수는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 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해서 쳐먹어 버려?'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비단잉어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을 보이고 측은함까지 느끼면서 인간에게는 인색하게 구는 충수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비단잉어를 먹어 버린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충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는 유자는 이 글에서 긍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그가 사용하는 충청도 사투리나 대상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표현 등은 독자로 하여금 인물에 대해 정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② 지문에서 비단잉어가 죽은 진짜 이유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 내지 않고 고기를 넣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리숙한 인물인 유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충수가 그 이유를 모름으로써 충수의 어리석음을 유자를 통해 희화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작가는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과 정서에 주목했다고 하였다. 지문에서 죽은 비단잉어에는 측은함을 느끼면서도 인간에게는 인색하게 구는 충수의 위선을 통해 산업화로 인한 물인정한 사태를 보여 주어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충수의 사치와 허영심을 조롱하고,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유자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건의 전개 양상

광문은 수표교 아래(㉔)에 숨어 있다가 거지 아이들이 버리고 간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한다. 광문은 누명을 쓰고 패거리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러 주는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인물로, 애초에 잘못된 점이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광문은 병든 아이를 죽였다는 누명을 써 매질을 당하고, 거지 패거리에서 쫓겨나 ㉔에 이르게 되었다.

② ㉔의 집주인은 ㉔에서 광문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는 모습을 보며 그의 따뜻한 인간됨을 알아보았다.

④ 광문은 그의 인간됨을 알아본 ㉔의 집주인의 소개로 ㉔에서 일하게 되었다.

⑤ ㉔에서 약국 부자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광문을 의심하였지만, 며칠 후 오해가 풀리자 그를 의심한 것을 사죄하였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고난도 복합 10 재수 없는 금의환향 / 흥보가 / 이론

본문 138~141쪽

가 산굽이 하나를 돌아서자 갑자기 복만이 차가 멈추어 있었다. 고장인 모양이었다. 복만이 부인은 어린애를 안고 길가에 앉아 있고, 꼬마들은 아까 선구 애들처럼 꽃을 찾아 산을 싸대고 있었다.

“쌍놈의 차가 여기서 고장이 날 게 뭐야.”

복만이는 담배꽂초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투덜거렸다.

“산 지가 육 개월도 안 된 것이 이 모양이니, 이거 아직도 국산은 멀었어.”

복만이는 잔뜩 비위 상한다는 표정이었다.

“애들은 셋인가? 저게 막내고?”

“셋이야, 이거 셋도 너무 많은 것 같애. 너 지금 XX 비료 공장에 있었지? 월급이 얼마나 되나?”

“월급? 그저 먹고살 만큼은 주더라, 하하하.”

정답의 근거·3번 복만의 속물근성이 드러남

“요샌 말이야. 경기가 너무 없어서 사업도 못 해먹겠어. 사업이라고 하나 벌이고 있는 게 공원들이 많아 놓으니 인건비 때문에 도통 숨을 쉴 수가 없다구. 또 **그놈의 세금**은 도대체 그냥 생으로 뜯어먹자는 식이야.”

복만이는 계속 엄살 투였으나 자기 사업 규모와 부유한 생활 자랑이었다. 세금은 월 평균 천만 원에 가깝고, 차 밑으로 한 달에 삼십만 원씩 든다는 얘기며, 술자리에 앉았다 하면 이삼십만 원이라는 식이었다.

선구는 복만이 아내와 인사라도 하고 싶었으나 복만이는 제 이야기에만 정신이 없었다.

“아빠, 빨리 가. 할머니가 기다리겠어.”

둘째가 선구의 손을 끌며 보챘다. 정답의 근거·1번 복만이 거둔 경제적 성공에 별 관심이 없는 선구 선구는 복만이 이야기에 별 흥미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그 성공을 축하하는 친구로서의 도리일 것 같아 애들이 보채는 것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나 차가 얼른 고쳐지지 않는지 운전수는 잔뜩 기름을 뒤집어쓰고 땀만 뻘뻘 흘렸다.

정답의 근거·1번 자동차가 고장 난 데 미리 정비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운전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복만

“이렇게 장거리를 필람 미리 정빌 좀 잘 해알 것 아냐? 길가에서 쟁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

선구에게 자기 자랑하기가 바쁜 틈에도 운전수에게 한마디씩 호통을 쳤다.

“아빠, 이게 무슨 꼴이야?”

복만이 아들놈이 **㉠** 꽃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물었다.

“그런 건 알아 뭘 해! 옷 버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아이는 뽀로통해 가지고 자기 엄마 쪽으로 갔다. <중략> ▶ 귀향하는 중 자동차가 고장 난 복만

복만이와 얘기를 하는 선구의 입맛은 펄갠 먹은 것 같았다. 선구는 아까 옛날 고무신 잃었다 찾은 일을 떠올렸을 때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를 하며 한바탕 웃을 생각을 하기까지 했었다. 저렇게 가난을 벗어나 큰돈을 번 다음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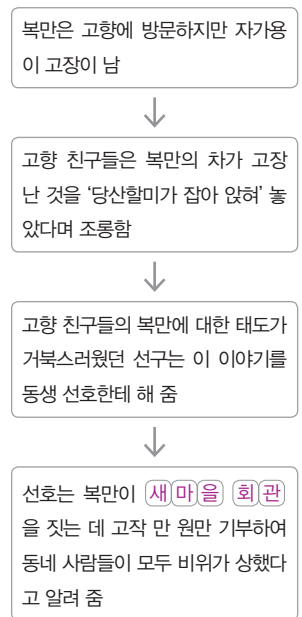
지금 필수 감/상/전/탁

가 재수 없는 금의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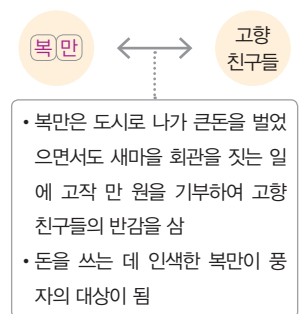
1 인물을 파악하자!

복만	도시로 나가 사업에 크게 성공한 후 귀향함
선구	비료 공장의 부장이 된 후 귀향함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정답의 근거·5번

돈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복만이 지닌 속물적 근성을 부각해 줌

정답의 근거·4번

복만과의 대화를 끝낸 선구가 떠올린 생각

그 이야기도 한날 즐거운 추억으로 호탕한 웃음소리 속에 날려 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만이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난 지금, 옛날 [A] 그 사건은 다시 가혹한 모습으로 다가들었다. 사업, 공원, 월급, 세금, 자가용, 복만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이런 소리들이 그 처절했던 고무신 사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거그 온 것이 선구 아닌가?”

건너편 산등성이에 모여 앉아 있던 사람 중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다. 소나무 가지치기라도 하다가 새참을 먹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었다.

“어이, 달중인가? 그간 별일 없었는가?”

“어이, 객지에서 고생이 많제?”

“그저 그렇네. 농사는 잘되었는가?”

“시절이 이만했으면 농사는 너나없이 방불한 것 같네. 그런데 거그 ㉠ 고장 난 차가 누 찬지 모르겠는디 말 쪼깐 전하소.”

정답의 근거·5번 복만이 체면을 구기는 계기가 됨

말을 해 놓고 작자들은 껍껍 웃었다. 선구는 새통맞은 소리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사 같으면 알은체하기에 너무 먼 거리였으나 오랜만의 반가운 정분이거나 싶어 그걸 되레 고맙게 받았더니 이 작자들이 복만이 편잔주는 데 자기를 달고 건네자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 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색을 하기도 드레 없어 멀썩하게 서 있었다.

정답의 근거·1번

달중이 복만을 비아냥거리는 데 자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언짢음을 느끼는 선구

인격적으로 절절한 무게

“그 차가 고장 난 것이 절로 난 것이 아니고 그 우게 있는 **당산할미가 잡아 앉혀**는 것이라 아무리 고쳐도 안 될 것이라도 쪼깐 귀땀해 줘.”

위에 : 복만에 대한 달중의 조롱

달중이는 복만이보다는 한두 살 손위로 원래 입이 걸쭉하기는 해도 별로 내통스러운 편은 아닌데 말 돌아가는 것이 심통 사납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 당나무가 그것이 허텅 건생으로 서 있는 성불러도 다 해마다 제 받아먹고 있는 것이라 들을 것 다 듣고 내려다볼 것은 다 내려다보고 있어. 그렇게 보고 듣고 있다가 복을 줄 때는 소리 안 나게 주제마는 동티를 내기로 하면 두억시니 못잖게 까다롭거든. 그 차 임자도 당산할미 앞에 크게 반성할 일이 있는 모양이그마.”

제사

모정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

정답의 근거·1번

고향 친구들이 자신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복만

“질지이심이 선구를 건네서 들때 놓고 말을 올려 가게 하는 것부터가 되게 뒤틀린 사단이 있는 것 같은데 복만이는 원체 **너울가지 없는 작자**이기도 하지만 어긋하게 지르숙고만 있는 것이 크게 끌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았다.

남과 잘 사귀는 우씨. 불임서

앞이나 한 쪽으로 장뚝 기울어져

마음속으로 좋게 기는

선구는 달중이 심통 부리는 것이 복만이보다 그 여편네한테 민망스러워서 부쩍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화약골 당산할미는 거그 뉘 있는 의병덜 험기를 본받아서 동티를 내도 꼭 널만한 늙한테만 동티를 내더만. 하하.”

선구는 더 있기도 거북살스러워서 애들을 데리고 먼저 동네로 들어왔다.

▶ 복만의 자동차가 고장 난 상황을 조롱하는 고향 친구들

선구는 동네 이장 일을 보는 동생 선호한테 달중이 얘기를 했더니 선호도 대뜸 욕설부터 했다. **새마을 회관 지으면서 기부를 하라고 했더니 돈 만 원을 기부라고**

부자로 성공한 복만이 기부금을 너무 적게 낸 상황

정답의 근거·1번

새마을 회관 관련 기부금 문제로 복만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는 선호

[보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비위가 상해 있다는 것이었다.

정답의 근거·4번

선호에게 복안과 관련하여 전해들은 이야기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복만이는 이 일이 년 사이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지금은 삼억대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구나 복만이는 금년 봄에 이 동네에서 가장 귀가 바른 기와집인 옛날 강부잣집을 사서, 거적때기로 부엌 문 하던 오두막에서 그 부모들을 그런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앉혀 하루아침에 그 부모들을 동네 사람들 앞에 살뜰·석송이로 뵈게 활원을 시켜버렸다는 것이다.

▶ 새마을 회관 관련 기금 문제로 복만에게 불만이 많은 선호 - 송기숙, 「재수 없는 금의환향」

나 **㉠[아니리]** -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말)

정답의 근거·2번 흥보와 놀보의 대화, 놀보와 마당쇠의 대화가 제시됨

“형님, 살려주옵소서, 형님.”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야, 흥보야, 너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기왕 왔으니, 보리나 몇 말 타 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리까?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요.” “음, 그럴 것이다. 애, 마당쇠야! 이리 좀 오너라. 거 대문 걸어라.” “아니, 샌님, 왜 대낮에 대문을 걸라고 하십니까?” “야, 이놈아, 대문 걸어. 그리고 곳간 문 열어라.” “예. 곳간 문 열어 났습니다.” “아, 저런 죽일 놈이. 내 말도 안 듣고 네 맘대로 곳간 문을 열어 놔?” “아, 작은 서방님 쌀이 되었든지 보리가 되었든지 나락이 되었든지 줄려고 미리 열어 났어요.” “야, 이놈아! 잔말 말고 나 시킨 대로 해! 거 곳간 문 열고 들어가면, 쌀 백 석 있제?”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려요?” “야, 이놈아. 그리 돌아가면 보리 백 가마니 있제?” “보리 한 가마니 갖다 드려요?” “야, 이놈아. 그리 돌아가면은 콩도 있고, 팥도 있고, 그리 썩 돌아가면, 내가 지리산 갔다 오면서 **㉡** 박달방망이 하나 딱 쳐다 세워 났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너라. 내 그렇지 않아도 요새 시방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좋지 못했어. 마침 이놈을 내가 좀 만날라고 했더니, 마침 잘 만났으니, 너 이놈, 맛 좀 봐라.” 놀보란 놈이 그저 자기 금지옥엽 같은 동생을 몽둥이로 냅다 때리는데,

[자진모리] - 취모리보다는 느리고 중중모리보다는 빠른 속도로,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하면서도 상쾌함(창)

놀보놈 거동 봐라. 놀보놈 거동 봐라. **㉢**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쩍 추켜들고, “어따, 이놈, 흥보놈아! 나의 말을 들어 봐라. 너 하나를 내보내고 도적놈 말을 들었으니, 이 분을 어떠 풀까 곰곰이 생각더니, 오늘 만났으니 몽둥이 매를 맞아 봐라.” 그저 후닥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이놈아, 들어 봐라. 잘살기 내 복이요, 못살기도 네 팔자, 굵고 먹고 내 모른다. **㉣** 뱃말을 주자 한들, 마당귀 쌓인 노적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네놈 주자고 노적 혈며, 돈 냥을 주자 한들 **㉤** 천록방 큰 궤 안에 가닥가닥이 **㉥** 관을 지어 떼돈이 들었으나, 네놈 주자고 왜돈 혈랴? 싸라기 나 주자 한들, 황계 백계 흑계가 수십 마리가 늘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며 툭툭하고, 꺾꺾 우니, 네놈 주자고 닭 굶기며, 찌갱이나 주자 한들, 구진방 떼되어야지 수십 마리가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돌 굶기랴? **㉦** **오곡이 썩어나고 왜돈이 녹아나도 너**

돼지를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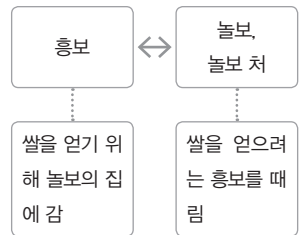
혈육에게 최소한의 인정도 베풀 줄 모르는 놀보의 도덕적 타락상

나 **흥보가**

1 인물들 파악하자!

흥보
- 가난하지만 순박함 -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히 여기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
↕
놀보
- 부자이면서 욕심이 많고, 몰인정함 - 인륜이나 도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함

2 사건 및 갈등에 주목하자!



3 지문의 핵심을 짚자!

표면적	이면적
선량한 인물	빈농 계층을 대표함
악행을 일삼는 인물	지주 계층을 대표함

→ 흥보를 통해 못 가진 자의 서러움을 그려냄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고, 놀보를 통해 가진 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음

정답의 근거·5번
놀보의 비정함을 보여 줌

정답의 근거·2번
놀보가 몽둥이를 들고 동생 흥보를 때리는 대목

정답의 근거·2번
먹을 것이 남아돌아도 동생에게 주지 않겠다는 놀보의 말을 장황하게 열거함

줄 것은 없다.” 몽둥이 드러메고 좁은 골 벼락 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그저 후닥딱!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홍보가 도망을 가려 하니, 대문을 걸었으니 옴도 뛰도 못 하고, 그저 펍펍 맞는구나. 홍보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 주오.”

▶ 쌀을 얻으러 온 홍보를 마구 때리는 놀보

[아니리]

정답의 근거·5번

놀보 마누라가 시동생인 홍보를 때리는 도구

정답의 근거·2번

놀보 마누라가 놀보보다 더 독한 인물임을 광대가 직접 논평함

㉔ 이때여,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장팔이나 더 독하것다. ㉕ 밥 푸던 주걱을 행주로 싹 씻쳐 버리고 들고 나오며, “아니, 아주뻘이고 도마뻘이고 난 또 난 누구라고? 한 달이면 서른 날, 일년이면 삼백육십 날, 돈 달라, 쌀 달라 세상에도 귀찮아 구만. 아니, 언제 전곡 갖다 말렸던가? 아나 돈! 아나 쌀!” 주걱으로 그저 이썩 뻘저썩 뻘 그저 절뚝절뚝 때려 노니, 홍보가 뻘을 맞고 생각하니, 자기 형님한테 맞은 건 여반장이 되고, 형수한테 뻘을 맞고 보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아주뻘’을 ‘아주뻘’으로 변형하여 말장난 형 언어유희에 해당함

㉖ [진양조] - 가장 느림과 전개가 느슨하고 애절한 대목에 쓰이는 장단(창)

홍보가 기가 막혀 섰던 자리에 거꾸러지며, “허허,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형수가 시아재 뻘 치는 법을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시오, 아주머니! 나를 이렇게 치지를 말고, 사지를 짹짹 찢어서 아주 박살 죽여 주오! 살기도 나는 귀찮하고, 배가 고파서 못 살겠소. 지리산 호랑아, 날 물어가거라! 아이고, 하느님! 홍보를 이 자리 벼락이나 내려 주면, 염라국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뵈은 후에, 세세 원정을 아뢰려마는 어찌하여서 못 죽는가?” ㉗ 부러진 작대기 찾아 쪼고,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의 집으로 건너간다.

정답의 근거·5번 홍보의 처량한 신세를 강조함

▶ 놀보 아내에게 매를 맞은 홍보 - 작자 미상, 「홍보가(興甫歌)」

정답의 근거·2번

형에게 맞고 나서 형수에게도 얻어맞은 홍보가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대목

- 동타: 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지신(地神)을 화나게 하여 재앙을 받는 일. 또는 그 재앙
- 질지이심(疾之已甚): 매우 미워함
- 석송(石崇): 중국 서진(西晉) 때 항해와 무역으로 거부가 되었던 사람의 이름
- 천록방(天祿房): ‘하늘이 내린 복록이 들어찬 방’이란 뜻으로, 공간에 붙인 이름
- 관(貫): 열 냇을 단위로 한 엽전 꾸러미. 꿩
- 장팔이나: 일 장(丈) 팔 척(尺)이나, 훨씬
- 여반장(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
- 세세 원정(細細冤情): 자세한 억울한 사정

다 풍자란 『주로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주체가 부정적 대상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거나 조소함으로써 돌려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자는 사회의 제도적 모순, 인물의 결함이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풍자의 의미 및 목적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질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풍자는 특히 탈춤이나 판소리를 비롯한 민중적 연희 장르에서 다스리는 자, 가진 자, 배운 자들의 허위의식이나 도덕적 타락상을 꼬집는 데 많이 등장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소설을 비롯한 한국 문학 곳곳에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전통 한국 문학에서의 풍자의 대상

▶ 전통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풍자의 대상

기본적으로 풍자는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골계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웃음 유발의 수단으로는 냉소, 조롱, 야유, 반어, 과장, 희화화, 언어유희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된다.

풍자를 통해 나타나는 미적 범주

풍자의 웃음 유발의 수단

▶ 골계미를 드러내는 풍자

1 ④ 2 ① 3 ① 4 ② 5 ④

가 재수 없는 금의환향 _ 송기숙

해제: 이 작품은 도시로 나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으면서도 고향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하고 용렬한 인물인 복만의 귀향을 통해,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치의 혼란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학적으로 보여 준 소설이다. ‘금의환향’을 꿈꾸며 자가용을 타고 고향 방문 기념 수건까지 준비해 고향에 간 성공한 사업가 복만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친구들로부터 ‘재수 없는’ 놈 취급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친구들이 모여 앉은 술자리에서 전통 놀이인 땡기풀이를 하는 것을 계기로 풀리게 된다. 도시와 농촌, 물질과 정신적 가치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갈등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문제를 고향 친구들이라는 연대 의식과 전통 놀이라는 흥취를 통해 풀어 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인물에 대한 풍자

작품 전체 보기

발단	가난 때문에 국민학교(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도시로 나가 사업을 벌인 복만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체의 사장이 되어 귀향을 하게 됨
전개	자신의 출세를 과시하고 싶은 복만은 자신의 공장 준공을 알리는 수건까지 준비해 고향에 가지만, 가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만 체면이 구겨지고, 고향 친구들은 그런 복만을 비웃으며 그를 골게 맞이하지 않음
위기	비료 공장의 부장이 된 선구도 추석이 되어 귀향을 하게 되고, 옛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함. 복만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던 친구들은 결국 복만을 혼내 주겠다며 그를 술자리로 부르
절정	영문도 모르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된 복만은 잠시 술을 마시다 순식간에 친구들에 의해 거꾸로 매달려 문초를 당하게 되고, 결국 기부금을 내라는 친구들의 강요에 복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을 함
결말	친구들은 마을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바로 공표해 버리고, 매달렸던 줄에서 풀려난 복만은 크게 화도 못 내고 씁쓸한 웃음만 지음

나 흥보가(興南歌) _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박타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등장인물들의 익살스러운 재담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 해학성이 가장 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형제의 우애 문제를 중심으로 빈부 갈등을 비롯한 당대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해학성과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구현한 판소리 사설이다. 문체상으로는 양반층의 한문투와 평민층의 비속어를 함께 사용하여 이중의 문체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유희, 과장된 표현, 의성어와 의태어 등을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주제 면에서도 다른 판소리와 마찬가지로 표면적 주제와 함께 이면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작품의 이면적 주제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부(富)와 빈곤(貧窮)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격심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천부(賤富)의 대두로 인해 가난해진 양반과 신흥 부유 계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인과응보에 따른 권선징악
• 조선 사회의 부조리(빈부의 갈등)

작품 전체 보기

발단	욕심이 많고 심보가 고약한 놀보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죄다 독차지하고 동생인 흥보네 가족을 내쫓음
전개	집에서 쫓겨난 흥보는 쌀을 구하러 놀보의 집에 가지만 매만 맞고 돌아오고, 흥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갖 품팔이를 하며, 심지어는 매품까지 팔게 됨
위기	어느 날 흥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고, 이듬해 제비가 흥보에게 박씨 하나를 줌
절정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열린 박 속에서 나온 재화로 흥보는 부자가 됨. 이 사실을 안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 줌. 제비는 놀보에게도 박씨를 주었으나, 놀보의 박에서는 괴물이 쏟아져 나와 놀보는 패가망신을 함
결말	놀보의 소식을 들은 흥보는 자신의 재물을 놀보에게 나누어 주고,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됨

다 이론

해제: 이 글은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징 중의 하나인 풍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풍자는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주체가 부정적 대상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거나 조소함으로써 돌려서 공격하는 표현 방법으로, 탈춤이나 판소리와 같은 민중적 연희 장르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냉소, 조롱, 야유, 반어, 과장, 희화화, 언어유희와 같은 수단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는 골계미를 형성한다.

주제: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징인 풍자의 의미 및 특성

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선구는 달중이 알은체를 하며 말을 건네자 ‘반가운 정분이거니 싶어’ 고맙게 받았으나 실은 그 말들이 ‘복만이 편잔주는 데 자기를 딛고 건네자는 수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달중이 비아냥거린 대상은 선구가 아니라 복만이므로, 선구가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달중의 태도로 인해 언짢음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복만은 고장 난 차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 운전수에게 ‘이렇게 장거리를 뿔람 미리 정빌 좀 잘 해랄 것 아냐? 길가에서 뺨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라는 힐난의 말을 한다. 이를 통해 복만이 차가 고장 난 데는 미리 정비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운전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복만은 달중이 ‘심통 사납게 가시가 돋쳐’ 있는 말을 일부러 복만에게 들리게 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은 깍깍 웃는 상황에서도 ‘어긋하게 지르속 고만’ 있는데, 이를 보고 선구는 ‘크게 끌리는 대목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큰돈을 벌었으면서도 세마를 회관을 짓는 일에 기부금으로 고작 만 원을 보낸 것을 두고 고향 친구들이 자신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복만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③ 복만은 자신이 거둔 경제적인 성공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선구는 그런 ‘복만이 이야기에 별 흥미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 주는 것이 그 성공을 축하하는 친구로서의 도리일 것 같아’ 참고 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구는 복만이 거둔 경제적 성공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선구는 동네 이장 일을 보는 동생 선호한테 달중이 얘기를 했더니 선호도 대뜸 욕설부터 했다.’에서 선호도 달중이처럼 세마를 회관 관련 기부금 문제로 복만에게 ‘비위가 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판소리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광대의 연행은 크게 창, 아니리, 발림으로 구성된다. '창'은 곡조가 있는 노래로, 주로 장면 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느린 진양조'에서부터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를 거쳐 가장 빠른 '휘모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단이 정서나 분위기에 따라 장면마다 적절히 선택된다. '아니리'는 말로 이야기의 줄거리나 진행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사건의 변화나 주인공의 심리 묘사, 작중 인물의 대화, 사건 요약'을 통한 줄거리 등을 전달할 때가 많다. '발림'은 광대가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극적 상황을 실감나게 그려내는 것이다. 광대는 때로 해학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전개상 긴요하지 않은 부분을 극대화하면서 사물이나 동작을 길게 열거하기도 하고,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보기 노트

〈보기〉는 광대의 연행 방법인 창, 아니리, 발림과 판소리에서 해학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 아니리는 흥보와 놀보의 대화, 놀보와 마당쇠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줄거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은 놀보가 몽둥이를 들고 동생 흥보를 때리는 대목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시늉을 하면 극적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③ ㉢은 '먹을 것이 아무리 남아돌더라도 네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열거하며 여여 나간 부분으로, 사건 전개상 긴요하지 않은 부분이 극대화되어 해학성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놀보 마누라가 놀보보다 더 독한 인물이라는, 판소리 광대의 직접적 논평이다.

⑤ ㉤은 형에게 맞고 나서 형수에게도 얻어맞은 흥보가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대목이므로 처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가 선택된 것이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에서 복만이 '그놈의 세금은 도대체 그냥 생으로 뜯어먹자는 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작가가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언어적으로 풍자하려는 것이 아니다. '복만이는 계속 엽살 투였으나 자기 사업 규모와 부유한 생활 자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복만이 선구에게 자기 돈 자량을 하는 와중에 섞여 넣은 푸념에 불과하며, 복만의 속물근성을 풍자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가)에 드러나는 복만의 결함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새마을 회관 건립 사업에는 고작 만 원을 기부하며 좀스럽게 굴었던 점이다. 달중이 복만의 차가 고장 난 것을 두고 '당산 할미가 잡아 앉혀' 놓은 것이라고 하고, 의병들 협기를 받은 당산할미가

'꼭 낼 만한 농한테만 동티를 내'곤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정적 인물인 복만을 조롱하는 것이다.

④ (나)에서 공간이 곡식으로 가득한 놀보가 '오곡이 썩어나고 왜돈이 녹아나도' 흥보에게 줄 것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혈육에게 최소한의 인정도 베풀 줄 모르는 도덕적 타락상에 해당하고, 이는 풍자의 대상이 된다.

⑤ (나)에서 놀보 마누라가 흥보의 말을 듣고 한 말에 등장하는 '아주뻘이'고 '도마뻘이'고 '아주버니'를 '아주뻘'으로 변형하여 말장난을 한 것이므로, 이 작품의 웃음 유발 전략인 언어유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4 서술상의 특징

[A]는 복만과의 대화를 끝낸 선구가 떠올린 생각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B]는 선구가 선호에게서 복만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A]와 [B] 모두 초점화된 인물은 선구이다.

오답 풀이 ① [B]에는 복만에 대한 반감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A]에서 선구가 복만에게 느낀 반감을 엿볼 수 있다.

③ [A]와 [B]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A]에 드러나 있는 것은 작중 인물인 선구의 생각과 느낌이다.

⑤ [B]에는 인물의 내면 심리가 나타나 있지 않다.

5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④는 놀보 마누라가 시동생 흥보를 때리는 도구일 뿐 흥보가 지닌 식탐을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돈 자랑에만 열을 올리는 복만은 아들이 꽃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묻자 그런 건 알아서 뭘 하느냐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면박을 준다. 이는 꽃이나 아들의 호기심보다 돈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복만의 속물근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② 복만은 고향에 오면서 자신의 부를 뽐내기 위해 자가용을 타고 왔지만 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게 된다.

③ 놀보는 먹을 것을 얻으러 온 굶주린 동생을 박달방망이로 두들겨 팬다. 따라서 ㉢은 놀보의 비정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형님 내외에게 흠뻑 두들겨 맞은 흥보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간다. 이때 흥보가 짙은 부러진 작대기는 흥보의 처량한 신세를 강조해 준다.

오답 노트

	채점	나의 고득점 전략
1	○ △ ×	
2	○ △ ×	
3	○ △ ×	
4	○ △ ×	
5	○ △ ×	

지금 필수 기출 해설

본문 008~017쪽

- | | | | |
|------|------|------|------|
| 1 ⑤ | 2 ① | 3 ④ | 4 ② |
| 5 ⑤ | 6 ⑤ | 7 ① | 8 ④ |
| 9 ③ | 10 ⑤ | 11 ⑤ | 12 ④ |
| 13 ① | 14 ③ | 15 ④ | |

[1~6] 현대 소설 + 시나리오

가 천변풍경 _ 박태원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대도시인 서울 청계천 주변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서술한 세태 소설이다.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된 각각의 일화를 특별한 줄거리나 순서 없이 나열하는 삽화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빨래터와 이발소 등과 같은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 서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술자의 개입이 곳곳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객관적인 표상만을 다루고 있다.

주제: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나 오발탄 _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해제: 이 작품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해방촌을 배경으로 실향민 가족의 실향 의식과 생활고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실하지만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철호, 가난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린 철호의 아내, 돈을 위해서라면 윤리 의식마저 버릴 수 있다는 영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 양공주가 되어 버린 명숙의 삶은 전쟁으로 고통 받던 당대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전쟁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가치관의 극명한 차이는 모순된 전후 사회 현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철호와 철호가 행복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대한 사회 사이의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영상 기술을 도입하여 원작 소설의 특징과 감동을 최대한 살리면서 비극적인 인물상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 6·25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다 패배하는 인간의 비극

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신전 집의 몰락을 그리면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개를 못 들고 남부끄러워하는 모습에 그들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철호가 아내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고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장면이라든가 영호가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던지는 장면 등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인물 간 대결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나)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철호와 영호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한 희화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가)에는 인물의 회상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철호의 회상 장면이 있으나 이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않는다.

④ (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서글픈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 사이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가)의 ‘이발소 소년’이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천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신전 집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처럼 ‘이발소 소년’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② ‘이발소 소년’은 신전 집의 몰락을 보긴 하였으나 그 몰락의 이유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③ ‘이발소 소년’은 새로운 사건을 포착하기는 하지만 그 진위를 논평하지는 않았다.

④ ‘이발소 소년’은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하지 않는다.

⑤ ‘이발소 소년’이 천변 주민들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지는 않는다.

3 서술상의 특징

[A]에서 서술자는 신전 집 사람들이 낙향할 것임을 이전에 언급하였음을 밝히고 있을 뿐, 해당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이러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를 보듯이 해당 정보가 해당 대목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는 ‘독자는, ~ 기억하고 게실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② ‘그 수다스러운 점령이 어머니가, ~ 빨래터에서 하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서술자는 ‘독자’가 이미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작품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 경기 강화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에서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은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쁜이 어머니는 떠나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에게 ‘골목’이 짧게 느껴진 것은 딸

과의 이별이 아쉽기 때문이다. (나)에서 택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해방촌의 '골목길'은 영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나)에서 철호는 '어금니'가 똑똑 쏘시고 아프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금니를 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금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아픔마저 견뎌내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다.

④ (가)에서 신전 집 사람들은 이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주인 영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전 집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72에서 철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누더기를 꿰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호네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신전 집 사람들로,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치열한 도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영호는 적은 월급을 받기 위해 취직하기보다는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사건의 전개 양상

#70에 나오는 철호의 침묵은 답답한 현실로 인한 것이다. #71에 나오는 영호와 운전수의 대화는 영호의 거침없는 성격을 드러낸다. 두 장면의 침묵과 대화는 상호 대비되지도 않을뿐더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68에는 철호만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69에는 갑자기 철호의 아내가 등장한다. #69에 '철호'를 삽입한 것은 철호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해 회상하는 이가 철호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② #69에 나오는 '철호' 뒤에는 철호의 아내가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의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호'에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69에서 'O·L'을 통해 교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아내와 신부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는 아내가 교차되고 있다.

④ #70에서 철호는 침묵하지만 시가지는 황홀에 묻혔다고 제시되었다. 이는 대비되어 답답한 철호의 심리를 암시한다.

6 작품의 종합적 감상

㉠에는 시간의 흐름이 분할되어 신전이 술집이 되는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75에서는 철호와 영호가 대화하는 사건과 명숙이 이를 엿듣는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있지도 않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이쁜이'와 '이쁜이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고, #71과 #72는 자동차 안과 철호의 방 안이라는 다른 공간을 영호의 등장으로 연결하고 있다.

② ㉠의 '바로 이날예'를 보면 같은 날에 두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과 결합하고 있고, #73과 #74는 다른 공간이지만 영호와 철호의 대화를 통해 결합하고 있다.

③ ㉠에서는 신전 집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이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영호와 철호의 대화가 '철호의 집 부엌 안, 방 안, 골목' 등을 배경으로 하여 #74의 상황을 해당 공간의 인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과 ㉠은 같은 날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으며,

#74와 #75 역시 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74와 #75에서는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경우의 연결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7~9] 현대시 + 현대시

가 출생기(出生記) _ 유치환

해제: 이 작품은 일제의 강점을 앞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시대적 암울함을 그리고 있는 시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옹희 2년(1908년)은 실제 시인이 태어난 해이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1910년을 2년 앞둔 해이다. 시인은 화자의 출생 내력과 연관 지어 암울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까마귀 울음소리', '희미한 등잔불' 등과 같은 시어를 활용하여 우울한 시대 상황을 어둡고 음산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고 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부담감을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출생의 내력과 일제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암울함

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_ 김춘수

해제: 이 작품은 사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보고 창작한 시로, 봄의 순수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작품 전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봄을 맞이한 사갈의 마을의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7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옹희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삼월'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표지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지었다오' 등의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해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온다', '댈다', '덮는다', '지핀다'와 같은 현재 시제를 주로 활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삼월의 풍경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상서롭지 못한', '욕된', '신월(新月)같이 슬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는 삼월에 눈이 오는 사갈의 마을의 풍경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봄을 바라고 썼는',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봄' 등의 표현에서 주관적 의미의 서술도 다소 포함하고 있다.

④ (가)는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어둔 바람', '욕된 후에',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의 시어가 작품 곳곳에 활용되어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으나,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 '올리브 빛', '제일 아름다운 봄'과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어가 주로 사용되어 생명력 넘치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새로 돋은 정맥',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 하늘에서 내려와'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에는 이러한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8 시상 전개 방식

[D]에서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서 출생에 대한 감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서 청각의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암울하고 음산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화자가 출생하던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1연에 제시된 시대 상황은 암울하고 음산한 것인데 반해, [B]는 남풍에 자라는 박넉출, 피 뽕은 듯 핀 석류꽃 등과 같이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황을 대꾸로 제시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의 울음소리에 출생을 연상하게 하는 '고고'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성'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돌메'라는 화자의 이름이 명명되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은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9 작품의 종합적 감상

하얀 눈 내리는 '하늘', 눈 덮인 '지붕과 굴뚝' 등은 흰색 혹은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공감각적 이미지란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사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인은 사갈의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④ '올리브빛'은 사갈의 그림에서 사나이의 얼굴빛으로 제시되었는데, 시인은 이를 시에서 '겨울 열매들'이 물드는 색으로 표현하여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하였다.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우리의 전통적 이미지로,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이다.

[10~12] 고전 소설

임장군전_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실제 그 당시 장군으로 활약했던 임경업의 영웅적 일생과 비극적 죽음을 그려 낸 군담 소설이다. 임경업의 일생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당대 집권층의 무능함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담아내고 있으며, 병자호란의 역사적인 치욕을 문학적으로나마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주인공의 승리와 개선으로 귀결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리 주인공이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결말을 보여 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제: 임경업 장군의 충의 정신과 비참한 죽음

10 서술상의 특징

경업은 거짓 조서를 꾸민 자점의 흥계로 인해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전옥 관원을 통해 경업은 자점의 흥계를 알게 되고 옥문을 깨치는데,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 옥문을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는 초월적 능력이 일부 드러나나, 적대자인 자점과 지략 대결을 벌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업은 자점의 흥계로 인해 매를 맞아 중상을 입고 다시 옥에 갇힌 후 결국 죽게 된다. 이 장면에는 경업의 지략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며 경업의 초월적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자점의 역심을 밝혀 자점을 물리치려는 주인공 경업과 경업을 해치려고 흥계를 부리는 적대자 자점 간의 대립 구도가 제시된다.

② 경업은 자점의 흥계로 인해 매를 맞아 죽게 된다.

③ 경업과 전옥 관원, 경업과 임금, 임금과 대군, (곡속) 경업과 임금 등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자점이 경업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둔 사건과 경업이 자점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④ 작품 말미에 경업을 죽인 악인인 자점이 상에게 역심을 품은 일을 자복하여 상이 자점의 삼족을 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이 엿보인다.

11 사건의 전개 양상

경업은 상의 꿈에 나타나 '흥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다고 아뢴다. 이에 상은 다음 날 자점을 국문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에 대한 자복을 받아낸다.

오답 풀이 ① 경업은 자점이 꾸며 낸 거짓 조서로 인해 옥에 갇히는데 강직한 전옥 관원이 경업을 불쌍히 여겨 이 사실을 경업에게 말한다. 이를 통해 경업이 자점의 흥계를 알게 되므로 경업이 옥에 갇히기 전부터 자점이 거짓 조서를 꾸민 흥계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옥줄은 옥에 갇힌 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데도 자점의 부탁으로 물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옥줄이 자점의 부탁으로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군은 경업이 결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자에게 경업의 거처를 묻는다. 이에 시자가 모른다고 하자 의심하여 바빠 입결을 하게 된다. 대군이 자점의 흥계를 의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업의 거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경업을 만나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우의정 이시백은 자점의 불측자심이 나타나자 이를 상에게 아뢴다. 우의정 이시백이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작품의 종합적 감상

[A]는 경업이 자점의 흥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잡혀가는 내용이다. ㉞은 자점의 흥계로 매 맞아 죽게 된 경업에 대한 평민층의 안타까움을 나타낸 필사기라고 할 수 있다. [A]를 읽은 평민층은 ㉞을 통해 경업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자점의 행동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점의 행위에 대한 연민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식자층은 [B]를 읽고 '대역 김자점', '소행이 혐오스러워' 등의 표현으로 자점의 행위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② 식자층은 [A]를 읽고 '괴로우며 애석하네' 등의 표현으로 경영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평민층은 [B]를 읽고 '남의 손에 죽으니'라고 하며 경영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평민층은 [B]를 읽고,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글을 남겨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13~15] 기행 가사

일동장유가 _ 김인겸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겪은 약 11개월의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총 8000여 구나 되는 장편 기행 가사이다.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와 그에 대해 느낀 바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통신사는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는 우리나라가 문화국이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왜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남녀의 머리 치장과 복식, 부녀자들의 치아에 색칠하는 풍습 등 일본의 풍속과 인물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 있다. 제시된 부분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의 상황과 일본 선비와의 필담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행 가사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

13 표현상의 특징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에서 동물의 역동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다. 풍량이 심해 위태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오답 풀이** ②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에서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한 악화된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에서 나뭇잎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에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엎디어 묻잡나니', '내 웃고 써서 뵈되',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등에서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14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은 풍량이 끝나고 다음날의 해돋이를 보고 감탄하며 화자가 한 말이고, ㉡은 전승산이 화자의 글 짓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평가한 말이다. 즉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② ㉠과 ㉡은 모두 실제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

④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를 담고 있지만, ㉠에는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에는 해돋이 풍광에 대한 화자의 만족이 드러난다. 하지만 ㉡에는 전승산의 감탄이 드러날 뿐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5 작품의 종합적 감상

'퇴석'은 이 작품을 지은 김인겸의 호이다. 제시문에서는 전승산이 화자의 글 솜씨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기만 하던 '퇴석 선생'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화자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즉 '귀한 별호 퇴석'과 '소국의 천한 선비'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승산'을 각각 지칭하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전승산'이 '나'가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전승산'은 '나'의 글솜씨를 보고 '빠른 재주'라며 높게 평가하였고, 이를 본 '나'는 '높고 병든 듯한 글'이라며 겸손함을 내보이고 있다.

③ '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는 '전승산'의 행동이며, '내 웃고 써서 뵈되'는 이에 대한 '나'의 행동이다. 이를 통해 두 사람 간에 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전승산'은 '장(壯)한 구경'이라고 하며 '나'의 글에 대한 찬사를 보이고 있으며, '나'는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라고 하며 상대의 글 값에 대해 거절의 뜻을 보인다.